

1. Beechwood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나는 숲으로 갔다. 도시에서 남쪽으로, 내 집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 좁고 이름 없는 너도밤나무 조각이 얇은 언덕 위에 있다. 나는 그곳으로 걸어갔다. 거리를 따라 도시 외곽으로, 그리고 산사나무와 헤이즐나무의 울타리 사이로 난 들판 가장자리 길을 따라갔다.

비행 중인 까마귀들이 나무 위에서 흥정을 벌였다. 하늘은 차가운 푸른색으로 밝았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우유빛으로 바랬다. 4분의 1마일 떨어진 곳에서, 나는 바람에 나무가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부드러운 해양의 포효소리 같았다. 그것은 마찰의 거대한 복합 소음이었다 - 잎이 잎을 걱정하고 가지가 가지에 비비는 소리였다. 나는 숲의 남쪽 구석으로 들어갔다. 움직이는 나뭇가지에서는 잔해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뭇가지와 밤나무 열매들이 구리빛 잎사귀 층 위로 펄펄 떨어졌다. 햇빛은 바닥에 밝은 축제처럼 떨어졌다. 나는 숲을 따라 걸었고, 그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중간쯤 걸어가면서 내 나무를 만났다 - 회색 껍질의 높은 너도밤나무로, 그 가지들이 펼쳐져 올라가기 쉬웠다.

나는 그 나무에 여러 번 올라갔었고, 그 흔적들은 내게 모두 익숙했다. 그 줄기의 밑동 주변에서, 그 껍질은 처져서 주름져 있어서 코끼리 다리의 피부를 닮았다. 약 10피트 지점에서, 가지가 갑자기 자신에게로 굽혀 있었다; 그 위로, 몇 년 전에 칼로 나무에 새겨진 'H' 글자는 나무의 성장으로 인해 부풀어 올랐고, 그보다 더 높은 곳에는 없어진 가지의 치유된 줄기가 있었다.

30피트 높이, 너도밤나무의 정상 근처에서, 껍질이 더 매끄럽고 은색인 곳에서, 나는 내가 '전망대'라고 부르게 된 곳에 도달했다: 줄기의 한 곡선 아래에 설정된 갈래가지 하나였다. 나는 내 등을 줄기에 기대고 두 발을 갈래의 각각에 올려놓으면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다. 몇 분 동안 가만히 있으면,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무에서 남자를 볼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조금 더 오래 가만히 있으면, 새들이 돌아왔다. 새들도 일반적으로 나무에서 남자를 볼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부스럭거리는 나뭇잎 사이로 돌아다니는 까치들; 가지에서 가지로 너무 빨리 움직여 텔레포트하는 것처럼 보이는 동박새들; 한 번은 덤

불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회색 들췌도 있었다.

나는 '전망대'에서 몸을 고정했다. 내 무게와 움직임이 나무를 흔들었고, 바람은 그 흔들림을 과장시켜 곧 너도밤 나무의 정상이 앞뒤로 삐걱거리며 5도나 10도의 호를 그리며 움직였다. 그날은 전망대가 아니라 해상의 돛대 상단의 망루와 같았다.

그 높이에서, 땅은 내 아래에 지도처럼 펼쳐졌다. 그 위에는 내가 이름을 아는 여러 조각의 숲이 흩어져 있었다: 맥스 힐 숲, 나인 웰즈 숲, 웜우드. 서쪽의 골덴 들판 너머에는 자동차들로 붐비는 주요 도로가 있었다. 북쪽으로는 병원이 있었고, 그 세 개의 굴뚝 인화로 탑은 내 언덕 위의 나무보다 훨씬 높이 솟아 있었다. 도시 외곽의 비행장으로 내려가는 깊은 가슴의 헤라클레스 비행기가 보였다. 동쪽 도로 가장자리 위로는 바람을 타고 있는 참매 한 마리가 보였고, 그 날개는 긴장으로 떨리며, 그 꼬리 깃털은 패를 펼친 것처럼 펼쳐져 있었다.

나는 대략 세 해 전에 나무 타기를 시작했다. 또는 오히려 다시 시작했다; 나는 놀이터가 숲인 학교에 다녔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무를 올라가 이름을 붙였고 (전갈자리, 메이저 오크, 페가수스) 그 통제권을 두고 복잡한 규칙과 충성심을 가진 영토 갈등에서 싸웠다. 내 아버지는 우리 정원에 형제와 나를 위한 나무집을 지어 주셨고, 우리는 몇 년 동안 해적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20대 후반에, 나는 다시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다. 그냥 재미로: 로프 없이, 위험도 없이.

나무 타기를 하는 동안, 나는 나무 종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은백색 자작나무, 느릅나무, 젊은 벚나무의 유연한 탄성을 좋아했다. 나는 소나무를 피했다 - 부러지기 쉬운 가지, 무뚝뚝한 껍질 - 그리고 플라타너스도 피했다. 그리고 나는 말발도리나무를 발견했다. 그것은 가지 없는 아래쪽 줄기와 가시가 많은 열매를 가지고 있었지만, 또한 엄청난 나뭇가지를 가지고 있어 나무 오르는 사람에게 어려움과 동기를 제공했다.

나는 나무 타기의 문학을 탐험했다: 방대하지는 않지만 매우 흥미롭다. 존 뮈어는 캘리포니아 폭풍우 동

안 백 피트 더글러스 가문비 나무를 오르고 숲을 내려다보며 '전체 숲이 하나의 연속된 흰 태양 불꽃으로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이탈로 칼비노는 그의 마법적인 소설, '나무에 사는 남작'을 썼다. 그 소설의 젊은 영웅, 코시모는 사춘기의 화를 내며 아버지의 숲속 저택에서 나무에 오르고 다시는 땅에 발을 딛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그는 그 충동적인 말을 지키며 나무 꼭대기에서 살며 심지어 결혼도 하고, 올리브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홀름 참나무 사

이를 수 마일 이동한다. B. B.의 '브렌든 체이스'에서는 소년들이 기숙학교로 돌아가는 대신 영국의 숲에서 야생 생활을 하며 '스카치 소나무'를 오르기도 하고, 단풍나무 앞으로 가려진 꿀매의 동지에 도달하기도 했다. 물론 윈니 더 푸와 크리스토퍼 로빈의 팀도 있었다: 푸는 하늘색 풍선을 타고 참나무 꼭대기의 벌집으로 올라가 꿀을 훔치려고 했고, 크리스토퍼는 꿀을 훔친 후 푸의 풍선을 쏘아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나무 타기의 현대적인 심각한 전문가들을 존경하기도 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의 레드우드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세쿼이아 세퍼비렌스, 거대한 레드우드는 300피트 이상 자랄 수 있다. 성인 레드우드의 대부분의 높이는 가지 없는 줄기이며, 그 다음으로 방대하고 복잡한 나뭇가지가 온다. 레드우드 연구자들은 탁월한 등반 기술을 개발했다. 그들은 활과 화살을 사용하여 나뭇가지에 닿는 당김 줄을 발사한다. 이 줄을 통해 그들은 등반 로프를 올리고 고정한다. 나뭇가지에 오른 후, 그들의 로프 기술은 그들이 안전하고 거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정교하다, 마치 현대의 거미남자처럼. 그곳, 그 공중 세계에서, 그들은 잃어버린 왕국을 발견했다: 놀라운, 이전에 조사되지 않은 생태계.

나의 너도밤나무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그것의 오름에는 어려움이 없었고, 정상에서는 생물학적인 계시도, 꿀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할 장소가 되었다. 안식처. 나는 그것을 좋아했고, 그것은 - 글썄, 나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나는 그것을 여러 번 올랐다; 새벽, 황혼, 그리고 눈부신 정오에. 나는 겨울에 그것을 올라가 나무 가지에 눈을 털어내며, 나무가 돌처럼 차가운 촉감을 느꼈고, 주변 나무 가지에는 진짜 까마귀 동지가 검게 보였다. 나는 초여름에 그것을 올라가 주변의 끓는 듯한 시골을 내려다보았고, 열기로 인해 공기가 젤리처럼 흔들리며, 근처 어딘가에서 들리는 느린 트랙터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몬순 비가 내리는 동안 그것을 올라가 물줄기가 눈에 보일 만큼 두껍게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나무를 오르는 것은 어느 정도 관점을 얻는 방법이었다; 나는 보통 가로질러 보는 도시를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안도의 안도. 무엇보다도, 그것은 도시의 나에 대한 요구를 덜어주는 방법이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너무 오래 거기에 있었다는 느낌을 알 것이다. 거리가 우리에게 각인하는 협곡 시야, 막힘의 감각, 유리, 벽돌, 콘크리트, 아스팔트 외의 표면에 대한 갈망. 나는 캠브리지에 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집약적으로 경작되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 중 하나에 위치한 도시. 그곳은 산과 야생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

착하기에는 이상한 곳이다. 캠브리지는 아마도 유럽 어디에서나 '야생지'라고 불릴 만한 곳과 시간적으로 거의 동일할 것이다. 나는 그 거리를 절실히 느낀다. 하지만 나를 여기에 붙들어 놓는 좋은 것들이 있다: 내 가족, 내 일, 도시 자체에 대한 내 애정, 그곳의 오래된 건물들의 돌이 빛을 응축시키는 방식. 나는 캠브리지에서 10년 동안 계속 살았고, 앞으로도 여러 해 동안 계속 살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머무는 한, 나는 또한 야생의 장소로 가야 할 것을 안다.

나는 언제 야생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이제 말할 수 없지만, 사랑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나의 필요는 항상 강할 것이다. 어린 시절, 나는 그 단어를 읽을 때마다 넓은 공간, 외딴 곳, 사람이 없는 곳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대서양 해안의 고립된 섬들. 경계가 없는 숲들, 그리고 눈 빛깔의 푸른색이 눈더미에 떨어지며 늑대 발자국이

남은 것을 밝힌다. 서리가 깨진 정상들과 큰 깊이의 호수를 품은 산골짜기.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남은 야생 장소의 비전이었다: 북방의, 겨울의, 광대한, 고립된, 원소적인, 여행자에게 그 거칠기를 요구하는 곳. 야생 장소에 도달하는 것은, 나에게, 인간 역사 밖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었다.

너도밤나무 숲은 내 야생에 대한 필요에 응답할 수 없었다. 근처 도로의 포효 소리는 들렸고, 서쪽을 지나가는 기차의 충돌과 경적 소리도 들렸다. 주변의 들판들은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료와 제초제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생울타리는 버려진 쓰레기들을 두는 데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다. 밤새 쓰레기 더미들이 나타났다: 벽돌 잔해, 물에 젖은 합판, 신문지 조각들. 나는 한 번 가시덤불에서 속옷과 레이스 팬티를 발견했는데, 마치 큰 뼈꾸기 둥지처럼 보였다. 쓰레기 투기였을 것이다, 아니면 도로변에서의 열정의 발작일 수도 있지만 - 누가 산딸나무 울타리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겠는가?

폭풍 전 몇 주 동안, 나는 익숙한 이동욕구를 느꼈다, 소각로 그림자의 낙선선을 넘어, 도시 순환도로의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그리고 그날 망루에서 내려다보며 도로, 병원, 들판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끼인 숲들을 보면서 캠브리지를 떠나 외딴 곳으로 가고 싶은 강렬한 필요를 느꼈다, 별빛이 선명하게 내리고, 바람이 36방향에서 내게 불어올 수 있는 곳, 그리고 인간의 존재 증거가 거의 없거나 없는 곳. 북쪽이나 서쪽으로; 내 생각에는 야생이 살아남는다면, 거기서 살아남을 것이다.

야생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사라졌다고 선언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E. M. 포스터는 1964년에 썼다, '두 차례

의 큰 전쟁이 요구하고 남긴 규제, 과학이 그녀의 도움을 주었고, 이 섬들의 야생, 결코 넓지 않았던 것이 금방 짝히 사라지고 지어지고 순찰되었다. 오늘날에는 도망칠 숲이나 산이 없고, 웅크릴 동굴도, 버려진 계곡도 없다.' 조너선 라반은 야생의 멸종이 훨씬 더 일찍 일어났다고 본다: 1860년대에 영국은 '너무 뻑뻑하게 사람이 살고, 너무 집약적으로 경작되고, 너무 산업화되고, 너무 도시화되어 진정으로 혼자 있거나, 모험을 할 곳이 바다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존 파울스는 1985년에 우울하게 단호했다: '우리는 이제 실제로 오래된 경관을 잃어버릴 충격적인 문턱에 서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시골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을 했다. 고대의 자연 생명의 풍요로움이 아직 위험에 처하지 않은 곳은 해안과 정말 높은 언덕과 산뿐이다.' 그리고 다섯 해 뒤, 미국 작가 윌리엄 리스트-히트 문은 영국을 '거의 진짜 야생이 남아 있지 않고 그것의 기억도 전혀 없는 장난감 왕국의 깔끔한 정원'으로 묘사했다. '숲은 인위적인 식재이다. 영국인들, 유럽인들은 야생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것이 우리와 그들의 차이이다.' 반복적으로 같은 한탄, 또는 같은 경멸이 나온다.

야생에 대한 애도는 지금은 더 이상 항의가 아니라 애가로 자주 반복되며,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많이 존재한다. 특히 지난 세기 동안 영국과 아일랜드의 땅과 바다에는 재앙이 닥쳤다. 피해 통계는 익숙하며 자주 반복된다. 1930년부터 1990년 사이에 영국에서는 고대 숲의 절반 이상이 베어지거나 침엽수림으로 대체되었다. 생물다양성의 절반 가량이 뽑혀 나갔다. 거의 모든 저지대 목초지는 갈아엎어지거나 건축되거나 아스팔트로 덮여졌다. 히스지의 3/4가 농장이나 개발지로 변했다. 영국과 아일랜드 전역에서 드문 석회암 포장은 돌 정원용으로 팔리기 위해 깨졌고, 수천 년 동안 형성된 이탄지는 배수되거나 채굴되었다. 수십 종의 동식물이 사라지고 수백 종이 위기에 처했다.

영국에는 이제 6천1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9만3천 평방 마일의 땅에 살고 있다. 외딴 지역은 거의 사라졌으며, 그 원인은 자동차와 도로이다. 이제는 운전 가능한 표면에서 5마일 이상 떨어진 지형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영국에는 3천만 대의 자동차가 사용 중이며, 본토에만 21만 마일의 도로가 있다. 그 도로들을 이어서 하나의 연속된 차도로 만들면, 거의 달까지 운전할 수 있다. 도로들은 자체적으로 새로운 이동하는 문명이 되었다: 출퇴근 시간에는 영국과 아일랜드 전역의 차 안 인구가 중앙 런던의 거주 인구를 초과한다고 추정된다.

영국의 가장 혼한 지도는 도로 지도다. 하나를 집어들면, 나라의 표면을 덮고 있는 고속도로와 도로의 그물망을

볼 수 있다. 그런 지도에서, 풍경은 아스팔트와 휘발유가 새로운 주요 요소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도로 지도를 고려할 때, 부재도 눈에 띈다. 야생 장소는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다. 펠, 동굴, 토르, 숲, 늪, 강 계곡, 습지는 모두 거의 사라졌다. 그것들이 전혀 표시되지 않거나, 일반적인 배경 음영 또는 일반적인 상징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보통 완전히 퇴색했거나, 고대 군도의 억압된 기억처럼 사라졌다. 물론, 땅 자체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욕구가 없다. 그것은 그것의 그림과 그것을 그리는 사람들에게 대해 무관심하다. 하지만 지도는 경관에 관한 정보를 조직하고, 그것의 측면들을 선택하고 순위를 매기는 매우 영향력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것은 경관이 인식되고 처리되는 방식에 강력한 편견을 만든다.

Irland

오후 낮은 빛이 선단 파도에서 빛났다. 바람이 강했고, 보트는 수평선에서 20도 기울어져 있었다. 돛은 팽팽했고, 바다는 회색이며 흥분된 상태였다. 우리 모두는 경사진 갑판에서 발을 딛고 있기 위해 와이어와 목재에 기대어 있었다. 나는 키를 잡고 섬을 향해 안정된 코스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나는 해류가 우리를 옆으로 밀어내며, 먼 본토의 바위에 부서지는 가는 흰색 파도에 대해 북쪽으로 은밀한 측면 이동을 강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본토 위로 검은색 위에 흰색의 두 얇은 구름층이 매달려 있었다: 혼란한 공기의 징조였다.

초여름, 저녁 무렵, Lleyн 반도의 가장 서쪽 끝에서. 우리는 바람이 세다는 것을 알면서도 늦게 항구를 떠났고, 어둠은 최대 세 시간 뒤에 찾아올 것이었다.

보트는 거의 8노트의 속도로 움직이며 파도 위에서 꾸준한 타격을 가하다가 갑자기 '탁' 소리와 함께 백조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거센 하얀 펄럭임이 일어났다. 보트는 바람을 피해 회전하며 속도가 느려졌고, 마치 물이 갑자기 두꺼워진 것처럼 느껴졌으며, 우리 모두가 앞으로 휘청거렸다. 찬물 물보라가 오른쪽 선체를 넘어서 튀어 올라 내 얼굴을 때렸다. 나는 불규칙한 북소리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스테이세일이 갑판 근처의 활에서 찢어져 나갔다. 바람의 압력에 의해 고정된 두꺼운 핀이 잘려나가면서 돛은 거의 자유롭게 휘돌리고 있었고, 마스트헤드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돛의 험거운 아랫부분에 고정된 무거운 금속 스

풀이 펄렁거리며 파이버글래스 갑판을 내리치고 있었다.

존, 스키퍼는 간결하고 정확한 명령을 내렸다. 그는 키를 잡고 보트를 바람을 향해 돌렸고, 나에게 그대로 유지하도록 맡겼다. 파도 물이 갑판을 적셨다. 존의 아내인 얀은 보트의 흔들리는 쪽으로 기어가 스푼을 잡아 난간에 묶었다. 돛은 내려져 바람에서 벗어나면서 우리는 그것을 말아서 갑판 위에 평평하게 놓고 테이프로 고정했다. 위기가 지나간 후의 고요함 속에서 마지막 시간이 흘렀다. 돛을 적게 올린 채로 우리는 천천히 움직였다. 4노트, 그 이상은 드물었다.

섬은 우리의 남서쪽에 있었고, 저물어가는 태양을 배경으로 한 큰 절벽과 바위가 물에서 500피트 솟아올라 그 끝이 길고 낮은 땅의 긴 팔로 이어졌다. 그 팔 위에는 몇 초마다 빛나는 오팔 거울이 있는 높은 등대가 서 있었다. 우리는 마침내 섬의 절벽의 바람 그림자로 들어갔고, 단독 돛은 주요 마스트에서 공기 없이 축 늘어졌다. 그리고 마치 환영이나 기적처럼, 물론 그렇지 않지만, 낮은 태양이 구름을 완전히 뚫고 나와 바다를 은색으로 바꿨고, 우리는 그 밝은 물 위의 작고 보호된 항구로 들어갔다.

우리가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고음의 비명 소리가 공기를 채웠고, 땅에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커졌다. 나는 그것이 바람의 음향 효과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 빠른 공기가 보트의 팽팽한 와이어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 - 그리고 나는 내가 유일하게 그것을 듣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동료들을 둘러보았다. 그것이 커짐에 따라 나는 그것이 단일 음이 아니라 약간의 음높이가 다른 수십 개의 음의 땀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이해했다. 바다표범들이었다! 바다표범들이 그 소리를 냈고, 만의 모든 바위와 해조류가 매달린 작은 섬들, 그리고 그 곡선진 해안선에 있는 수백 마리의 바다표범들이 그랬다. 그들은 벌이나 물처럼 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소리를 냈다. 그들은 회색, 검은색, 흰색, 황갈색, 여우색, 가족색 등 다양한 색깔이었다. 우리가 세 마리의 작은 암컷을 지나갈 때, 나는 그들의 모피가 우아하게 소용돌이치고 윤곽이 그려진 것을 보았다.

존은 나를 덩기로 노를 저어 해질녘 빛 속에서 자갈 해변에 올려주었다. 나는 혼자 섬의 남서쪽 팔을 따라 내륙으로 걸어갔다, 바다표범들의 평범한 노래를 지나면서 잠잘 곳을 찾아 탐험했다.

섬의 이름은 Ynys Enlli로, 조류의 섬을 의미한다. 이름은 잘 지어졌다, 여러 거센 조류가 Enlli 주위에서 만나기 때문이다. 조류 경주는 밀물이나 썰물이 바다를 신속하게 통과하게 할 때 발생한다. 두 개 이상의 조류가 만나는

지점에서 특히 조류 경주의 물은 번덕스럽게 행동한다. 조수가 바뀔 때, 그것은 매끄러운 고요함을 달성할 수 있지만, 조수가 흐를 때, 물은 끓고 해저 자체가 저어지는 것처럼 거품이 솟구치며 상어 지느러미처럼 서 있는 파도가 있다.

조류 경주는 명백하게 열린 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조류가 머리끝과 만나면, Lleyн 반도의 끝에서처럼, 그것은 바깥쪽으로 튕겨 나간다. 조류의 속도에 따라 튕겨 나가는 거리가 결정된다: 빠른 조류는 수 마일에 이르는 위협적인 팔을 뻗을 수 있다. 초기 항해자들이 그러한 조류의 힘에 사로잡혀 특정 머리끝과 반도에 초자연적인 악의 를 부여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Ynys Enlli는 서부와 북서부 해안에 정착한 많은 외딴 장소 중 하나로, 대략 AD 500부터 1000 사이에 정착되었다. 그 세기 동안, 놀라운 이주가 일어났다. 수천 명의 수도사, 은자, 고독자 및 기타 독실한 방랑자들이 대서양 해안의 만, 숲, 곳, 산 정상, 섬으로 여행을 시작했다. 그들은 위험한 바다를 건너 약한 배에서 항해하며, 우리가 지금 야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섰다. 그들이 정착한 곳에는 수도원, 세포, 기도처를 건설했고, 사망자를 위한 묘지를 파고 신에게 바치는 석십자를 세웠다. 이 여행자들은 peregrini로 알려져 있으며, 이 이름은 라틴어 peregrinus에서 유래되어 거리를 헤매는 아이디어를 전달하며, 우리의 '순례자'라는 단어를 제공한다. Enlli에 오기 전에, 나는 이 이주의 알려진 경로와 상륙지를 지도에 표시했고, 그 결과 영국과 아일랜드의 여전히 가장 야생적인 부분 중 일부의 트레이스 작업이 되었다.

이 켈트 기독교의 은둔 문화는 5세기와 6세기의 아일랜드에서 시작되었다. 430년대 성 패트릭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 이전 세기의 사막 성자들에게서 영감을 받았으며, 그 관행은 현재의 서부 스코틀랜드와 해안 웨일즈로 퍼졌다: 유럽의 가장자리와 그 너머로 사람들을 데려가는 원심 운동이었다.

분명히, 이 가장자리의 땅들은 peregrini의 평화롭고 금욕적인 삶에 호응했다. 그들의 야생 장소로의 여행은 신념과 장소, 내면과 외면의 경관 사이의 일치를 달성하려는 그들의 갈망을 반영했다. 우리는 수도사들이 모든 특징이 이름이 붙은 땅, 즉 기억과 공동체와 연속된 지형의 영역을 떠나려고 바깥쪽으로 이동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해안(지도에 없는 섬, 익명의 숲)으로 이주하는 것은 점유의 흔적을 지니지 않은 땅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역사에서 영원으로의 이동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켈트 기독교의 초기 연대에, Ynys Enlli는 peregrini의 목적지로 유명했으며, 6세기에 첫 수도원이 건설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접근성이 어려운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수도사들의 거주지 중에서는 가장 외딴 곳이 아니다. 당신은 Garvellochs - 아가일 본토에서 1,000년 전에 사람들이 별집 모양의 박격포 없는 오두막에서 살았던 섬들 - 또는 Skellig Michael - 케리 해안에서 서쪽으로 아홉 마일 떨어진 대서양에서 700피트 솟아오른 바위 송곳 - 같은 경치에 수도사들이 어떻게 도달하고 정착했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Skellig Michael의 가장 높은 경사면은 6세기에 상륙한 수도사들이 바위에 지은 세포들로 우글거린다. 이 세포들은 회개와 명상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대서양을 향해 있다. 그 아래로는 바위가 너무 급격하고 가파르게 떨어져서 땅 위에 있는지, 아니면 공중과 바다만을 떠돌고 있는지 믿기 어렵다. 거기에서, 바다가 그들로부터 멀어지고, 지평선에 아무것도 그들의 시선을 줄이거나 지연시키지 않으면서, 수도사들은 무한을 고려할 자유를 가졌다.

조지 버나드 쇼는 1910년 9월에 클링커로 만든 노 젓는 보트에서 스켈리그로 여행했다. 가는 길은 잔잔한 날씨에 두 시간 반이 걸렸고, 돌아오는 길은 더 길고 불안했다. 짙은 안개와 어둠 속에서 나침반도 없이 조류와 조류를 건너 젓는 동안, 쇼의 안내자들은 본능과 지식만으로 항해했다. 다음 저녁, 스넬의 Parknasilla 호텔에서 불가에 앉아 쇼는 스켈리그 마이클에서의 경험에 대해 친구 배리 잭슨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당신과 내가 살았던 어떤 세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의 꿈의 세계의 일부이다... 나는 아직도 실제로 다시 실감나지 않는다!' 쇼에게는, 거기 살았던 수도사들처럼, 스켈리그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깊은 꿈을 꾸는 장소였다.

peregrini가 만든 해상 여정은 상상하기에 놀라운 것이다. 우리는 33피트짜리 해양 요트에서 Ynys Enlli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쇼는 잘 갖춰진 노 젓는 보트에서 스켈리그에서 돌아오는 길에 목숨을 걱정했다. 그러나 수도사들은 스켈리그에 도달했고, 북대서양의 거친 바다를 건너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로 더 길고 위험한 여정을 했던, 훨씬 더 노출되고 불안정한 선박에서 항해했다.

그들이 타고 다닌 배들은 다양한 전통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웨일즈에서는 코라클 또는 커리클, 게일어에서는 카라, 노르웨이에서는 크나르라고 불렸다. 그들의 모양도 달랐다: 커라는 일반적으로 길고 얇으며 코가 뭉툭하고 활이 사각형이었고, 코라클은 렌즈 모양이었다. 그들이 공유했던 것은 구조 방식이었다. 그들의 선체는 황

소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참나무 탄닌으로 무두질된 후 젖은 상태로 구부러진 나무와 등나무 프레임 위로 늘어났다. 건조되면서 가죽은 프레임 주위를 수축하며 굳어졌다. 설정된 후에는 동물의 기름으로 막았다. 이 선박들이 공유한 또 다른 것은 운동의 논리였다. 그들은 가벼움과 얇은 흘수로 설계되었으며, 조류와 파도 위를 미끄러지도록 설계되었다. 이것이 그들의 선박으로서의 재능이었다: 물을 거의 밀어내지 않고, 연못 위를 걷는 곤충처럼 바다 위를 섬세하게 움직였다.

해질녘, Enlli의 남쪽 끝 근처에서, 나는 죽은 바닷가 장미의 들판을 지나갔다. 이 식물은 해안 가장자리의 염분이 많은 조건에서 잘 자라며, 꽃의 단단한 머리가 뺏뺏한 줄기에 있어서 바람에 흔들리면 황혼 속에서 마치 땅이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남쪽 물 위에서 물총새가 날아오르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만에서 흔들리는 보트의 객실 불빛을 볼 수 있었고, 잠시 존과 얀과 함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따뜻한 음식, 위스키 한 잔, 친구들과의 교제.

본토를 향해 뒤돌아보았다. 그것은 황혼 속에서 선처럼, 철사처럼 보였다. 수도사들은 반도의 만에서 그들의 보트를 띄웠을 것이다. 지금 여름에도 날씨가 좋지 않으면 섬에 도달하기까지 이틀에서 사흘 걸릴 수 있다. 겨울 폭풍이 몰아치면 Enlli는 몇 주 동안 고립될 수 있다.

수도사들은 그들의 시간을 신중하게 조절했을 것이다. 평온한 날씨를 기다리는 긴 기다림. 조수를 관찰한다. 그리고는 런칭, 발이 자갈을 밟고, 물을 튀기며. 만의 파도에도 흔들리는 보트들, 그리고 Sound의 열린 물에서 요트를 돌리며, 그 아래로 여러 층으로 쌓인 조류들.

그들은 얼마나 노출되었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의 믿음은 운명론과 같아서, 두려움이 없는 일종의 용기였을 것이다. 확실히, 그들 중 많은 이들—이름도, 기록도 남지 않은—은 Sound에서 익사했다, 파도와 조류에 의해. '그곳에는 작은 보트로만 갈 수 있는 섬이 있습니다,'라고 아버다론의 성직자이자 시인인 R. S. Thomas가 썼다:

길은

성인들이 간 길이며, 오랫동안 익사한 이들의
두려워하는 얼굴들의 화랑을 지나가며,
그 해변의 자갈을 씹으며...

우리는 peregrini에 대해 확실하게 아는 것이 거의 없다. 그들의 이름을 거의 모른다. 그러나 Enlli와 같은 장소에서 그들의 여정과 경험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 나는 동기와 태도에서 품위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것은 나에게 유익하게 느껴졌다. 이 남자들은 물질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최대한 예리하게 만드는 성스러운 풍경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학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성자들의 약속의 땅, Terra Repromissionis Sanctorum을 찾는 유배자들이었다.

기독교의 오랜 전통은 모든 개인을 peregrini로 간주하는데, 이는 모든 인간 생활이 유배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아이디어는 종종 마지막 밤 기도로 외워지는 Salve Regina에서 계속된다. 이 기도는 모든 것이 이 유배 후에 해결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노래할 때, 이 찬송은 고대적이고 불안하게 들린다. 그것은 분명히 야생에 관한 음악이며, 고대의 야생 비전이며, 여전히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Enlli와 같은 장소에서 수도사들의 삶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이 남긴 풍부한 문학에서 유추된다. 그들의 시는 자연과의 열정적이고 정확한 관계, 그리고 그것과의 상호작용을 특징짓는 수용성과 분리성의 혼합을 유창하게 말해준다. 일부 시는 메모된 목록이나 현장 노트처럼 읽힌다: '벌 떼, 딱정벌레, 세상의 부드러운 음악, 부드러운 뒹뒹거림; 검은기러기, 큰기러기, 만성절 직전의 음악, 어두운 격렬한

급류의 음악.' 다른 시들은 마법 같은 순간을 기록한다: 벨파스트 호수 근처의 진달래 가지에서 부르는 검은새, 숲속에서 노는 여우들. 9세기 은둔자 Marban은 Druim Rolach 근처의 전나무 숲에서 살면서 '회색 구름의 날에 가지 많은 숲을 대하는 바람의 소리'에 대해 썼다. 9세기에 North Rona 섬에서 돌담을 쌓던 이름 없는 수도사는 '맑은 곳에 서서', '부드러운 해변을 바라보며', '고요한 바다를 듣고', '경이로운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가 느낀 기쁨에 대해 말하는 시를 쓰기 위해 일을 멈췄다. 10세기 필사본 작성자는 섬의 수도원에서 일하면서 라틴어 텍

스트 옆에 게일로로 짧은 메모를 남겼다. '오늘 이 테두리에 비치는 태양의 반짝임이 나에게 즐겁다.'

이러한 발견은 peregrini의 신앙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들은 역사의 긴 거리를 순수하게 전달하는 순간들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특정한 소리가 물속이나 얼어붙은 땅에서 특별히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과 같다. 이 작가들에게 주의력은 헌신의 한 형태였으며, 인지는 예배와 연속적이었다. 그들이 남긴 예술은 야생을 사랑하는 인간의 가장 초기 증언 중 하나이다.

아이디어는 파도와 같이 도달 거리가 있다. 그것들은 거대한 거리를 여행하며 우리에게 도달하고, 그 과거는 종종 보이지 않거나 거의 상상할 수 없다. '야생'은 그러한 아이디어 중 하나이다: 그것은 시간을 통해 엄청나게 이동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야생에 대해 두 가지 크고 상반된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 첫 번째 이야기에 따르면, 야생은 정복해야 할 특성이며, 두 번째 이야기에 따르면, 소중히 여겨야 할 특성이다.

'wild'라는 단어의 어원은 복잡하고 미묘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과거는 고대 고지 독일어의 wildi와 고대 노르웨이어의 villr, 그리고 선게르만어의 ghweltijos를 포함한다. 이 세 용어는 모두 무질서와 불규칙성을 함축하며, Roderick Nash가 쓴 바와 같이, 그것들은 영어 뿌리 단어 'will'에 '고의적인, 또는 제어할 수 없는'이라는 서술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 어원에 따르면, 야생은 인간의 지시로부터 독립의 표현이며, 자연스러운 땅은 스스로의 법칙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땅의 습관—그 나무의 성장, 그 생물의 움직임, 그 바위를 통한 그 물줄기의 자유로운 하강—은 그 자체의 발명과 실행에서 비롯된다. 땅은 현대의 야생의 정의가 계속되는 것처럼, '제약 없이 자유롭게 행동하거나 움직이며; 구속되지 않고, 제한되지 않는다.'

야생의 이 기본적인 정의는 그 첫 등장 이후로 일관되게 유지되었지만, 이 특성에 부여된 가치는 극적으로 갈라졌다.

한편으로, 야생은 인간 문화와 농업의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힘으로 인식되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야생은 낭비와 동의어이다. 야생의 장소들은 인간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저항하며, 따라서 파괴되거나 극복되어야 한다. 고대와 현대, 동양과 서양 문화에서 야생에 대한 적대감의 예는 어디에나 있다. "진정한 문명 건설

자들이 아니었다면," 1881년에 미국의 목사이자 작가인 James Stalker가 찬양했다, "우리가 사는 땅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황야일 것이다! 이 남자들은 다른 이들이 오직 세이지 브러시와 알칼리 평원만 보는 사막에서 번성하는 도시와 공장을 본다... 이 남자들은 우리의 산을 뚫고, 우리의 큰 강을 가로질러, 우리의 부의 광산을 열었다!" 고대 영어 서사시 Beowulf는 시인이 wildéor 또는 '야생의 생물들'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시에서, 이 괴물 같은 용과 같은 존재들은 늑대가 출몰하는 숲, 깊은 호수, 바람이 부는 절벽, 위험한 늪지를 거주한다. Beowulf의 부족, Geats의 문명은 그들의 따뜻하고 밝게 빛나는 미드 홀, 그들의 계층화된 전사 문화와 함께 이 야생의 장소들과 wildéor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 야생에 대한 증오와 함께, 야생을 모범적이고 절묘한 에너지로, 그리고 기적, 다양성 및 풍요의 영역으로 여기는 대안적 역사가 진행되었다. Beowulf 시인이 야생의 정복에 관한 비유를 쓰고

있을 때, Enlli, Rona, Skelligs 및 기타 장소의 수도사들은 그것의 아름다움과 그것의 소란스러운 다산을 칭송하고 있었다.

peregrini보다 더 일찍, 실제로 야생을 사랑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산수 또는 '강과 산'으로 알려진 중국 예술 전통에 있다. 산수는 기원전 5세기 초에 시작되어 2000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 실천자들—T'ao Chi'en, Li Po, Du Fu, Lu Yu—은 보통 중국 산악 지대에서 살았던 방랑자들이나 자발적 망명자들이었으며, 그들 주변의 야생 세계에 대해 썼다. 그들의 예술은 초기 기독교 수도사들의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경이로운 과정, 그것의 지속적인 생성을 표현하려고 했다. 이 생명력의 특성에, 산수 예술가들은 zi-ran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스스로 불타오르는', '스스로 그러함' 또는 '야생'으로 번역될 수 있다.

순례자들과 산책자들은 그들이 '여름의 용 태양'이라고 부르는 것, 겨울의 긴 바람, 늦봄의 꽃 폭풍 속에서 그들의 산을 탐험했다. 그들은 새벽에 계곡에 내려앉는 시원한 안개, 초록빛이 들어오는 대나무 숲, 그리고 수천 마리의 눈부신 백로가 호수에서 눈보라처럼 날아오르는 모습을 썼다. 그들은 겨울 빛이 눈 위로 내리쬐는 것과 추운 가지에 걸린 그림자를 관찰했으며, 이러한 광경이 그들을 '밝고 명랑한 기쁨'으로 움직였다고 썼다. 그들에게 특히

밤은 놀라웠다. 왜냐하면 달의 깨끗하고 빛나는 존재가 세상을 기이하게 은빛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이 항상 친절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보는 달을 너무 사랑해서 그가 강에서 그 반영을 안으려다가 익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수 전통의 시와 그림을 읽고 보면서, 거의 자연과 인간 사이에 구분이 없는 예술을 만나게 된다. 형식이 내용에 절대적으로 강요되어 이 예술품들이 세계의 경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참여한다.

섬의 반도 끝에 있는 검은 바위 머리에서, 나는 잠자리를 찾기 위해 수색했다. 밤공기는 굴뚝새의 피리 소리와 갈매기의 울음소리로 시끄러웠다. 어둠 속에서 새들 사이에서, 바다가 주변에서 부딪치고 넘실거리는 가운데 있으니 흥분되었다.

지면은 고르지 않았고, 큰 파도 통로로 갈라진 절벽으로 내려가는 경사였다. 마침내 나는 잠잘 수 있는 곳을 찾았다: 깊은 협곡 같은 입구 위에 있는 계단식 은행에 있는 풀밭의 몸길이만한 곳이었다. 은행은 약간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잠을 자는 동안 굴러 떨어질 위험이 없었다. 나는 물속에서 움직이는 물개의 형태를 분간할 수 있었다. 등대의 빛이 나를 스쳐 지나가면서 긴 얇은 빛줄기가 어둠 속으로 펼쳐지며 느린 예측 가능한 노란색 회전을 했다. 내가 가져온 비박 가방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따뜻했기 때문에, 나는 내 매트와 침낭을 풀밭에 펴놓았다.

소음은 자정쯤 시작되었거나, 그때 내가 그것에 깨어났다. 새들이 내 위로 공중을 떨어지면서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면서 길고 곡선진 소리의 궤적을 남겼다. 나는 주변 땅에 부드러운 '툭' 소리와 함께 착지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몇 초마다, 급강하하는 새들과 등대의 빛줄기 중 하나가 수직으로 교차했다. 나는 여기저기에서 그들을 볼 수 있었다, 빛 속에서 잠깐 동안 윤곽이 드러났다—새들은, 그들의 작은 폭탄 몸체에서 뒤로 끌어 넘긴 화살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사라지더라도 내 눈은 그들의 질주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유지했다.

바다제비들이었다. 당연히—그것들은 바다제비들이었다. 이주성이며, 장거리를 여행하며, 오래 살며, 굴 속에서 동지를 트는 새들로, 어둠이 내린 후에야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름은 물 위를 낮게 활공하며 날개 끝이 파도를 스치고 물방울을 일으키는 습관에서 유래되었다. 맨크스 바다제비가 기록한 가장 긴 파도 위 활공 거리는 일과반 마일이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순례의 거리로도 놀라운데, 하루에 최대 200마일을 커버할 수 있다. 번식 시즌이 끝나면,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는 충동을 따라 Enlli의 바다제비들은 남대서양의 바다에서 나머지 해를 보내기 위해 수천 마일을 날아간다.

Ynys Enlli는 영국의 동부와 서부 해안에 있는 많은 섬들과 습지들과 마찬가지로 이주 새들의 피난처다. 수백 종의 새들이 방해받지 않는 먹이터를 찾아 잠시 머물며 도중에 들른다. 계절에 따라 북쪽과 남쪽으로 쏘고 지나가는 새들의 조류와 조류는 원격 장소와 원격 장소를 연결한다.

새벽 두 시쯤, 바다제비들은 자리를 잡았다. 나는 조용한 어둠 속에서 누워 있었고, 나 위로 조용히 회전하는 빛 줄기를 지켜보며 다시 잠에 빠졌다.

고요한 새벽에 깨어났다. 나의 남쪽에서 조용히 숨을 쉬는 바다는 진주처럼 밝았고, 그 위에는 낮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하늘은 푸른 색의 틈으로 창백했다. 50야드 떨어진 곳에서 흑등갈매기가 뛰어들어 물에 던진 돌처럼 소리를 내며 물속에 들어갔다. 나는 일어나 앉아 주변의 바위에서 작은 갈색의 새 수십 마리가 놀이터에서 지저귀는 것을 보았다. Pipits. 내가 움직이자 그들은 날아갔다.

나는 협곡의 가장 얇은 쪽을 내려가 바다 가장자리의 날카로운 각진 바위에 도착해 얼굴을 씻었다. 바위 선반에서 나는 보관할 크기의 파란 현무암 하트 모양의 돌을 발견했다. 그것은 작은 손톱만큼 작은 백악종으로 아름답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들의 몸의 섬세한 팬워크가 여전히 보였다. 나는 마른 바닷풀 머리를 실은 얇은 껍질을 띄워놓았다. 그것을 물에 놓자마자 그것은 내 손가락에서 빨려 나가는 보이지 않는 후류에 의해 흔들리며 밀려났다.

협곡의 먼 곳에 있는 바위 위에 두 마리의 큰 물개가 누워 있었다. 그들은 나를 지켜보았고, 내가 그들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물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런 다음 그들은 등을 굴려서 협곡 입구를 지나가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둘 다 잠수했다. 하나는 사라졌다. 다른 하나는 나에게 가까이 나타나 두꺼운 머리를 잠망경처럼 들어 올렸다. 그의 큰 액체 같은 눈이 내 눈에 걸렸고, 그는 침착한 무표정한 주의를 기울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대략 열 초 동안 우리는 서로를 응시했다. 그런 다음 그는 머리를 물속에 튀기며 담그고 사라졌다.

물개는 오랫동안 대서양 연안의 민담에서 인간과 해양의 절반씩을 가진 기묘하게 이중적인 본성의 소유자로 여겨져 왔다. 1940년대에 작가 데이비드 톰슨은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서해안 공동체들 사이를 여행하며 물개에 관한 이야기를 수집했다. 그가 간 곳마다 그가 발견한 이야기들은 같았다: 물개의 시선이 대상을 강요하고 붙잡을 수 있는 능력, 물개들이 바다에서 걸어 나와 인간이 되고, 인간들이 물개의 형태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이야기들. 물개는 우리가 동물에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우리의 수생 조상에 대해 상기시켜 주는 살아 있는 상기시키는 존재였다, 그는 지적했다. '육지 동물들은 전설에서 그들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가 그의 여정에 관한 책에서 결론지었다, '토끼조차도 인간의 마음에 물개만큼 꿈같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고요한 아침, 나는 작은 돌이 가득한 해변으로 돌아갔다. 전허새들의 굴을 지나, 부드럽게 형성된 풀밭을 거쳐, 윤기나는 풀밭을 통과했다. 나는 그들이 살았던 장소에 대해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지 상상해 보려고 했다. 그들이 점령한 땅과의 친화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묵시적이고 명시적인 토론이었다. 나는 그들의 영성이 물리적 세계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상관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감탄했다. 머리맡에서 낮은 안개가 자욱한 바다를 바라보는 것에서. 페이지의 가장자리나 만에 빛이 내리쬐는 것에서. 마치 눈처럼 고요한 공기를 통해 흔들리는 깃털에서, 또는 눈이 고요한 공기를 통해 내려오는 것에서. 물론 이러한 장소에서 그들의 삶에는 육체적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고; 물론 그들 사이에는 불화, 불쾌감, 나쁜 감정의 흐름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수도승들은 경제적인 것을 넘어서는 풍요를 원하고 축하했으며, 그것은 바다 위의 맑은 공기나 비행 중인 무리의 새들의 무리 짓는 패턴에서 그 형태를 찾았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이러한 가치에 대해 썼다. 그는 말했다, 호

수, 언덕, 절벽 또는 개별적인 바위들, '숲이나 고대의 나무들이 개별적으로 서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은 아름답고, 달리와 센트가 결코 대표할 수 없는 높은 용도를 가지고 있다.'

peregrini 시절부터 많은 것이 변했다. 플라스틱 부유물이 Enlli의 만과 골짜기에 밀려왔다. 본토 근처에서는 모터 보트가 물 위를 요동치고 있었다. 웨일스 해안 도시에서 아일랜드 해로 흘러나오는 하수 문제와, 때때로 바위에서 삼푸처럼 거품이 나도록 하는 화학 오염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수도사들의 섬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도 한 달도 살지 못했을 것이다 - 도시의 매력, 나만의 일상, 도서관, 사치품, 연결, 다양성에 대한 나의 필요 때문이다. 그러나 수 세기 전 peregrini를 그곳에 끌어들이었던 측면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과거에 사람들이 야생과 친밀하게 살았던 풍경에서 나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 어떻게든 옳다고 느껴졌다.

나중에 우리는 만조 때 본토로 돌아가는 항해를 했다. 그 과정에서 물이 풍성하고 반짝이는 것처럼, 마치 그 아래에 반짝이는 표면 막이 덮여 있는 것처럼, 솟아오르는 조류가 잠시 멈추고 떨어지는 듯했다.

존은 배를 해안에서 백 야드 떨어진 곳, Enlli를 향해 서쪽으로 튀어나온 지점 근처의 작은 만을 향해 정박했다. 만의 양쪽에는 복잡하게 오목하게 파인 절벽이 솟아 있었고, 그 절벽에서는 새들의 울음소리가 울려퍼졌다. 배는 미묘한 녹색 물결에 흔들렸고, 각 흔들림에 따라 닻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물이 튀었다. 선미에서 본 배의 돛대는 메트로놈처럼 좌우로 움직였다.

나는 뛰어들었다. 푸른 충격. 추위가 염료처럼 내 몸속으로 퍼졌다. 나는 헐떡거리며 수면 위로 올라와 만의 동쪽 절벽을 향해 헤엄쳤다. 나는 조류가 나를 서쪽, Enlli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대각선으로 헤엄쳐 내 항로를 유지했다.

절벽에 가까워지면서, 나는 온도의 다양한 띠와 밴드를 통과했다, 따뜻하다가 갑자기 다시 추워졌다. 크고 반짝이는 파도가 나를 두 큰 바위 사이로 밀어붙였고, 나는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을 막기 위해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따개비가 내 손가락을 찌는 것을 느꼈다.

나는 가장 큰 동굴로 헤엄쳤다. 바위 가장자리를 잡고, 물결이 나를 부드럽게 위아래로 들어 올리게 하면서, 내가 동굴 안을 들여다보았다. 동굴 뒤편은 볼 수 없었지만, 그것은 입구에서 지구로 좁아지며 원뿔 모양으로 절벽 속으로 30피트나 40피트를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바위를 놓아주고 천천히 입구로 떠내려갔다. 동굴 지붕이 만든 그림자를 지나면서 물은 차가워졌다. 큰 소리와 철벽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소리쳤고, 내 외침이 모든 면에서 나에게 돌아왔다.

더 깊숙이 들어가자 물이 얇아졌다. 가능한 한 평평하게 유지하기 위해 평영을 했다. 나는 진한 빨강과 보라색 바위를 지나갔다: 현무암, 돌라이트의 무당 벌레 색깔이었다. 동굴의 아래쪽은 물이 닿는 곳에서 젖은 머리카락처럼 번들거리고 반짝이는 푸른 빛깔의 해초로 덮여 있었다.

동굴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빛은 퍼져 나갔고 공기는 가루처럼 보였다. 기온이 내려갔고, 나는 내 위와 주변의 햇볕이 들지 않는 바위의 모든 추위가 공기와 물 속으로 밀려나오는 것을 느꼈다.

어깨 너머로 뒤돌아보았다. 동굴의 큰 반원형 입구는 이제 빛의 작은 각질로 줄어들었다. 나는 겨우 바다의 지평선을 볼 수 있었고, 갑작스러운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느꼈다. 나는 천천히 계속 헤엄쳤다. 내가 지나가는 날카로운 바위들을 느끼려고 애썼다.

그러다 동굴 끝에 도달했고, 거기에, 그것의 맨 뒤에, 그 중심에, 거의 물 밖으로 들어 올려진 거대한 하얀 바위가 있었다. 부드럽고 크림색의 바위였고, 대략적으로 왕좌나 좌석처럼 생겼다. 그것은 다섯 톤이나 여섯 톤은 되었을 것이다. 나는 해초에 미끄러지며 물 밖으로 서툴게 기어 올라와 바위에 앉았고, 물이 그 기반을 휘저으면서 동굴 아래로 굽이치는 빛의 테두리, 그 너머의 세계가 남아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지금 그 흰 바위를 회상하면, 그것은 환상처럼 보인다.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빨강과 보라색 현무암 사이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 수 세기에 걸쳐 폭풍의 파도가 그 바위를 동굴로 가져왔고, 그 후 점점 더 깊숙이 밀어 넣었으며, 마침내 그것을 그 위치로 옮겨 동굴의 중앙과 뒤쪽에 완벽하게 놓았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다.

그 오후 해가 돌아와 낮고 따듯한 빛으로 공기를 채웠다. 우리는 만 근처의 가파른 절벽을 올라갔고, 우리가 떨어지면 우리를 받아줄 깊은 바다 위로, 수직으로 자라는 바위 샘이프를 모았다. 우리는 작은 동굴과 파수병 구멍에 앉아 서쪽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절벽을 가로질러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샘프의 연한 녹색 잎을 씹으며 그 짠 맛을 즐겼다.

어둠이 내리자, 우리는 배가 정박해 있는 만으로 돌아갔다. 그곳은 작고 가파른 계곡의 입구에 위치해 있었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작은 시내가 흘렀다. 계곡의 양쪽 둑은 작은 나무들로 뺨뺨했다—재나무, 화백나무, 산사나무—야생 허니삭클과 담쟁이덩굴이 걸려 있었고, 그 아몬드 향이 공기에 퍼져서 황혼 동안 바람을 타고 흘렀고, 그 흰 나팔꽃이 퇴색하는 빛에서 빛났다.

해변은 수십만 개의 돌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중 일부는 달걀처럼 매끄러웠다. 몇 대의 녹슨 트랙터가 검은 플라스틱 버킷 좌석과 함께 절벽 근처 양쪽에 주차되어 있어, 어선을 물에서 끌어올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물가 근처에서 모래가 많은 곳에서는 세 마리의 도요새가 일렬로 함께 나아가면서 그들의 부리를 좌우로 휘두르며 진행했다. 그 모습이 마치 금속 탐지기 팀 같았다. 우리는 바위를 옮겨 좌석을 만들고 잠시 앉아 서쪽 바다 위로 태양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완전히 어두워지자, 우리는 만의 가장 서쪽 절벽 가장자리 아래 돌더미에 자작나무 불을 피우고 주위에 앉아 술을 마시고,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렌지색 불꽃은 어둠 속으로 밝은 태양 불꽃을 튀겼다. 수지가 지지직거리고, 나무는 그 곡물을 따라 찢어지면서 크게 터졌다.

불꽃들이 무리 지어 어둠 속으로 서둘러 사라졌다. 바다는 조약돌 위에서 쉬었다. 불이 꺼지고 다시 밝아지면서 시간이 측정되었다. 저녁 늦게, 나는 만을 건너갔다. 불을 통해 오렌지색 흔들림과 그 주위를 움직이는 그림자만 보이는 인물들을 보면서 어두운 빛을 통해 되돌아보았다.

새벽 두 시쯤, 불은 잿더미의 피라미드로 어두워졌고, 가벼운 바람에 검은색과 주황색으로 펄떡였다. 밤은 달이 없고 미지근했다. 그때 나는 물의 반짝임을 보았다. 보라색과 은색이 번쩍이는 빛의 선이 긴 해변의 곡선을 따라

둘러졌다. 나는 가장자리로 내려가 쪼그리고 앉아 물에 손을 흔들었다. 불꽃은 보라색, 주황색, 노란색, 은색으로 타올랐다. 발광 물질이었다!

나는 옷을 돌 위에 두고 따뜻한 얇은 물로 들어갔다. 방해받지 않았을 때 물은 고요하고 검은색이었다. 하지만 휘저어졌을 때는 빛과 함께 타올랐다. 내가 한 모든 움직임은 눈부신 소용돌이를 일으켰고, 물결이 부유하는 몸에 부딪히는 곳마다 색으로 물들어져서 만에 정박된 몇 척의 배는 습기가 맺힌 경사진 측면에서 빛나는 발광으로 윤곽이 그려졌다. 뒤를 돌아보니, 만과 절벽, 동굴이 모두 빛으로 장식된 것처럼 보였다. 나는 내 손끝에서 마법사처럼 긴 불빛의 줄기를 휘둘러 수 있음을 발견했기에, 나는 몇 분 동안 행복하게 얇은 물에서 서서, 마법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뿌리는 멀리인 척했다.

그런 다음 나는 더 깊은 물로 걸어 나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굴색 빛의 폭풍 속에서 헤엄쳤다. 나는 등을 돌려 물에 누워서 해안선을 따라 젖면서 육지를 바라보고 다리를 차서 복잡한 색의 드레이프가 바깥쪽으로 펼쳐지도록 했다. 소로우가 월든 연못에서 비슷한 경험에 대해 어떻게 썼는지 무엇인가? '그것은 무지개 빛의 호수였고, 나는 그곳에서 잠시 돌고래처럼 살았다.' 로저가 서퍽의 월버스워 해변에서 어느 밤 서서 수십 명의 수영객들이 발광하는 물에서 수영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몸이 '네온 물결을 가르며 용처럼 떠다니는' 것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기억났다.

만은 어두웠고 하늘에는 흩어진 빛이 거의 없어서, 나는 자신을 볼 수 없었고, 나를 둘러싼 발광 물질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전혀 물속에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내 몸은 불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었고, 소용돌이치는 수성 빛에 대해 어두운 형태로만 설정되어 있었다.

해양 발광, 혹은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생물 발광은 이제 물속에 미세한 유기체들이 축적되는 결과로 이해된

다: 와편모조류와 플랑크톤.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은 과정을 통해, 이 단순한 생물들은 흔들릴 때 빛을 발산한다. 그들은 운동의 에너지를 방사 에너지로 변환한다. 그들의 발광이 인간의 눈에 보이려면, 각각에서 빛이 나오는 수십억 개의 단세포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플랑크톤의 존재는 특히 따뜻한 물의 선원들에 의해 오랫동안 주목받아 왔으며, 몇몇 놀라운 현상을 만들어냈다. 1980년 11월 8일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고르다 분지 지진 때, 해안의 목격자들은 바다의 광대한 지역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1970년대에 몇몇 선장들은 인도양과 페르시아만을 항해하면서 평온한 바다에서 지름이 200야드에 이르는 발광하는 거대한 바퀴와 그 빛나는 회전하는 스포크를 보고했다. 때때로 이 바퀴들은 물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때로는 그것이 물 표면 바로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1978년, 별이 떨어지며 긴 녹색 꼬리를 그으며 밤하늘을 가로지르던 동안, 네덜란드 선박 디오네의 선장은 몇 개의 그러한 바퀴를 보았다. 이 현상에 대한 20세기 이전의 기록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선박 엔진에 의한 난기류의 기능으로 간주된다. 또한, 바퀴들의 명백한 초월성은 잔잔한 물이 얇은 안개층 바로 위의 물 표면에 발광을 투사하는 일종의 렌즈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제안되었다.

2004년, 아버지와 아들이 멕시코 만에서 요트를 타고 항해하다가 60마일 떨어진 해안에서 바람에 의해 요트가 전복되었다. 그들은 선체에 매달렸고, 만의 강력한 조류에 의해 떠밀렸다. 밤이 되자 물은 발광 물질로 풍부해졌고, 공기는 많은 다른 음의 높은 불협화음으로 가득 찼다: 돌고래들의 사이렌 소리. 표류하던 두 사람은 또한 그들이 두 개의 거친 빛의 원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 한 원은 다른 원 안에서 회전했다. 내부 빛의 원은, 그들은 깨달았다, 뒤집힌 배 주위를 도는 돌고래 무리였고, 외부 원은 돌고래 주위를 도는 상어 무리였다. 돌고래들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보호하고, 상어들로부터 그들을 지켰다.

마침내 나는 바다에서 나와 해변으로 나왔고, 물에서 떨어진 빛나는 물이 돌 위로 흘러내려 번쩍이며 사라졌다. 나는 천천히 내륙으로 걸어가면서 물이 내 몸에서 흘러내리면서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서, 그리고 나서 낮은 잿더미 옆에서 누워 잠들었다.

3. Valley

수도승들의 여정은 그들이 이름 없는 땅을 찾아 야생에서 야생으로 이동했던 것이 내가 만들고 있는 지도에 대한 선례를 제공했다. 엔리에서 돌아온 후, 나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14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일랜드 서사시로, 'Buile Suibhne'라고 불리며, 이는 '방랑하는 스위니', '방랑자 스위니'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이 이야기는 한 울스터 왕, 스위니에 대해 다루며, 그가 기독교 사제를 심하게 모욕하자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저주는 스위니가 '공기의 생물'로 변하고, 오직 아일랜드와 서부 스코틀랜드의 야생지에서만 살 수 있게 된다고 선언했다. 마치 방랑하는 새처럼 - 한 방랑자처럼 - 그는 인간의 교제를 피하고, 가능한 한 외딴 곳을 찾아야만 했다.

사제의 저주가 스위니에게 떨어졌을 때, 그는 '알려진 장소들'에 대한 생각에 '반감'을 느꼈고, '기이한 이주'를 꿈꾸었다고 시는 말한다. 이로써 그의 긴 방랑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그는 산과 황무지를 넘나들며 좁은 계곡과 어두운 숲을 지나갔고, 덩굴과 주니퍼 덤불을 뚫고 나아가며, 자갈 경사면에서 자갈을 울리고, 갯벌을 건너고 풍설과 바람에 날리는 눈이 내리는 무방비의 언덕에서 걸었으며, 결국에는 검은 얼음으로 옷을 입었다. 그는 강을 오르내리며 수영을 하며 한 웅덩이에서 다른 웅덩이로 이동했고, 늑대 무리와 함께 겨울을 보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소굴과 굴을 만들었다: 부드러운 늪지의 매트리스 위에, 큰 나무들의 뿌리 구멍에서, 폭포수 옆에서. 이러한 장소들의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스위니는 그들의 가혹함을 아름답게 여기게 되었고, 그곳에서 유지되는 시간과 날씨의 리듬을 감상하게 되었다.

두 개의 대형 지도에서, 나는 스위니가 방문한 장소들을 가능한 한 많이 찾아내어 시에서 등장하는 이름들을 조사하고, 그것들의 현재 위치나 현대적 대응물을 확립하려고 노력했다. Dal'Arie, Glen Arkin, Cloonkill, Ailsa Craig, Swim-Two-Birds, Sliebh Mis, Cruachan Aighle, Islay - 이 이름들은 야생의 시를 만들어냈다. 그의 몇몇 은신처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다른 곳들은 이제 야생에서 멀어졌다: 그곳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거나, 그 위에 도시가 세워졌다.

변화에도 불구하고, 스위니의 탐색의 형태와 시의 강렬한 비전은 여전히 강력했다. 나는 스위니의 정거장마다 핀을 꽂고, 그 핀들을 흰 실로 연결하여 곧 그의 여정을 표시하는 격렬한 면화 직선이 생겼다. 야생에서 야생으로의 그의 여행, 겨울을 나기, 땅 가까이에서 자기: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영감을 주는 의미로 다가왔다. 또한 야생에서

스위니가 때때로 '부드러운 베개', 침대와 뜨거운 식사를 원한다는 점도 나에게 호감을 주었다. 이는 내가 양심의 고통 속에서 알아본 갈망들이었다.

스위니가 여행한 많은 장소들 중 가장 마법적이고 이상하게 느껴진 곳은 Glen Bolcain의 계곡이었다. 나는 현대의 가제트나 기록에서 Bolcain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지만, 시에서는 그 특성이 명확했다: 이는 잃어버린 계곡, 가파른 양쪽이 막혀있는 '바람과 바람에 실린 메아리의 골짜기'로, 그곳에서는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물냉이가 자라고, 이끼가 단단하고 넓은 은행에서 번성했다. Bolcain에 대해 몽상하면서, 나는 내가 방문했던 가장 특별한 계곡을 기억했다: 스카이 섬의 대서양 연안에 있는 Coruisk의 계곡. 그래서 나는 내 다음 여정을 위해 한 화성 서해안 섬, Ynys Enlli에서 다른 하나인 Skye로 북상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빙하와 산이 마음을 사로잡거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익숙하다. 그러나 계곡 - 협곡, 캐년, 아로요, 협곡 - 이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충격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잘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 많은 유형의 계곡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은 성역이다. 즉, 높은 땅이나 물에 의해 모든 네 면이 보호되는 가라앉은 공간이다. 성역은 잃어버린 세계나 비밀의 정원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는 여행자에게 - 고개를 넘거나 발 아래 땅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할 때 - 금지된 것과 폐쇄된 것의 흥분을 유발한다. 세계의 위대한 성역에는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와 난다 데비 성역, 탄자니아의 응고롱고로 크레이터가 있다. 이러한 공간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의 서구 탐험 문학 내 계정이 있다. 그것들은 경이와 두려움의 계정이다.

영국과 아일랜드에도 성역이 있다. 그것들은 그들의 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응물과는 다른 크기이지만, 나는 그것들을 거의 같은 정도로 놀랍게 여긴다. 성역의 버전은 엑스무어의 콤베스, 멘디프와 요크셔 데일즈의 골짜기와 요철, 또는 모팻 근처의 데블스 비프톱에서 찾을 수 있다. 내 사촌은 한 번 스코틀랜드 북서부의 외딴 지역인 아신티에서 작고 이름 없는 성역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거기에서 어느 밤 혼자서 매달려 있는 바위 아래에서 자고, 계곡으로 내려가는 붉은 사슴 무리를 이끄는 수사슴을 보면서 그 경험을 말했다. 사슴들은 놀랐지만 이 인간의 존재에 의해 방해받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글렌 코의 서쪽 입구 근처에 위치한 광대하고 복잡한 산, 비데안 남 비안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수호 침탑 사이에는 일부에 의해 '잃어버린 계곡'으로 알려진 계곡이 있다. 이 계곡은 비데안의 검은 바위 지느러미와 성벽 세 면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계곡 입구를 막는 바위 쓰나미와 때때로 건널 수 없는 스페이트가 되는 리버 코에 의해 네 번째로 보호받고 있다. 1939년 겨울 말에 W. H. 머레이는 비데안의 절벽에서 새로운 등반을 시도하기 위해 잃어버린 계곡으로 피신했다. 그곳의 바닥은 발 깊이의 눈으로 덮여 있어 계곡의 외로움을 더욱 높이고 고요함을 깊게 했다. 머레이는 이 곳이 '고요함을 유지하기 쉬운 곳'이며, '자연스러운 심장의 움직임'이 '위로 솟구치게 하는 곳'이라고 썼다. 계곡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북극에 살고 있는 것처럼 문명의 시야와 소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성역은 코루이스크다: 스카이 섬의 남서 해안에 있는 물이 가득 찬 계곡이다. 코루이스크는 게일어 Coir'uisge에서 영어화된 것으로, '물의 가마솥'을 의미하며 그 고립은 전설적이다. 코루이스크의 세 면은 산이고 네 번째는 대서양의 깊은 입구인 로흐 스카바이그다. 산은 모두 블랙 쿨린으로, 영국의 모든 산맥 중에서 가장 엄격하고 고독적이다. 그것들은 오래된 화산의 뿌리로, 5500만 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부서진 현무암과 가브로로 이루어진 6마일의 성벽으로 침식되었다.

코루이스크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쿨린의 가파른 고개를 넘거나, 로흐 스카바이그의 가장자리를 따라 수많은 마일을 걷는 것으로, 그 과정에는 '나쁜 발걸음'인 스구르 나 스트리의 경사진 빙하가 매끄럽게 한 바위를 횡단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바위는 스카바이그의 녹색 물 위로 20피트를 기울어져 있다. 계곡은 결코 접근할 수 없는 곳은 아니지만 그 고독은 엄격하게 보호된다. 그리고 그 세계는 예외적이다. 코루이스크는 그 자체의 날씨, 그 자체의 하늘과 구름을 결정한다. 빛은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가마솥의 측면의 바위는 날씨의 강조에 따라 자주 색을 변경한다. 구름이 낀 날에는 회색이고, 정오에는 캐러멜색, 저녁에는 간색이며, 비와 햇빛 속에서는 금속색이 될 수 있다.

성역의 중심에는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차가운 강물에 의해 급수되는 코루이스크 호수가 있다. 호수의 물색은 관찰자의 시각 각도에 따라 변한다. 호수 옆에 있을 때는 검은색이고, 그 위의 봉우리와 산등성이에 있을 때는 하늘

색이며, 그 안에 있을 때는 카라멜 갈색이다. 쿠일린 산맥에서 분지를 건너 크레이크의 코이어에서는 수중 바위 아치를 포함하는 깊은 강 웅덩이들이 있다. 여름날에는 아치를 통해 잠수하여 푸른 물빛 속을 헤엄칠 수 있다.

코루이스크의 형태와 습성에는 오랫동안 야생에 관한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것이 있다. 머레이가 처음으로 자신이 '코이어-우이스크의 분지'라고 부른 곳에 도달했을 때, 그는 '야생의 꿈이 야생의 현실에 미치지 못했다'고 발견했다. 캘러도니안 야생의 임프레사리오인 월터 스콧은 1814년 코루이스크를 방문하고 그것을 '어두운, 무거운, 야생적이고, 기이하며 엄격하다'고 묘사했다. 스콧으로부터 나온 이런 요약은 19세기의 로맨틱주의자들과 우울증 환자들에게 자극이 되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예술가들, 작가들, 탐험가들은 분지에 도달하기 위해 복잡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수백 명이 걸어서나 배를 타고 여행했으며, 모기, 비, 폭풍을 견디며 텐트와 동굴에서, 또는 로흐 스카바이그에 정박된 배에서 생활했다. 그들은 분지의 형태를 축하하기 위해 생활의 엄격함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미학가들이었다. 그들은 어떤 호기심 많은 식민지를 이루었다! 그들 중에는 작은 빨간머리 빅토리아 시대의 시인 알제논 스윈번과 J. M. W. 터너가 있었는데, 후자는 1831년 스콧이 묘사한 야생을 보러 왔다가 쿠일린을 가늘고 뾰족한 봉우리로 왜곡한 그림을 그리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

나는 8월 더운 날에 남쪽에서 리차드, 내 오랜 친구와 함께 로흐 스카바이그 가장자리를 따라 코루이스크에 도착했다. 리차드와 나는 수년 동안 수백 개의 산을 함께 등반했다. 몇 시간 동안 우리는 호수변을 따라 잘 정돈된 길을 따라 걸었다. 대서양은 항상 우리 왼쪽에 있었고, 하루가 지나고 해가 저물면서 서서히 황동색으로 변했다. 여기저기 바위 위에 앉아 있는 민물가마우지들이 바다를 응시했다. 일부는 날개를 펼친 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는데, 태양과 바람에 말리기 위해 팔꿈치에서 펼쳐진 것처럼 보였다: 철십자가. 거품은 종이처럼 크림이한 색깔로 모여 해안 돌 사이에 쌓였다.

접근로 네 마일 지점에서 우리는 200야드 길이에 나무 하나가 10피트를 넘지 않는 작은 숲을 지났다. 지속적인 해안 바람은 나무들을 동쪽으로 휘게 만들어 그들이 눌러진 땅의 곡선 형태를 취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숲과 언덕 사이의 좁은 공간을 통과하기 위해 몸을 구부리고 옆으로 비켜야 했다.

이제 스카이 섬에는 나무도 별로 없고 사람도 별로 없다. 섬은 19세기 청산 동안 많은 주민을 잃었고 몇 세기 전에는 벌목과 불태움을 통해 대부분의 숲을 잃었다. 1549년 스카이에 대한 가장 오래된 생존하는 기술은 그것을 '많은 숲, 많은 숲, 많은 사슴이 있는 섬'으로 묘사했다. 이제 스카이의 나무가 많았던 과거의 유일한 진짜 흔적은 그것의 더 외딴 지역을 통과하는 오래된 길들이다. 이 길들은 처음에는 숲지기들에 의해 걸어 다녔다. 스카이의 유명한 황량함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으로, 그것의 과거를 슬프게 말해준다. 스코틀랜드의 가장 야생적인 땅처럼, 이 땅은 비어 있는 풍경이 아니라 비워진 풍경이다. 스카이에서는 '황량함'이 구 스칸디나비아어 bleikr에서 왔으며, '하얀' 또는 '빛나는'을 의미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것은 빠가 드러나는 단어이다.

숲을 지나고 나서 길은 급격하게 내리막으로 이어져 한 만으로 들어갔고 리차드와 나는 그곳에서 멈춰 돌이 많은 해변을 빗질했다. 선명한 잔해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는데, 엔리의 만들보다 훨씬 많았다: 파란 우유 상자, 구멍 난 가구 품의 입방체, 담배꽂초, 병뚜껑, 에어로졸 용기, 여러 언어로 인쇄된 테트라팩 판지 등이었다. 이 외딴 대서양을 마주한 만에서조차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고, 오염은 피할 수 없었으며 땅의 자율성은 위협 받고 있었다.

매년 수천 톤의 잔해들이 영국과 아일랜드 해안으로 밀려온다. 그 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잔해들이 미치는 영향은 시각적 영향을 넘어 심각하다. 고래, 돌고래, 상괭이들이 소화기에 플라스틱이 막혀 죽고 있다. 2002년 노르망디 해안에서 발견된 민크 고래 한 마리의 위에서는 거의 1톤의 플라스틱 포장재와 쇼핑백이 발견되었다. 물개와 해조류는 트롤어선에서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유령' 어망에 걸려들어 고통받고 있다. 해상 교통이나 해상 시추로부터 새어 나오는 기름은 해초 숲을 덮고, 새와 물개를 오염시킨다.

나는 플라스틱 조각들을 걸러내어 바위에 의해 거칠게 문질러져 조개처럼 가볍고 거친 한 조각을 찾았다. 그것을 엄지손가락 볼에 문질렀을 때, 그것은 고양이 혀처럼 갈라졌다. 나는 끈의 한 뭉치를 집어 들었는데, 그것은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서로 연결된 마름모꼴 무늬로 얽혀 있었다. 해변에서는 연미복을 입은 듯한 군집에서 목 없는 도요새들이 서 있었다. 해안에서 스무 야드 떨어진 곳에서 세 마리의 바다오리가 배회하고 있었다. 바람과 물이 헤더 줄기와 풀을 엮어 수확의 화환처럼 만들어 해안선을 따라 마일마다 놓여 있었다. 경사진 바위 선반 위에 바

다는 크기와 치수가 다른 큰 돌들을 배열했다. 가벼운 바위는 더 높은 선반에 올라가고 무거운 것들은 물 가까이
에 늘어서 있었다.

작은 협곡에는 최근에 죽은 갈매기 한 마리가 있었다. 그것의 젖은 날개는 펼쳐져 있었고, 날개 깃털에는 마모 흔
적처럼 기름 자국이 있었지만, 이 오염으로 죽은 것 같지는 않았다. 그것의 눈은 흐려져서 바다 유리처럼 닳은 일
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몸을 숙여 그것의 날개를 가슴 위로 접었고, 그런 다음 우리는 성역으로 가는 입구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검은 바위의 경비소가 있었다.

우리는 황혼에 코루이스크 입구에 도착했다. 한쪽은 절벽이고, 다른 쪽은 폭포가 흐르는 바위 벽이었다. 바다 쪽
하늘은 검게 변했다. 지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절벽 사이를 지나면서 나는 문턱을 넘었
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할아버지가 스위스에서 자랄 때 신비로운 발 드 수잔페 계곡에 들어갈 수 있었다
는 이야기를 들려준 것을 기억했다. 계곡으로 들어가려면 폭포 위 높은 바위 선반까지 올라가야 했다. 선반은 공
중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넓은 선반으로 이어지고 거기에서 계곡으로 이어졌다. '이 비밀의
길,' 그는 말했다, '은 마법의 장소로 가는 문이었다.' 그곳에서는 에델바이스와 아스터가 풍성하게 자랐다.

코루이스크 호수에서 로흐 스카바이그로 흐르는 곳, 담수가 바닷물과 만나는 지점 바로 위에서, 우리는 오두막을
발견했다. 리차드가 먼저 보고 소리쳤다. 오두막은 키가 큰 현무암 절벽의 풍화된 곳에 숨겨져 있어 대서양을 향
해 있었고 황혼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절벽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무리 지어 춤추듯 날아다니며 우리 얼굴
과 손에 수백 마리씩 짜증나게 앉았다.

벽난로 위에 나사로 고정된 소나무 패널은 오두막이 1952년에 두 젊은이가 벤 네비스의 타워 릿지에서 겨울 등
반을 하다가 사망한 것을 기념하여 그들의 부모가 지불하여 지어졌다고 기록했다. 패널은 두 남자를 기념하고
'모험 정신, 용기, 좋은 동료애가 높은 산에서 발현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지어졌다고 말했다.

저녁 아홉시쯤 차가운 푸른 황혼이 폭풍으로 바뀌었다. 창문에 자갈을 던지는 듯한 비가 쏟아졌다. 나는 오두막
의 서쪽 창가로 가서 눈 주위에 손을 모으고 밖을 응시했다. 창문 유리에 맺힌 빗방울의 소형 풍경만 보일 뿐이었

다. 은빛의 고분과 토기들이다. 유리 너머의 어둠은 완전히 특징 없이 절대적이었다. 바람과 비 소리를 제외하고는 우리 오두막이 깊은 우주를 가로질러 질주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창틀에서 오두막의 방명록을 발견했다. 수십 년 동안 코루이스크를 찾은 사람들의 코멘트가 담겨 있었다. 어부들, 산책자들, 야생 순례자들, 화가들, 고독한 이들이 전 세계에서 여기로 왔다. 멘사 산악 클럽은 문을 여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01년 4월 21일의 한 글귀에는 '번 옆의 수도관에서 큰 누수가 있었다'고 쓰여 있었다. 메이저 리크가 어떻게 거기에 도착했는지, 어떻게 그를 제거했는지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물 공급은 만족스럽게 복구되었다고 한다.

콘월에서 온 한 그룹은 맑은 밤에 만의 바닷물이 녹색 인광 빛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다고 묘사했다. 그들 모두가 해안으로 나가 바위를 던져 어두운 물에서 에메랄드 색 분수가 솟구치는 것을 관찰했다. 나는 엔리의 인광을 회상하며 그들의 묘사를 부러워하며 또 다른 그런 빛의 기적을 바랐다.

다음 날 아침 우리가 일어났을 때 폭풍은 지나갔다. 열은 햇살이 바닥에 줄무늬를 만들었다. 밖에는 커다란 하얀 구름이 바다 위에 매달려 있고 그 사이로 파란색이 보였다. 갈매기들이 쉽게 날며 빛의 기둥을 지나며 반짝였다. 스카바이그는 평화로웠고 폭풍은 잊혀졌다. 유일한 소리는 바람에 떠다니는 파도의 조용한 대화와 만에 정박된 요트의 돛대에 부딪히는 장대의 나른한 소리였다. 그 요트는 밤새 열린 바다에서 피신하기 위해 여기에 왔을 것이다. 바위에서는 물개들이 누워 궁금해하지 않고 햇볕을 쬔고 있었다.

우리는 오두막을 떠나 성역 안쪽으로 더 걸어갔다. 우리의 계획은 코루이스크 호수의 긴 북쪽 해안을 탐험하는 것이었다. 절벽 기슭과 물 사이의 땅을 지나갔다. 그리고 호수 끝에서 머리 벽을 따라 능선까지 오르고 마지막으로 '접근 불가능한 뽕죽탐'인 스구르 데어그를 등반하려고 했다. 그것은 코루이스크 위의 능선에서 수백 피트 솟은 검은 바위 상어 지느러미처럼 보였고, 오랫동안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야생적인 지점 중 하나였다.

북쪽 해안을 따라 우리는 축축한 늪지를 가로질렀다. 그곳은 깊은 싱크홀로 우툴두툴했다. 왼쪽의 가파른 땅은 갈색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 풀로 메워져 있으며 전날 밤의 폭풍으로 인해 물이 수직으로 흘러내렸다. 산의 면의

기울기와 빛의 낙차 각도는 젖은 바위 면마다 반짝이게 만들었다. 수천 개가 한 번에 같은 배열로 반짝였다.

늪지의 싱크홀은 물로 가득 차 있었다. 바위의 약간의 철분 때문에 구멍의 물은 가장자리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것들은 피에 젖은 웅덩이처럼 빛났다. 오직 희미한 사슴 길만이 우리에게 안전한 길을 보여주었다.

공기는 습하고 늪지 냄새가 났다. 땅은 식물로 무성했다. 말꼬리는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식물 중 하나이며, 그 이름을 모르는 짙은 녹색 잎의 식물도 있었다. 나는 한 잎을 집어 들어 손바닥에 느슨하게 늘어지게 했다. 그것은 오래된 양피지 지도처럼 무겁고 축 처져 있었다.

걸으면서 날씨는 빠르게 우리 위를 지나갔다. 햇빛 폭풍, 그 다음 비, 그리고 갑자기 우박의 일제 사격이 이어졌다. 호수 머리에서, 세 마일을 늪지에서 지낸 후, 우리는 평평한 가브로 바닥의 단단한 바위 풍경으로 나왔다. 각각 최대 4분의 1 에이커 크기로 크고 구멍이 뚫려 있었다. 수만 년 전에 빙하가 이를 평평하게 하고 둥글게 만들었다. 각 구멍의 바닥에는 구멍에 꼭 맞는 자갈이나 돌이 있었다.

호수 머리에서 우리는 오르기 시작했다. 주변에서는 쿠일린의 예측할 수 없는 바람 법칙을 이용하여 까마귀들이 그들의 비행 기술을 연습했다. 스톨, 롤, 플릭 플랙, 임멜만 턴 등이었고 그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절벽에서 금속 구슬이 주석을 때리는 것처럼 울려 퍼졌다. 여기저기에는 거친 로완 나무들이 있었고, 그들의 뭉툭한 뿌리가 젖은 scree를 함께 묶고 있었다.

진행은 힘들었고 우리는 쉬기 위해 평평한 돌 위에서 멈췄다. 그 돌 위로 개울이 흐르고 있었고, 그 입술에는 세 개의 통통한 녹색 이끼 덩지가 매달려 있었다. 그 물은 너무 매끄러워서 플라스틱처럼 보였고, 인공적이고 광택이 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손을 물속에 넣어 물이 그것을 흐르며 그 형태를 취하게 하고, 두 번째 투명한 피부처럼 보이게 했다. 위를 보니 뽕죽탑의 지느러미가 보였다. 능선의 바람은 세계 불었고, 흰 구름 조각들이 검은 바위 위를 찢어지듯이 지나갔다. 나는 한 등반가가 뽕죽탑에 대해 설명한 것을 떠올리며 빠르게 두려움을 느꼈다. '한쪽은 매달리는 무한한 낭떠러지이고, 다른 쪽은 더 가파르고 긴 낭떠러지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서 우리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바위는 습기로 인해 미끄러웠다. 우리는 두 봉우리 사이의 좁은 능선인 비얼라흐에 도달했고, 거기에서 스구르 데어그의 낮은 가짜 정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바살트의 겹겹이 쌓인 비늘을 따라 내려가 뽀족탑의 밑바닥에 도달했다.

작은 돌로 된 원형 피난처가 어느 정도의 보호를 제공했다. 우리는 몇 분 동안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 초콜릿 바를 나눠 먹으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나는 계속해서 뽀족탑의 검은 정상을 올려다보며 수백 피트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멀리 달리기를 시작했다. 갑자기 나는 위태롭게 느껴졌고 두려웠다: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의 가장자리에도 균형을 잡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능선에서 내려가 분지로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우리는 뽀족탑을 오르기 위해 줄을 가져왔지만, 갑자기 그런 행동이 의미가 없고 불가능하다고 느껴졌다. 그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무례할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후퇴했다; 바살트의 용의 피부를 따라 능선을 따라 그리고 다시 비얼라흐로 내려갔다. 우리는 능선의 바람 그늘에서 잠시 쉬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 갑작스러운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취약함의 느낌이나 현기증 나는 충동 이상이었다—그것도 일부였다. 분명한 야생성이었지만, 엔리의 아름다움에 가까운 야생성과는 매우 달랐다: 거칠고, 혼란스럽고, 징계하는 종류였다.

비얼라흐 서쪽의 구름들이 빠르고 복잡하게 움직이며 미끄러지듯이 움직여 대서양을 다시 볼 수 있는 틈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한 창을 통해 럼 섬과 그 너머의 아웃터 헤브리디스의 긴 낮은 경계를 북쪽 루이스까지 볼 수 있었다. 또 다른 틈을 통해 분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희미한 시야를 얻었다. 첫 번째 스카이 빙하가 형성되었을 것 같은 비얼라흐 바로 그런 곳일 것이다—빙하가 플라이스토세 기간 동안 큰 분지 공간을 만들어 낸 빙하들: 약 250

만 년 전부터 시작되어 스카에서 마지막 빙하가 약 1만 4700년 전에 물러날 때까지.

그때 나는 파울스가 '오래된 자연'을 코루이스크와 쿠일린과 같은 장소에 위치시킨 것이 옳았다고 생각했다. 야생이 멸종에 가까워진다면, 그 마지막 요새는 산 정상과 그들이 보호하는 계곡일 것이다. 이 장소들은 주로 그들만의 패턴과 리듬을 유지하고, 그들만의 날씨와 그들만의 빛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비치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 해초와 바다새에 묻은 기름에서 볼 수 있는 침입과 변화의 증거에서도 순수함이나 불가침성의 꿈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 더 미묘한 경고도 있었는데, 그것은 부재의 형태로 나타났다: 청소된 골짜기, 나무 없는 언덕들. 그날 늦게, 계곡 아래에서 우리는 멈춰 넓고 푸른 강에서 수영을 했다. 이 강은 능선과 머리벽에서 흘러내려와 코루이스크 호수를 채웠다. 리처드가 장소를 찾았다: 강물이 급류를 이루며 흘러내려가 깊고 맑은 웅덩이로 쏟아지기 전에, 약 10야드 길이의 매끄러운 바위 플룸이었다. 완벽한 수영 장소였다! 로저도 좋아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아버지도 항상 야외에서 수영을 했기 때문에 좋아했을 것이다: 폭포 구멍에서, 돌다리 아래 급류에서, 바다 동굴에서.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이 미들랜드에서 하이랜드로 가는 길에, 우리는 거의 매 여름 그랬듯이, 로흐 로몬드 서쪽 해안의 같은 만에서 차를 세우고, 날씨에 상관없이 몇 분간 물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웃으며, 축축하게, 회복된 기분으로 다시 차에 올라 북쪽으로 운전을 계속했다.

리처드와 나는 번갈아가며 플룸에 몸을 던져, 팔을 높이 들고 물살에 몸을 맡긴 후 웅덩이에 떨어졌다. 물 표면에 비가 내리고, 주위에 날아다니는 미지근한 공기에 모기들이 떠다니며, 몇 초라도 가만히 있으면 물리기 시작했다. 강가에는 단단한 녹색 이끼의 발판이 있었고, 나는 스위니가 사랑했던 글렌 볼케인을 떠올렸다. 하지만 너는 모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스위니, 나는 비난하듯이 생각했다...

우리가 호수를 따라 최종 몇 마일을 걸어갈 때, 약한 태양이 여전히 우리 피부에 남아 있는 물방울 속에서 끓어오르고, 강물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하면서, 계곡 아래에 있는 하늘에 무지개가 형성되어 양쪽 성역을 잇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무지개를 향해 걸어갔고, 우리가 나아갈수록 무지개는 항상 물러서며 같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한때 노트에 적었던, 하지만 출처를 잃어버린 인용구를 떠올렸다: '경치는 우리가 꿈꾸기도 전에 여기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리가 떠난 아침, 하늘은 흠집 하나 없는 푸른색이었다. 걸음을 떼기 전, 우리는 코루이스크 호수의 물에서 마지막으로 수영을 했다. 우리는 따뜻하게 기울어진 해안 바위에서 미끄러져 들어가 옷을 바위에 펼쳐 태양의 열을 받게 했다. 물은 밤새 시원해졌고 돌처럼 고요했다. 그 물의 이탄색은 내 피부에 오래된 동전의 금빛 광택을 주었다.

호수 건너 약 백 야드 떨어진 곳에 섬이 있었다. 그저 맨 검은 바위의 얇은 돌출부로, 빙하의 통과로 매끄럽게 닳았으며 가장 높은 지점에서 물 위로 겨우 발 높이였다. 그것은 고래의 등처럼 보였고 그 형태는 내가 가지고 있던 비치우드의 윤곽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건너편으로 수영해 갔다, 기어 올라가 서서 발 아래의 바위의 거친 느낌과 이미 태양으로부터 모은 따뜻함을 느끼며 물기를 털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등을 대고 누워 머리 뒤로 손을 받치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몇 분 후, 나는 뒤집힌 현기증, 즉 위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다. 공기는 공간이나 시간의 지표가 없이 비어 있었고, 깊이의 표시도 없었다. 섬을 때리는 물의 은밀한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누워서 인간의 흔적이 없이 내 눈동자의 테두리만 느낄 수 있었다면, 나는 빙하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침묵을 느낄 수 있었다.

분지에서는 시간을 달리 상상하게 되었거나 적어도 달리 경험하게 되었다. 시간은 시간과 분의 용어가 아닌 색조와 질감의 용어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 같았다. 몇 일 만에 코루이스크 밖을 생각하기 어려웠다: 상점, 대학, 자동차가 있는 계속되는 세계로, 그곳의 신속함과 긴급함, 심지어 가족, 도시의 집, 내 정원으로, 사과나무 가지가 과일로 축 늘어질 것이다.

분지는 많은 종류의 시간을 보유했고, 모두가 느린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곳에서도 빠름을 보았다: 비행 중인 까마귀의 갑작스러운 추락, 바위를 도는 물의 굴절, 잠자리의 화살, 하루 만에 태어나 춤을 추고 죽는 모기들. 하지만 그것의 만들어진 큰 연대기들 - 빙하의 무의식적인 바다로의 진행, 시간의 경사를 따라 - 이것이 내 마음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했다.

분지에서, 비록 잠깐이지만, 인간의 인식의 좁은 한계, 세상에 대한 당신의 가정의 잠정성을 상기시키는 곳이다. 그러한 장소에서는, 당신의 관습적인 연대기 단위(세기, 수명, 십년, 년, 날, 심장 박동)는 거의 감지할 수 없게 되고, 당신의 개별적인 제스처와 충동(손의 들어올림, 물 속에서의 수영 동작, 화난 번쩍임, 말이나 생각의 전환)은 기이한 빠름을 획득한다. 인간 세계의 더 큰 충동들 - 전쟁, 문명, 시대들 - 은 멀게 느껴진다. 분지의 시간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당신이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은 어떠한 인간의 일정에도 맞추려는 관심이 없다. 분지는 야생의 시간을 지킨다.

그러한 연대의 계곡에서는, 당신은 습관적인 시간 측정 방법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인색한 측정과 감사를 버리도록 강요받는다. 시간은 광물과 공중의 형태로 자신을 찾는다, 시계나 일기장에서가 아니다. 그러한 인간 장치들은 부서지기 쉽고 하찮게 보인다. 당신은 그것들을 조용히 포기하고 싶어한다 - 성역의 관문에서 당신의 일기장을 넘기고, 당신의 시계를 안으로 돌리고 싶어한다. 나중에 이러한 기록 방법을 회복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위로 움직이는 새들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검은 점들에 불과했지만, 내 눈이 그것들을 구분하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 하늘의 낮은 테라스에서 날개 끝을 돌리는 갈매기들; 그 위에 세 마리의 까마귀들이 쉼하고 소리를 내며 날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참매 한 마리가 있었다. 갑자기 하늘의 깊이가 헤아릴 수 있게 되었고, 공간이 층과 원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코루이스크 자체도 변했다: 나에게는 너무나 낮선 이 장소는 이 새들의 집이었고, 그들이 사냥하고, 놀고, 살아가는 곳이었다.

나는 해안으로 수영해서 돌아왔다. 호수의 입구 근처에서, 물이 팔뚝 높이밖에 되지 않을 때, 나는 바닥에 있는 큰 검은 지느러미 모양의 바위를 잡고 내 몸과 발을 수직으로 들어 올렸다가, 부드러운 물살에 의해 경사지게 눕혀졌다. 숨이 다할 때까지 바위를 잡고 있었다가, 밝은 공기 속으로 물 밖으로 튕겨 나왔다.

우리는 옛 나무꾼의 길을 따라 성역을 떠났다. 이 길은 시내를 따라 남쪽 고개를 넘어가는 길이었다. 고개에서 백 피트쯤 떨어진 곳에서 나는 물에 씻겨 반짝이는 작은 돌 해변을 발견했다. 나는 고개를 나타내는 넓은 돌무더기

에 하나를 더하고 하나는 목마름을 면하기 위해 입에 넣고 구르며, 우리가 길을 따라 오르면서 지속적으로 이를 가는 소리를 냈다.

고개에 도달한 곳에서, 나는 멈추어 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북동쪽으로는 슬리가찬의 청소된 계곡이 보였고, 강물의 고리에 덮인 흩어진 벽돌들이 풀과 이끼에 의해 자라고 있었다. 서쪽으로는 접근 불가능한 봉우리가 날카로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 아래로는 코루이스크 호수가 반짝이며 기울고 있었다. 우리는 슬리가찬으로 내려가는 길을 시작했고, 풍경은 우리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3. Moor

수년 전, 따뜻한 가을 저녁에 글렌 코에의 동쪽 관문에 위치한 화살촉 모양의 산인 부차일 에티브 모어를 올랐다. 정상에 도달했을 때, 해는 내 뒤 바다 위로 낮게 떠 있어 부차일이 일시계의 포인터가 되어 래녹 무어의 황금색 원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삼각형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1시간 동안 머물며 산의 그림자가 무어 위에서 좁아지고 길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 형태는 피라미드에서 샬레 처마, 오벨리스크로 변했다. 그때 나는 언젠가 무어를 걸어서 가로질러 그곳의 먼 중심에서 밤을 보내겠다고 결심했다.

많은 사람들이 래녹 무어를 알고 있다. 그들은 그 주변 산에서 내려다보았거나, 그 서쪽 경계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운전하며 그곳을 지났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키드내핑'에서 알란 브렉과 데이비 발푸어가 도망치는 장면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알고 있다. 그들은 '야생이며 집 없는 산들'과 '야생 강의 발원지들'을 지나 '낮고, 부서진, 황량한 땅' 즉 '바다처럼 황량한 땅에서 무어닭과 피윗만이 울부짖으며, 멀리 동쪽에서는 점처럼 움직이는 사슴 떼가 있다'는 지역에 도달한다. 이곳이 무어이며, 데이비는 거의 죽을 뻔한다. 겨울에는 사람들이 그 광활함에 길을 잃고 추위에 시달리다 죽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무어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곳은 광활하고 길이 없으며 일년 내내 적대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다. 바다의 폭풍이 그곳을 가로질러 글렌 코에로 몰아치며, 그곳은 고

원이며 하이에나 색의 초원이다 - 빙하에 의해 새겨지고 거칠게 만들어졌으며, 그러한 흔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두 개의 주요 호수인 복잡한 호수 바와 뿔 모양의 호수 레이든에는 백조 무리가 착륙한다. 맑은 밤, 주변을 둘러싼 산들의 정상에서 무어의 수많은 작은 호수와 시내, 강들이 달빛에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순간에만 무어가 얼마나 많은 물로 이루어져 있는지 깨닫게 된다.

그 따뜻한 가을에 나는 밤에 무어를 운전하여 건넜다. 횡단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린 것 같았다. 마치 검은 무한한 공간의 웅덩이로 들어간 것 같고, 완전히 다른, 이 세상이 아닌 곳을 지나는 것 같았다. 무어의 내리막에서는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고 거의 정지할 정도로 천천히 주행해야 했다. 왜냐하면 사슴들이 내 앞 도로를 가로질러 블랙 코리스로 가는 길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량의 전조등 빛 속에서 사슴들은 도로를 건널 때 서로 가까이 붙어 각자가 앞사람의 등이나 옆구리에 머리를 기대며 건넜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들의 숨결이 콧구멍에서 뿜어져 나왔고, 그들의 눈의 흰자위가 차의 빛을 받아 어둠 속에서 구슬처럼 빛났다. 무어의 기울기가 줄어들면서 오르키 다리 쪽으로 내려갈 때, 블랙 마운트의 코리스로 향하는 또 다른 무리의 사슴들이 내 앞 길을 가로질렀다.

그 사슴이 출몰하는 교차로를 건넌 지 4년 후, 나는 부차일의 정상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래녹 무어로 돌아갔고, 야생의 지도에 또 다른 패널을 추가하기 위해 돌아왔다. 나는 또한 W. H. Murray가 코루이스크 이후 몇 주 동안 읽은 에세이에 이끌려 무어로 돌아왔다. 그는 수도승들과 스위니와 마찬가지로 야생을 찾는 다른 탐험가이자, 나의 여정에 대한 또 다른 선례였다.

그가 글래스고에서 자랐음에도 머레이는 1933년, 19살이 될 때까지 하이랜드로 모험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는 한 지인이 웨스터 로스의 안 텔라크를 겨울에 횡단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 매혹되었다: ‘높고 바위 투성이인 산맥에서 구름이 걷히고, 태양 광선이 아래 깊은 계곡을 비춘다.’ Murray는 매혹되어 그러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그에게 ‘신앙의 전환처럼 갑자기’ 찾아왔다고 기억했다. 그때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그는 가능한 모든 계절에 스코틀랜드의 섬들, 무어, 산들을 탐험했다 - 밤낮으로 여행하며 그가 ‘하늘의 야

생지대'라고 부른 곳으로 올라갔다. 그는 계곡과 산봉우리를 뛰어나게 잘 알게 되었다: 그들의 날씨 습관과 날씨 역사, 그들의 바위, 식물, 동물의

성질들. 야생은 그에게 거의 신비로운 중요성을 가졌고, 그가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를 광기로부터 구할 것이었다.

어른이 된 후 머레이를 만난 몇몇 사람들은 그의 곡선형 코, 정확하고 관찰적인 태도, 지속된 평정과 갑작스러운 행동의 능력을 보고 그를 맹금류로 묘사했다 - '절약하고 사색적인 독수리'라고 해미시 매킨네스가 표현했다. 그의 모든 야생 동지 중에서도 부차일 에티브 모어는 그에게 가장 중요했다. 그곳은 비둘기 회색과 연분홍색 바위들이 있고, 래녹 무어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그의 관점이었다.

1939년 9월 3일, 머레이는 글렌 코에로 가는 길에 무어를 건너다가 무어의 서쪽 가장자리에 있는 여관인 킹스 하우스에 들렀다. 그곳에서 전쟁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동원령이 그를 사랑하는 스코틀랜드 풍경에서 영원히 멀어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중에 회상하면서 '본능적인 반응'은 그에게 가장 많은 것을 준 산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부차일이다. 그래서 나는 비의 부슬비를 맞으며 무어를 건너 크로우베리릿지를 올라 정상에 도달했다. 나는 이 산에서 많은 날과 밤을 기억했다 - 달빛의 아름다움과 화려함, 반짝이는 얼음, 힘든 등반. 나는 산과 어우러지는 정적과 침묵의 음악을 기억했다... 그 날들이 끝났을까? 내면과 외면 탐험의 날들? ... 나는 정상에서 한 시간을 보내고 가능한 한 천천히 내려왔다. 모든 바위와 돌이 나에게 익숙해 보였다.

수년 전, 따뜻한 가을 저녁에 글렌 코에의 동쪽 관문에 위치한 화살촉 모양의 산인 부차일 에티브 모어를 올랐다. 정상에 도달했을 때, 해는 내 뒤 바다 위로 낮게 떠 있어 부차일이 일시계의 포인터가 되어 래녹 무어의 황금색 원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삼각형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1시간 동안 머물며 산의 그림자가 무어 위에서 좁아지고 길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 형태는 피라미드에서 샬레 처마, 오벨리스크로 변했다. 그때 나는 언젠가 무어를 걸어서 가로질러 그곳의 먼 중심에서 밤을 보내겠다고 결심했다.

많은 사람들이 래녹 무어를 알고 있다. 그들은 그 주변 산에서 내려다보았거나, 그 서쪽 경계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운전하며 그곳을 지났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키드내핑'에서 알란 블랙과 데이비 발푸어가 도망치는 장면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알고 있다. 그들은 '야생이며 집 없는 산들'과 '야생 강의 발원지들'을 지나 '낮고, 부서진, 황량한 땅' 즉 '바다처럼 황량한 땅에서 무어닭과 피윗만이 울부짖으며, 멀리 동쪽에서는 점처럼 움직이는 사슴 떼가 있다'는 지역에 도달한다. 이곳이 무어이며, 데이비는 거의 죽을 뻔한다. 겨울에는 사람들이 그 광활함에 길을 잃고 추위에 시달리다 죽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무어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곳은 광활하고 길이 없으며 일년 내내 적대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다. 바다의 폭풍이 그곳을 가로질러 글렌 코예로 몰아치며, 그곳은 고원이며 하이에나 색의 초원이다 - 빙하에 의해 새겨지고 거칠게 만들어졌으며, 그러한 흔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두 개의 주요 호수인 복잡한 호수 바와 뿔 모양의 호수 레이든에는 백조 무리가 착륙한다. 맑은 밤, 주변을 둘러싼 산들의 정상에서 무어의 수많은 작은 호수와 시내, 강들이 달빛에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순간에만 무어가 얼마나 많은 물로 이루어져 있는지 깨닫게 된다.

그 따뜻한 가을에 나는 밤에 무어를 운전하여 건넜다. 횡단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린 것 같았다. 마치 검은 무한한 공간의 웅덩이로 들어간 것 같고, 완전히 다른, 이 세상이 아닌 곳을 지나는 것 같았다. 무어의 내리막에서는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고 거의 정지할 정도로 천천히 주행해야 했다. 왜냐하면 사슴들이 내 앞 도로를 가로질러 블랙 코리스로 가는 길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량의 전조등 빛 속에서 사슴들은 도로를 건널 때 서로 가까이 붙어 각자가 앞사람의 등이나 옆구리에 머리를 기대며 건넜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들의 숨결이 콧구멍에서 뿜어져 나왔고, 그들의 눈의 흰자위가 차의 빛을 받아 어둠 속에서 구슬처럼 빛났다. 무어의 기울기가 줄어들면서 오르키 다리 쪽으로 내려갈 때, 블랙 마운트의 코리스로 향하는 또 다른 무리의 사슴들이 내 앞 길을 가로질렀다.

그 사슴이 출몰하는 교차로를 건넌 지 4년 후, 나는 부차일의 정상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래녹 무어로 돌아갔고, 야생의 지도에 또 다른 패널을 추가하기 위해 돌아왔다. 나는 또한 W. H. Murray가 코루이스크 이후 몇 주

동안 읽은 에세이에 이끌려 무어로 돌아왔다. 그는 수도승들과 스위니와 마찬가지로 야생을 찾는 다른 탐험가이자, 나의 여정에 대한 또 다른 선례였다.

그가 글래스고에서 자랐음에도 머레이는 1933년, 19살이 될 때까지 하이랜드로 모험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는 한 지인이 웨스터 로스의 안 텔라크를 거울에 횡단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 매혹되었다: '높고 바위 투성이인 산맥에서 구름이 걷히고, 태양 광선이 아래 깊은 계곡을 비춘다.' Murray는 매혹되어 그러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그에게 '신앙의 전환처럼 갑자기' 찾아왔다고 기억했다. 그때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그는 가능한 모든 계절에 스코틀랜드의 섬들, 무어, 산들을 탐험했다 - 밤낮으로 여행하며 그가 '하늘의 야생지대'라고 부른 곳으로 올라갔다. 그는 계곡과 산봉우리를 뛰어나게 잘 알게 되었다: 그들의 날씨 습관과 날씨 역사, 그들의 바위, 식물, 동물의

성질들. 야생은 그에게 거의 신비로운 중요성을 가졌고, 그가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를 광기로부터 구할 것이었다.

어른이 된 후 머레이를 만난 몇몇 사람들은 그의 곡선형 코, 정확하고 관찰적인 태도, 지속된 평정과 갑작스러운 행동의 능력을 보고 그를 맹금류로 묘사했다 - '절약하고 사색적인 독수리'라고 해미시 매킨네스가 표현했다. 그의 모든 야생 동지 중에서도 부차일 에티브 모어는 그에게 가장 중요했다. 그곳은 비둘기 회색과 연분홍색 바위들이 있고, 래녹 무어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그의 관점이었다.

1939년 9월 3일, 머레이는 글렌 코에로 가는 길에 무어를 건너다가 무어의 서쪽 가장자리에 있는 여관인 킹스 하우스에 들렀다. 그곳에서 전쟁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동원령이 그를 사랑하는 스코틀랜드 풍경에서 영원히 멀어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중에 회상하면서 '본능적인 반응'은 그에게 가장 많은 것을 준 산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부차일이다. 그래서 나는 비의 부슬비를 맞으며 무어를 건너 크로우베리 릿지를 올라 정상에 도달했다. 나는 이 산에서 많은 날과 밤을 기억했다 - 달빛의 아름다움과 화려함, 반짝이는 얼음, 힘든 등반. 나는 산과 어우러지는

정적과 침묵의 음악을 기억했다. ... 그 날들이 끝났을까? 내면과 외면 탐험의 날들? ... 나는 정상에서 한 시간을 보내고 가능한 한 천천히 내려왔다. 모든 바위와 돌이 나에게 익숙해 보였다.

1940년 4월에 머레이는 군에 입대했다. 훈련을 마친 후, 그는 임관되어 하이랜드 경비병으로 배치되었다. 그의 우수한 대대인 제2대대는 북동 아프리카 사막으로 파견되어 로멜의 신설 아프리카 군단과 전투를 벌였다.

1941년 6월 19일, 머레이와 그의 부대는 리비아 국경으로 서쪽으로 이동하여 프랑스와 독일을 합친 것보다 넓은 바위와 모래의 광활한 지역에 들어갔다. 머레이는 나중에 그 지역이 너무 텅 비어 있고 특징이 없어서 그 지도가 '해도와 같고 해안선을 제외하고는 텅 빈 종지와 같았다'고 썼다. 상황의 역경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단단하고 적대적인 모래 세계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그는 사막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것의 선명한 선, 불타오르는 일출 - '거대한 태양 원반이 수평선에서 솟아오르면서 그 시원하고 고요한 순간, 광활한 푸른 하늘' - 그리고 밝은 시간에 모래가 하얗게 표백된 것처럼 보이는 빛은 마치 사막 위에 눈이 내린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1942년, 마지막 휴가에서 머레이는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등반하고 스팅크스의 새로운 등반 시도를 했다. 그러나 외교가 용기를 이겼다. 그는 나중에 '턱이 주요 장애물이었고, 우호적인 국가의 바위에 피톤을 사용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행동처럼 보였다'고 보고했다.

그 해 8월에 즐거움은 끝났다. 리비아 사막의 한 지역인 크라운에서 그의 대대는 로멜의 판처 사단에 맞서 일련의 보병 진격의 첫 번째에 투입되었다. 그 전술은 제1차 세계대전의 유물이었고, 그 구식 전술은 치명적이었다. 머레이와 그의 부하들은 대낮에 평평한 땅을 반 마일 넘게 걸어 탱크에 맞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머레이는 나중에 그 진격을 회상했다. 먼저, 지원 포병의 포격이 멈춘 후의 귀먹은 침묵이었다. 그런 다음 적군의 총이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발사되었다: 총알의 뽕뽕거리고 지퍼 소리, 떨어지는 포탄 소리. 박격포에 맞은 닭이 가득한 트럭, 깃털이 하늘로 날아갔다. 머레이가 자신의 전령과 말하려고 돌아봤을 때, 담배갑과 연기가 나는 두 다리만이 남아 있었다.

머레이는 그날을 살아남았지만, 600명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다. 대대는 거의 휴식을 갖지 못했다. 6월 28일, 스코틀랜드에서 새로운 병력을 보충받아 힘을 회복한 후, 엘 알라메인에서 서쪽으로 40마일 떨어진 해안 위치인 엘 푸카 근처에 진을 치고 로멜의 진격하는 15판처 사단에 맞서 방어선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머레이와 그의 부하들은 얇은 참호를 파고 가벼운 2파운드포를 배치했다. 이것이 그들이 다가오는 마크 IV 탱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포병이었다. 해가 질 무렵, 첫 번째 별빛이 매끄러운 사막 하늘을 밝힐 때, 로멜의 사단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도착했다. 그들은 반 시간 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머레이의 여단장이 어둠 속에서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오늘 밤까지 당신은 죽은 고기이거나 포로가 될 것이다.'

머레이는 1940년 4월에 입대했다. 훈련을 마친 후, 그는 임관되어 하이랜드 경보병대에 배치되었다. 그의 정예 부대인 제2대대는 북동 아프리카의 사막으로 보내져 롬멜의 새로 결성된 아프리카 군단과 싸웠다.

1941년 6월 19일, 머레이와 그의 부하들은 리비아 국경으로 서쪽으로 이동하여 프랑스와 독일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바위와 모래의 광활한 지역에 들어갔다. 머레이는 나중에 그 지형이 너무 텅 비고 특징이 없어서 지도가 '해도처럼, 해안선을 제외하고는 텅 빈 종이'와 같았다고 썼다. 상황의 열악함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단단하고 적대적인 모래 세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그는 사막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것의 선명한 선, 불타는 일출 - '거대한 태양 원반이 지평선에서 솟아오를 때의 시원하고 고요한 순간, 푸른 하늘의 광활함' - 그리고 가장 밝은 시간에 모래가 하얗게 표백된 것처럼 보이는 빛이었다.

1942년, 마지막 휴가에서 머레이는 기자의 큰 피라미드의 '아레트'를 올랐고, 그 후 스팅크스의 대담한 새로운 등반을 시도했다. 그러나 외교가 대담함을 이겼다. 그는 나중에 '턱이 주요 장애물이었고, 우호적인 국가의 바위에 피톤을 사용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행동처럼 보였다'고 보고했다.

그 해 8월에 재미는 끝났다. 리비아 사막의 가마솔로 알려진 지역에서 그의 대대는 롬멜의 판저 부대에 맞서 일련의 보병 진격의 첫 번째에 투입되었다. 그 전술은 제1차 세계 대전의 유물이었고, 그 구식 때문에 치명적이었다. 머레이와 그의 부하들은 평지 반 마일을 걸어서 낮에 탱크에 맞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머레이는 나중에 그 진격을 회상했다. 먼저, 지원 포병의 포격이 멈춘 후의 귀머거리 같은 정적이었다. 그다음 적의 총이 걷는 사람들에게 열렸다: 총알의 쉬익거리는 소리,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 박격포에 맞은 닭이 가득한 트럭, 깃털이 하늘로 날아갔다. 머레이가 그의 전령에게 말을 건네려고 돌아보았을 때, 담배를 피우고 있는 다리 한 쌍만을 발견했다.

머레이는 그날을 살아남았지만, 600명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다. 대대는 거의 쉬지 못했다. 6월 28일, 스코틀랜드에서 새로운 병력으로 보충된 후, 엘 알라메인에서 서쪽으로 40마일 떨어진 엘 푸카의 해안 위치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롬멜의 진격하는 15판저 부대에 맞서 선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머레이와 그의 부하들은 얇은 참호를 파고, 그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가벼운 이포드 대포를 위치시켜 다가오는 마크 IV 탱크를 막았다. 해가 지고 첫 별빛이 매끄러운 사막 하늘을 밝힐 때, 롬멜의 부대의 접근 소식이 도착했다. 그들은 반 시간 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머레이의 여단장이 어둠 속에서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오늘 밤까지 당신은 죽은 고기이거나 포로가 될 것이다.'

참호의 반쯤 어두운 빛 속에서 머레이는 주머니를 뒤져 적에게 유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의 프리즘 나침반, 신분증, 지도학적 노트들. 그는 그의 주소록을 찾아 훑어보았다. 대부분의 이름들은 산악인들이었다. 그 순간, 머레이는 나중에 회상했다, 그는 산과 무어를 누비며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기억의 갑작스런 접근에 압도되었다. 기억은 '순간의 번쩍임 속에서 완전히, 그 산들... 그들을 통해 흘러가는 아름다움이 충전된' 형태로 그에게 왔다.

독일 탱크의 첫 번째 물결은 한 시간 후에 도착했다. 절벽 위의 어두운 덩어리, 그들은 나란히 스무 대가 모래를 오커빛 구름으로 휘젓는 그들의 트랙으로 사막을 가로질렀다. 이포드 대포의 포탄은 황혼 속에서 빛나며 하늘을 가로질러 짧은 붉은 호를 그렸다. 탱크들은 기관총을 발사하여 연합군 트럭의 뒤편과 참호 및 포탄 진지로 흰 트레이서를 쏟아 부었다. 대학살은 신속하고 거의 완전했다. 다시 한번, 머레이는 해를 입지 않았다. 그는 포로가 되어 이탈리아 북부의 치에티 주에 있는 캠프 21로 600마일을 날아갔다.

치에티 수용소의 조건은 가혹했지만 끔찍하지는 않았다. 책도 있고 음식도 있었지만 결코 충분하지는 않았다. 잔인함은 필요에 의한 것이지 무분별하지는 않았다: 경범죄에 대해 총잡이로 구타를 당했지만 이보다 더한 일은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치였다: 서쪽으로, 수용소의 경계 울타리 너머로, 머레이는 아브루치 산맥을 볼 수 있었다. 그 산들은 그의 수감 기간 동안 그의 희망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겨울이 오자 첫 눈이 그란 사소, 그 범위에서 가장 높은 산에 내려앉았고, 머레이에게는 하늘에 떠 있는 파란색과 하얀색의 유령처럼 보였다, 그것은 '울타리와 오두막과 보초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 정신의 자유'의 화신이었다.치에티에 도착한 지 10주 후, 머레이는 글쓰기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수감되기 전에 알고 있던 야생의 장소들, 그가 사랑하고 탐험했던 스코틀랜드의 산들, 무어들, 능선들에 대해 썼다. 종이는 부족했다. 처음에는 화장지에 썼지만, 수용소의 식단으로 인해 그것도 부족했다. 그러다 머레이의 어머니가 적십자를 통해 '가장 얇은 인도 종이에 인쇄된' 셰익스피어 전집을 보냈다. 그는 그 책의 페이지들을 - 수용소 남자들에게 매우 소중히 여겨졌던 페이지들의 단단함과 질감을 바탕으로 - 화장지 뭉치에 쓸 수 있는 빈 화장지와 교환했다.

머레이가 그곳에서 한 글쓰기는 일종의 꿈꾸기였다: 과거를 회상하고 스코틀랜드의 넓은 공간, 그의 '바위, 눈, 얼음뿐만 아니라 높은 고원과 긴 능선, 넓은 무어'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그의 체력이 약해지면서 상상력은 더 강해졌다. 그는 개방성과 자유에 대한 추억으로 활기를 느꼈다. 치에티에서 시작된 머레이의 책, '스코틀랜드의 등산'은 야생이 마음에 미치는 힘을 표현한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10월에 머레이는 바이에른의 모스부르크 수용소로 이동되었다. 포로들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구역에 수용되어 있었으며, 봄비는 침대방에서 '빈민가의 쥐들처럼' 지냈다. 벼룩과 이가 번성했고 밤에는 침대에서 벌레들이 우글거렸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 글을 썼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이동되어 이번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가장 서쪽 지방인 보헤미아의 수용소로 옮겨졌다. 도착했을 때 포로들은 수색을 받았다. 머레이가 가지고 있던 화장지 원고 뭉치가 발견되었고, 그는 게슈타포 장교들에 의해 심문을 받았다. 그들은 그것이 병력 이동에 대한 암호화된 계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원고를 압수하여 파괴했다. 머레이의 정신적인 회복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심각한 타격이었다.

수감 생활 동안 머레이의 건강은 악화되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적십자사의 구호 물품이 수용소에 도착하지 못했다. 머레이의 수용소 사람들은 검은 빵과 감자, 순무의 최소한의 배급으로 버텨야 했다. 가능할 때마다 그들은 개와 고양이를 잡아 그들의 살을 먹었다. 결핵이 만연했다. 머레이는 한 친구에게 보낸 슬픈 편지에서 '나는 실제로 해골이다'라고 썼다. 그의 손톱은 비타민 결핍으로 인해 골판지처럼 변했다. 그의 머리카락은 얇아졌다. 그는 몇 걸음 걷지 않고 쉬어야 했으며, 전혀 걷지 않으면 어지러웠다. 그는 전쟁을 살아남더라도 다시는 산을 오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꿈꾸기는 계속되었다. 보헤미아에서, 비밀리에, 그는 도착했을 때 압수당한 원고를 다시 시작했다. 음식 부족으로 인해 약해졌지만, 상상력은 억제받지 않았다. '나는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망설임도 버렸다'고 그는 회상했다. 그의 눈을 감으면 산과 골짜기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헤더의 보라색 황혼, 한때 수영했던 해안 호수의 녹색 물, Buachaille의 정상에서 본 금빛 하늘을 꿈꿨고, 그런 것들에 대해 글을 썼다. 그의 수감 마지막 해 동안, 그는 '나는 한 번도 자신을 감옥에 갇힌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 나는 산에서 살았고, 그곳의 자유를 누렸다'고 회상했다.

1945년 5월 1일, 머레이의 수용소는 미국 군대에 의해 해방되었다. 석방된 지 한 달 후, 머레이는 Rannoch Moor로 돌아갔다. 몸은 약해졌지만 정신은 고양되어 있었고, 그는 다시 Buachaille을 올라 그 정상에서 머물렀다. 그는 Moor를 내려다보며 그 넓은 하늘의 공간에서 머물렀다.

겨울이 일찍 찾아오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나는 물길이 얼어붙은 무어를 가로질러 스키나 아이스 스케이트로 횡단하는 것을 계획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1950년대에 한 번 이루어진 일로, 나는 단일 요소를 사용하여 그러한 넓은 땅을 횡단하는 아이디어를 매우 좋아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횡단하기로 동의한 아버지는 계획에 두 가지 작은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 둘 다 아이스 스케이트를 탈 줄 몰랐고, 날씨가 습해서 우리는 가라앉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의 논리의 힘을 인정했다. 걸어서 가야 했다.

우리는 런던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야간 기차를 함께 탔다. 당신을 잠자는 동안 다른 땅으로 데려다주는 기차의 로맨스, 그 에드워드 시대의 기적은 아직도 느껴졌다. 우리는 이우스턴 역을 출발했다. 패스트푸드 점, 안내 방송의 스쿼시 볼 빙봉 소리, 구석에 구겨진 맥주 캔, 혼잡한 인파들을 뒤로하고, 차가운 공기, 흰 안개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사슴을 맞이하며 깨어났다. 안개는 저지대에 고여 있었다. 래녹 역에서, 우리는 기차에서 내려 무어로 향했다.

그날 아침, 우리는 무어의 습관과 의무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행의 직선을 거부했다. 머레이가 알고 있듯이, 무어에서의 진행은 느리다. 대부분의 무어는 호수이며, 많은 부분이 피트 하그이고, 호수와 피트 하그 사이에는 검은 물이 번쩍이는 개울이 구불구불 흐른다.

우리는 하그에서 하그로 뛰어 넘었고, 피트 균열을 뛰어넘고, 개울과 투박한 땅 사이의 미로를 헤치며 나아갔다. 나중에 이름 없는 강을 건널 때, 나는 큰 송어가 그의 연못을 가로질러 화살처럼 지나가면서 수면 위로 체브론 물결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다. 때때로, 우리는 수천 년 된 고대 소나무의 큰 휘어진 뿌리를 피트에 묻힌 채 발견했다. 나는 그런 큰 소나무 중 하나를 타 보고 싶었다고 생각했다. 피트 늪지는 목재를 보존하기 때문에,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미 해군은 뉴저지의 스파그넘 늪지에서 회수된 3,000년 된 화이트 시더 원목을 사용하여 모터 어뢰정의 선체를 건조했다. 나는 한 그루의 그루터기에서 피트에 의해 진한 갈색으로 물들인 돌고래 모양의 나무 조각을 하나 취했다. 또 다른 검은 독에서 나는 눈동자처럼 박혀 있는 흰 돌을 찾았다. 나는 그것을 깨끗이 닦고 걸으면서 손에 돌려보았다.

무어의 광활함과 자기 유사성은 거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켰다. 객체와 움직임은 그것의 소박함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우리가 움직이는 공간이 너무 광황해서, 나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가늠하기 위해 무어 서쪽의 산들을 올려다보려고 했을 때, 우리가 전혀 나아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마치 얼음판 위에서 걷는 탐험가들처럼, 우리의 발이 들어올렸던 정확한 위치에 떨어진 것 같았다.

하루가 저물어가자, 우리는 '티 나 크로아흐'라는 이름의 폐허에서 잠시 쉬었다. 한쪽 구석에 녹슨 철제 화로가 있었다. 그 외에는 내부가 텅 비어 있었다. 그곳은 푸른 냄새가 났다. 우리는 돌에 앉아 문 없는 입구를 통해 밖을 바라보았다. 록 레이든 중앙에 늘어선 일련의 나무섬 너머로 검은 코리를 볼 수 있었다. 사슴, 눈, 안개가 모여 있는 고지대이며, 그곳에 모인 공기는 깊은 차가운 푸른색을 띠고 있었다. 나는 전쟁 후 무더운 8월 날에 혼자서 무어를 가로질러 걸어간 머레이를 부러운 생각으로 돌아보았다. 그는 중간에 모든 옷을 벗어 백팩에 넣고 나머지 날은 알몸으로 걸었으며, 가끔 호수와 호수 만에서 목욕을 했다. 어쩌면, 나는 상상했다, 적절한 겨울 날 - 밝은 햇살, 바람 없음 - 이 모든 것을 결합하여 무어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알몸으로 아이스 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겨울이 일찍 찾아오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나는 물길이 얼어붙은 무어를 가로질러 스키나 아이스 스케이트로 횡단하는 것을 계획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1950년대에 한 번 이루어진 일로, 나는 단일 요소를 사용하여 그러한 넓은 땅을 횡단하는 아이디어를 매우 좋아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횡단하기로 동의한 아버지는 계획에 두 가지 작은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 둘 다 아이스 스케이트를 탈 줄 몰랐고, 날씨가 습해서 우리는 가라앉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의 논리의 힘을 인정했다. 걸어서 가야 했다.

우리는 런던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야간 기차를 함께 탔다. 당신을 잠자는 동안 다른 땅으로 데려다주는 기차의 로맨스, 그 에드워드 시대의 기적은 아직도 느껴졌다. 우리는 이우스턴 역을 출발했다. 패스트푸드 점, 안내 방송의 스쿼시 볼 빙봉 소리, 구석에 구겨진 맥주 캔, 혼잡한 인파들을 뒤로하고, 차가운 공기, 흰 안개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사슴을 맞이하며 깨어났다. 안개는 저지대에 고여 있었다. 래녹 역에서, 우리는 기차에서 내려 무어로 향했다.

그날 아침, 우리는 무어의 습관과 의무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행의 직선을 거부했다. 머레이가 알고 있듯이, 무어에서의 진행은 느리다. 대부분의 무어는 호수이며, 많은 부분이 피트 하그이고, 호수와 피트 하그 사이에는 검은 물이 번쩍이는 개울이 구불구불 흐른다.

우리는 하그에서 하그로 뛰어 넘었고, 피트 균열을 뛰어넘고, 개울과 투박한 땅 사이의 미로를 헤치며 나아갔다. 나중에 이름 없는 강을 건널 때, 나는 큰 송어가 그의 연못을 가로질러 화살처럼 지나가면서 수면 위로 체브론 물결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다. 때때로, 우리는 수천 년 된 고대 소나무의 큰 휘어진 뿌리를 피트에 묻힌 채 발견했다. 나는 그런 큰 소나무 중 하나를 타 보고 싶었다고 생각했다. 피트 높지는 목재를 보존하기 때문에,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미 해군은 뉴저지의 스파그넘 늪지에서 회수된 3,000년 된 화이트 시더 원목을 사용하여 모터 어뢰정의 선체를 건조했다. 나는 한 그루의 그루터기에서 피트에 의해 진한 갈색으로 물들인 돌고래 모양의 나무 조각을 하나 취했다. 또 다른 검은 독에서 나는 눈동자처럼 박혀 있는 흰 돌을 찾았다. 나는 그것을 깨끗이 닦고 걸으면서 손에 돌려보았다.

무어의 광활함과 자기 유사성은 거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켰다. 객체와 움직임은 그것의 소박함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우리가 움직이는 공간이 너무 광황해서, 나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가늠하기 위해 무어 서쪽의 산들을 올려다보려고 했을 때, 우리가 전혀 나아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마치 얼음판 위에서 걷는 탐험가들처럼, 우리의 발이 들어올렸던 정확한 위치에 떨어진 것 같았다.

하루가 저물어가자, 우리는 '티 나 크로아흐'라는 이름의 폐허에서 잠시 쉬었다. 한쪽 구석에 녹슨 철제 화로가 있었다. 그 외에는 내부가 텅 비어 있었다. 그곳은 푸른 냄새가 났다. 우리는 돌에 앉아 문 없는 입구를 통해 밖을 바라보았다. 록 레이든 중앙에 늘어선 일련의 나무섬 너머로 검은 코리를 볼 수 있었다. 사슴, 눈, 안개가 모여 있는 고지대이며, 그곳에 모인 공기는 깊은 차가운 푸른색을 띠고 있었다. 나는 전쟁 후 무더운 8월 날에 혼자서 무어를 가로질러 걸어간 머레이를 부러운 생각으로 돌아보았다. 그는 중간에 모든 옷을 벗어 백팩에 넣고 나머지 날은 알몸으로 걸었으며, 가끔 호수와 호수 만에서 목욕을 했다. 어쩌면, 나는 상상했다, 적절한 겨울 날 - 밝은 햇살, 바람 없음 - 이 모든 것을 결합하여 무어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알몸으로 아이스 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중에, 50피트 높이의 언덕 위에서, 우리는 검은 호밀빵과 치즈를 먹으며, 글렌 코의 입구에서 수 마일 떨어진 곳에서 모이는 비 구름을 지켜보았다가 우리 쪽으로 펼쳐져 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끼가 덮인 바위에 부드럽게

부는 바람에 벨벳처럼 매달려 있는 이끼 조각들이 흔들렸다. 아버지가 서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땅 위를 빠르게 사냥하는 새매 한 마리가 보였다. 그러다 그 새가 멈추어 날개를 접고 꿀렁꿀렁 헤더를 향해 추락했다.

그 무어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자, 우리가 있는 넓은 공간은 주변의 땅을 베이컨처럼 여러 색의 줄무늬로 나누었다: 하늘의 줄무늬, 흰 구름의 줄무늬, 어두운 땅의 줄무늬,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는 황갈색 무어가 있었다. 그 계절에 무어의 색깔은 미묘하고 다양했다. 멀리서 보면 얼룩덜룩했고, 가까이에서 보면 그 개별 색상이 분리되었다: 오렌지, 황토색, 빨강, 겨자색, 그리고 모든 것을 감싸는 윤기 나는 흑색 피트였다.

우리에게는 하루 종일 걸려 무어의 중심이라 여겼던 아브헨 바, 즉 강이 로크 레이돈으로 흘러들어가는 지점에 도달했다. 어스름이 무어 위에 퍼지면서 우리는 그곳에 멈추어 작은 텐트를 쳤다. 어둠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지나온 땅과 아직 남아 있는 길, 무어가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두려움과 경외의 묘한 혼합에 대해 얘기했다. 우리가 잠을 청한 곳은 강의 곡선에 따라 형성된 작은 홍수 평야로, 겨울 홍수로 인해 파여 평평하게 깎인 곳이었다. 무어의 광활한 공간 한가운데 있는 피난처였다.

인구가 조밀한 영국에서는 탁 트인 공간을 찾기가 어렵다. 수평선을 끝없이 이어진 선으로 경험하거나 먼 곳의 푸른 빛을 볼 수 있는 장소에 닿기가 쉽지 않다. 넓은 공간은 드물지만 그 중요성은 그에 비례해 크다. 끊임없이 거리와 건물 사이에서 생활하는 것은 폐쇄감과 짧은 시야감을 유발한다. 무어와 바다, 산의 넓은 공간은 이를 상쇄시킨다. 무어에서 돌아올 때면 시야가 양옆으로 스무도씩 넓어진 듯한 가벼움을 느낀다. 방해받지 않는 공간은 단지 자유와 개방감에 대한 편리한 은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런 감정을 강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넓은 공간을 경험하는 것은 위대한 평야에서 자란 미국 소설가 윌라 캐더가 말한 '높은 평야의 끊임없는 확장과 모든 평평한 땅의 무한한 그리움'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역사적으로 사랑받지 못했던 넓은 공간을 사랑하려면 캐더처럼 때로는 아름다움이 연속적인 공간의 기능일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러한 지역들이 그들만의 능동적인 확장성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아무도 없는 바다에, 땅이 보이지 않는 맑은 날 바다의

곡률을 본 사람은 그 깊은 경이로움을 알 것이다. 바다가 아래로 내려앉은 가장자리와 그릇 모양의 곡선을 형성한 모습을 말이다.

넓은 공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경험으로는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마음속에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라녹 무어는 그런 공간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곳 중 하나다. 만약 커브리아에서 레이크 디스트릭트를 잘라 무어에 놓는다면, 무어는 그것을 수용할 것이다. 무어 같은 장소의 영향력은 측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토머스 하디는 *귀향*에서 이렇게 썼다. '가시덤불 위에 오후와 밤 사이 눕는 일, 시선이 험지의 정상을 벗어나지 않는 곳에 머물면서 그 주변 모든 것이 선사시대부터 별들만큼 변하지 않은 채로 존재해 온 것을 아는 일은 변화 속에서 방황하고 억누를 수 없는 새로움에 시달리는 마음에 평정을 안겨주었다.'

머레이에게는 감옥 생활 동안 그 산과 무어의 넓은 공간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그는 이곳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믿음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1977년에 글래스고 출신 열아홉 살 청년 로버트 브라운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후 며칠 동안 부패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구타를 당해 자백을 강요당했다. 브라운은 25년을 복역했고 두 번의 항소가 기각된 후 2002년에야 유죄 판결이 뒤집어졌다. 석방된 후 그는 가장 먼저 로몬드 호숫가로 가서 남쪽 호숫가의 바위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바람을 얼굴로 느끼고 물결과 산을 바라보았다. 브라운은 체포되기 전날 이 호숫가에 나갔었다고 한다. 25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이 넓은 공간과 그 장소의 기억이 감옥 생활 동안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그 기억을, 그가 말하기를, 머릿속 '비밀 공간'에 간직하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우리는 평지에 대해 상상력의 편견을 가진 경향이 있다. 무어, 툰드라, 황야, 초원, 습지, 스텝 등이 그렇다. 1725년 여행을 했던 다니엘 디포에게, 챗스워스 위의 무어는 끔찍했다. "폐허 같고 울부짖는 황야"라고 불렀다. 디포의 반응은 부분적으로 평지와 친해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평지는 눈길을 돌려도 대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해석을 삼켜버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것들은 광대한 공간을 배경으로 인식을 고정시키는 문제, 어떻게 그런 장소를 의미 있게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와 맞닥뜨리게 한다. 우리는 이런 장소를 받은 경외심,

반은 무시로 표현하기 위해 "척박하다, 비어 있다, 무한하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넓고 투명하며 펼쳐진 풍경을 언어로 붙잡기 어려워한다.

이 넓은 땅과 교감하는 것이 어려운 탓에 그 가치를 주장하고 지키는 것이 어려웠다. 그 결과, 2세기 동안 영국에서 저지대 황야의 면적, 예를 들어 도싯 지방의 험준한 땅, 캔녹 체이스, 뉴 포레스트는 4분의 3이나 감소했고, 경작지나 개발지로 변해 버렸다. 살아남은 황야 대부분은 공공지로서 지정을 유지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지역으로, 사유화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의미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식량 증산을 위한 ‘승리를 위한 경작(Dig for Victory)’ 운동이 펼쳐지면서 많은 황야 지역이 새롭게 경작지로 바뀌었다. 다른 일부 넓은 땅들은 솔즈베리 평원이나 이스트 앵글리아의 브렉랜즈처럼 군사적 목적으로 봉쇄되어 사격 연습장, 탱크 훈련장, 혹은 비행장으로 전환되었다. 기이한 보드민 무어는 황야로서 그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었지만, 1800년에서 1946년 사이에 면적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이 밖에도 채석 작업으로 인해 사우스 슈롭셔의 티터스톤 클리와 같은 황야가 산업적 침탈을 당해 그 면적이 크게 감소했다. 현재, 노스 요크셔 무어와 노섬벌랜드 무어의 거의 6분의 1이 상업적 목적으로 소나무가 심겨져 있다. 특히 영국 전역에서 황야는 점점 그 공간을 잃어가고 있다.

잉글랜드 북부의 펜닌 무어는 노팅엄, 더비, 셰필드, 맨체스터, 리버풀 등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자연과 맞닿을 수 있는 피난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는 대부분이 사유화된 켄 사냥터로 운영되었다. 1932년 베니 로스만이 주도한 ‘킨더 스카우트 대중 무단 침입’ 사건 이전까지, 이 무어 지역은 주로 부유한 사냥꾼들만 접근할 수 있었고, 관리인들이 도보 여행자를 불법 침입자로 간주하여 감시하곤 했다. 이 관리인들은 또한 포식 동물들을 대량으로 사냥했다. 맹금류, 족제비과 동물 등은 수만 마리씩 사살되었고, 그 사체들은 사냥 기록부에 무심하게 기록되었다.

무어의 현재 모습과 성격은 그 역사적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스태니지 무어에서는 빅토리아 시대의 소유주였던 셰필드의 윌슨 가문이 바위에 흙을 새겨 빗물이 고일 수 있도록 했다. 이 흙 덕분에 어린 켄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고, 그 흔적은 지금도 바위에 남아 있다. 또 다른 흔적은 매년 꾹을 먹이기 위해 어린 헬러(heather) 새싹을 키우기 위해 넓은 무어가 불태워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위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아일랜드의 무어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야생의 장소로 다가왔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도시의 한계를 떠나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수수께끼처럼 엮인 하천과 습지, 돌 사이로 날아다니는 윗이어(wheatear) 새, 햇빛 속에서 은빛 불꽃처럼 반짝이는 운모 모래가 깔린 개울가의 장면이다.

무어 위에서, 자정 무렵 나는 돌이 물에 굴러가는 듯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강을 건너는 사슴 떼가 우리와 몇 야드 떨어진 곳을 지나며 다리를 물에 담그며 돌을 굴리며 지나가는 소리였다.

새벽이 되자 하늘이 맑아지고 기온이 떨어졌다. 우리는 인디고와 청동빛이 섞인 새벽빛 속에서 걸었고,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로흐 바의 북쪽 해안선을 따라 만과 만을 돌아들었다. 구름 사이로 빗줄기가 얇게 내려와 무어의 광활함을 찾는 탐색등처럼 보였고, 때로는 그 거대한 공간을 재는 레이저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몇 시간 동안, 무어는 그 독특한 형태를 드러내며 이상한 형태와 추상적인 모양들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만 곡선 같은 형상이 자주 나타났다. 호숫가의 황금빛 모래 해변, 눈 덮인 높은 산을 배경으로 검은 언덕의 호를 이루는 능선, 오르치 다리 근처에 있는 폐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자작나무 가지의 곡선, 다리의 호 그리고 젖어 빛나는 오래된 길의 곡선이 모두 그런 예였다.

그 몇 시간 동안, 무어는 자신을 독특한 형태와 추상적인 모양으로 드러내 보였다. 곡선이 바로 그런 형태 중 하나였다. 작은 황금빛 모래사장이 로흐의 만을 둘러싸고 있었고, 높은 산의 눈 덮인 배경 앞에 어두운 언덕이 아치 형태로 서 있었다. 오르치 다리 근처에 있는 폐가 창을 통해 보이는 자작나무 가지, 그 다리의 둥근 모양, 그리고 멀리 젖어 빛나는 오래된 길이 곡선을 이루고 있었다. 삼각형 모양도 자주 나타났다. 사슴의 가지 뿔, 나무와 바위를 감싼 엷은 녹색 이끼의 분기 형태, 로흐 레이든의 형태, 이탄의 틈과 균열, 그리고 몇 안 되는 가지가 부러진 오래된 스코틀랜드 소나무들 속에서 그 삼각형 모양이 반복되었다.

걸으며 나는 내 지도를 떠올렸다. 지도가 점점 모양을 갖추가고 있었고, 장소마다 선명해지고 있었다. 내가 아직도 달하지 못한 야생의 장소들을 상상하려 애썼다. 각각의 장소는 공간과 생물의 독특한 배열, 그리고 바위와 빛의 각도로 인해 특별했다. 내가 만드는 지도는 완성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었지만, 그 미완성된 상태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모든 야생지를 포함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땅 자체와 같은 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보르헤스가 그의 경고적인 이야기 '과학의 정확성에 대하여'에서 묘사한 지도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지도가 완벽한 수준에 도달하여 한 도시의 모든 지역을 차지할 만큼 거대한 지도를 만드는 제국을 배경으로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도 제작 길드는 제국 전체와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각 지점과 일치하는 지도를 제작하게 된다. 그러나 그 지도는 무용지물이자 억압적인 존재가 되어버려 결국 태양과 겨울의 변덕스러운 날씨에 맡겨지게 되고, 서부 사막에서는 여전히 동물과 거지들이 거주하는 그 지도 조각이 남아 있다.

나는 한 세기 후에 누군가 내 지도를 읽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했다. 그때쯤 인간과 야생의 관계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어쩌면 포스터의 부고 기사가 실현되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야생이 이 섬들에서, 어쩌면 전 세계에서 멸종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내 지도는 누군가에게 구식이자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아마 읽히더라도, 초기 탐험가들의 지도를 귀엽고 진부하게 여기는 것처럼, 어떤 꿈과 걱정을 담은 과거 세계의 유산으로서 애정 어린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제는 대륙의 내부에 황금빛 언덕이 그려져 있고, 알려진 영역의 여백에 바다 괴물이 춤추는 초기 항해자의 지도처럼 말이다.

1960년에 역사가이자 소설가인 월러스 스티그너는 '야생 편지'라 불리게 된 글을 썼다. 이는 미국의 '야외 여가 자원'에 대한 연방 정책 검토에 관여한 한 공무원에게 보낸 호소문이었다. 나중에 스티그너의 에세이 모음집에서 이 편지는 출판되었다. 스티그너는 야생지는 경제적 가치나 자원 가치를 초월하는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생지는 인간 너머의 세상을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숲, 평원, 초원, 사막, 산맥 같은 자연은 인간에게 '자기 외부에 있는 커다란 무언가의 감각'을 일깨워 주는 존재라고 했다.

그러나 스티그너는 그러한 풍경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적었다. '자연의 잔재들'이 '점점 침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침식의 대가는 계산할 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모든 야생지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독립적

이고 고유한 존재로 인식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나무와 바위, 흙으로 이루어진 환경의 일부, 다른 동물들과 형제 관계에 있는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잠시라도 성찰과 휴식을 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기술적 개미집 생활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질주'에 완전히 종속될 것이다.

스티그너의 에세이를 읽고 라녹에 오기 직전의 일주일 동안 그 글이 나에게 강하게 울림을 주었다. 무어의 광활한 공간에서 그의 생각이 더욱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스티그너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썼다. "우리는 단지 야생 지역을 바라보기 위해 차를 세우는 정도의 일만 하더라도 야생의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야생은 우리에게 생명체로서의 제정신을 되찾게 해주고, 희망의 지리학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오 무렵, 우리는 무어의 서쪽에 있는 도로에 도착했고, 나는 이끼가 묻고 지친 채로 아스팔트 가장자리에 섰다. 그때 큰 냉동 트럭들이 지나가면서 신선한 채소를 실어 북쪽의 그레이트 글렌을 향해 나아갔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건너온 늑지의 사람들이었다.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의 각진 선과 화려한 색감이 무어에서 긴 시간을 보낸 후에는 마치 외계의 물체처럼 낯설었다.

좀 더 위쪽의 갓길에서는 사람들이 차를 멈추고 소규모로 무어를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5. Forest

무어에서 돌아온 후, 돌고래 모양의 야생 소나무 조각을 책상 위 선반에 두었다. 나의 수집품들 사이에서 하나의 발견물로 자리잡았다. 대부분 돌들로 이루어진 작은 폭풍 해변 같았고, 그 외에도 황야의 풀 몇 가닥, 느릅나무 꽃송이, 그리고 개머루 꽃가루가 넘쳐 나오는 버드나무 꽃송이가 있었다. 나는 그 소나무 조각을 다른 물건들의 한쪽 끝에 두었고, 그것은 매듭처럼 단단한 눈으로 나를 지켜보았다. 나무의 결은 마치 물처럼 흐르고 있었으며, 표면에는 작은 구멍들이 있었다. 이 구멍들은 나무 조각 내부의 미로 같은 복잡한 통로로 이어지는 입구처럼 보였고, 그 안으로 작아져서 탐험하고 싶은 꿈을 자극했다.

내가 돌과 다른 물건들을 모으는 습관은 가족에게서 이어받은 것이었다. 부모님은 수집가였다. 우리 집 선반과 창문턱에는 조개껍데기, 자갈, 강과 바다에서 떠내려온 나무 조각들이 가득했다. 기억이 닿는 한, 우리는 걷는 동안 물건들을 주워 모았다. 수백만 명이 하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때로는 목적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갈대로 배를 만드는 전문가였다. 어린 시절 강변이나 호숫가에서 돛을 달고 무게를 맞추어 배를 만드는 시간을 보냈다. 자갈을 벨러스트로, 잎사귀를 돛으로, 가시를 핀으로 삼아 작은 배들을 만들어 하나씩 띄우기도 하고, 대규모로 띄우기도 했다.

이제는 수집이 기억을 되살리고 야생지를 연결하는 방법이 되었다. 15세기 지도 제작자들은 특정 영역을 자세히 설명하지만 이곳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하지 않는 ‘아이슬라리온’이라는 지도 유형을 개발했다. 아직 여행의 초기 단계에서 나는 도달한 장소들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나타날지, 어떤 예상치 못한 패턴과 울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다. 물건들은 나의 풍경을 느슨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지나치게 얽히지 않게 해주었다.

그 물건들은 또한 다음 행선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했다. 소나무 조각은 수천 년 된 고대 나무의 뿌리에서 보존된 것으로, 스코틀랜드 고원을 뒤덮었던 거대한 북부 소나무 숲의 일부였을 것이다. 이 멋진 선사시대의 숲은 대체로 기후 변화로 인해 사라졌다. 서늘하고 습한 대서양 시기 동안 확산된 이탄 늪이 숲을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지금은 몇몇 남아 있는 조각뿐이고, 그중 가장 넓은 것이 라녹 무어 동쪽에 있는 코일 두브, 즉 블랙 우드이다.

무어에서 블랙 우드로 이동하는 것은 대비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다. 습기에서 숲으로, 늪에서 소나무로, 개방성에서 폐쇄성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또한 시간적으로 뒤로 가는 것이다. 몇 천 년 전에는 무어가 숲과 비슷했을 테니까. 그래서 12월 초, 첫 붉은 날개가 이스트 앵글리아에 도착하고 집 근처 산사나무가 탐스러운 열매로 반짝이는 시기, 나는 다시 북쪽으로 향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블랙 우드의 북쪽 로흐 경계에서 숲으로 들어갔다. 외곽 나무들의 처마 밑을 지나며 숲에 들어섰다. 겨울은 공기에 날카로운 기운을 더했고, 하늘은 하나의 푸른 빛으로 가득했다. 평평한 태양빛이 떨어지

고, 차가운 바람이 그 빛 속을 휘몰아쳤다. 나는 숲의 지도를 가져가지 않았다. 블랙 우드에서는 길을 잃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수천 에이커에 달하는 이 숲은 고대 빙하가 갈아낸 산맥의 북쪽 비탈에 펼쳐져 있다. 최악의 날씨에서도 중력은 블랙 우드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숲의 모든 경사선이 로흐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날 하루 종일 숲 속을 돌아다녔다. 좌우로 방향을 바꾸며 나아갔고, 숲의 수많은 비밀 세계를 따라 이동했다. 뻑뻑하고 거의 빛이 들지 않는 덤불숲, 통로와 복도 같은 길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는 작은 빈터와 공터를 지나쳤다. 작은 개울을 뛰어넘고, 젖은 이탄 쿠션과 헤어캡 이끼가 두터운 쿠션처럼 깔린 늪을 건너며 다녔다. 울창하게 서 있는 초록빛의 주니퍼, 오리나무, 마가목, 그리고 드물게 검은 체리나무도 보였다. 소나무는 파충류의 피부 같은 껍질을 가지고 있었고, 매운 듯한 송진 냄새를 풍겼다. 가지에는 녹색과 은빛의 이끼가 자라 마치 뿔이나 조개, 해초, 뼈, 누더기 같은 환상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나무들 사이에는 헤더와 고사리가 자랐다. 나는 가느다란 마가목을 올라가고, 주변으로 주황색 열매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며 거기에서 잠시 쉬었다. 오래된 키 큰 자작나무는 꼭대기 근처에서 내 무게에 흔들렸다.

때때로 숲이 너무 뻑뻑해서 방향 감각을 잡기 어려웠다. 오직 경사 방향으로만 나아갈 방향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코루이스크의 산등성이처럼 나무 사이로 먼 풍경이 열렸다. 높이 솟은 지형이나 멀리 빛나는 물이 눈에 들어왔다. 흔히 들리는 소리라곤 바람에 나뭇가지들이 서로 맞부딪히며 나는 소리뿐이었다. 마치 집안의 파이프들이 가열될 때 나는 소리처럼 삐걱거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케임브리지셔의 너도밤나무 숲을 떠올렸다.

어스름이 내릴 무렵, 바람이 잦아들었다. 구리빛 구름들이 천천히 머리 위로 지나갔고, 구름의 높은 차가운 부분에는 여전히 저녁 햇빛이 닿아 있었다. 그러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가벼운 눈송이들이 공기 중에 소리 없이 내려앉아, 모든 위쪽 면을 덮었다. 한 송이 눈이 내 검은색 재킷 위에 떨어져 녹아내렸다. 마치 유령이 벽을 통과하듯 사라졌다.

눈이라니! 나는 오래전부터 눈 속의 오래된 숲을 사랑해 왔다. 겨울의 숲은 내게 엄격한 아름다움과 모험의 세계였다. 《놀라움의 상자》에서 늑대들이 뛰쳐나오는 눈 덮인 추격 장면, 《스노우 퀸》의 나니아의 얼어붙은 숲, 그리고 성 가웨인이 성탄절 전야에 그린 나이트를 찾아가는 와일드우드가 그랬다. 존 메이스필드와 루이스는 언제나 겨울의 숲에서 모험을 찾았다.

공터에서 큰 폭풍에 쓰러진 자작나무를 발견했다. 쓰러졌지만 여전히 살아 있는 나무였다. 아마도 2~3년 전쯤 쓰러졌을 거라고 추정했다. 그동안 자란 가지들이 줄기에서 줄을 맞춰 건강하게 뻗어 있었다. 줄기의 남쪽 측면에는 갈색 반달 모양의 버섯들이 동전처럼 박혀 있었다. 나는 뿌리 덩어리 쪽으로 돌아갔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커다란 흙벽을 뿌리째 뽑아낸 듯했다. 뿌리의 윗부분은 단단하게 굳어 암석처럼 되었고, 그 위로 잔디가 자라면서 약 한 발 정도의 지붕을 이뤘다. 눈은 점점 더 빠르게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뿌리 덩어리의 아래쪽을 청소한 후, 떨어진 소나무 가지들을 주워서 부드러운 매트리스처럼 깔았다. 그런 다음 큰 가지들을 뿌리 덩어리의 옆쪽에 기대어 대충 삼각형 모양의 임시 현관을 만들었다.

숲이라는 넓은 보호막 안에 작은 은신처를 만들 수 있어 정말 기뻐다. 은신처 안에서 따뜻한 침낭 속에 몸을 누이고 지붕 너머로 내리는 눈을 지켜보았다. 눈발은 점점 더 조용히, 더 무겁게 떨어지고 있었고, 이렇게 많은 움직임이 얼마나 적은 소리를 낼 수 있는지가 신기했다. 잠들기 직전의 그 시간, 나는 마치 숲에 의해 포근하게 받아들여진 듯 느껴졌고 숲이 밤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둠은 모든 물체에 털처럼 스며들었고, 눈송이는 조용히 떨어졌으며, 나무 사이로 재빠르게 움직이는 새들의 동작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난 셰퍼드가 한때 케언곰 산맥에 대해 쓴 글을 떠올렸다. “산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산에서 잠을 자야 한다. 잠에 빠져들면서 마음은 맑아지고, 몸은 녹아내리며, 오직 지각만이 남는다. 잠들기 전의 이 고요한 지각의 순간은 하루 중 가장 보람 있는 시간 중 하나다. 잡념이 사라진 나는 땅과 하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야생을 이해하려면 먼저 숲을 이해해야 한다. 역사학자 로버트 포그 해리슨이 쓴 것처럼 문명은 “숲 한가운데서 스스로의 공간을 개척했다.” 수천 년 동안 “숲의 어두운 변두리는 도시 경계와 문명의 한계를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상상력의 광대한 영역을 형성했다.” 진정한 원시림이 사라진 것은 신석기 시대였지만, 거의 모든 문화의 창조 신화는 숲이 우거진 지구를 경이롭게 회고한다. 세계 문학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고대 수메르 서사시 《길가메시》에서, 길가메시는 우루크에서 숲의 수호자 후와와를 처치하라는 임무를 받고 삼나무 산으로 여행을 떠난다. 로마 제국 역시 처음 도시가 자리 잡은 숲을 배경으로 자신을 규정했고, 창립자들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숲에서 나왔다는 전설도 있다. 로마 제국은 그 후 고대 세계의 밀림을 파괴해 나갔다.

야생과 숲의 관계는 어원에서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두 단어는 ‘숲’을 뜻하는 원형 단어 *wald*와 고대 게르만어 뿌리 단어 *walthus*에서 파생된 것으로 여겨진다. *Walthus*는 고대 영어에 다양한 형태로 들어와 ‘야생의 장소’와 ‘숲이 우거진 장소’를 모두 지칭하게 되었고, 늑대, 여우, 곰 같은 야생 동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곳을 의미했다. 라틴어 단어 *실바*는 ‘숲’을 뜻하며, 여기에서 야생성을 뜻하는 단어인 *savage*도 파생되어 야생의 의미가 확장되었다.

숲이 쇠퇴함에 따라 세계의 야생성도 줄어들고 있다. 8천 년 전, 홀로세 초기에는 영국이 나무의 지배 아래 있었다. 숲은 영국 전역에 퍼져 있었다. 이 덮개는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꽃가루 기록, 기후 데이터, 야생 초식동물이 있을 때 나무가 자리 잡는 현황에 대한 현대 연구를 통해 숲이 중간중간 초원 같은 공터와 함께 이루어졌고, 인간이 처음 도착하기 전부터 초지나 공터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 범위는 실로 방대했다.

이 섬들의 역사에는 수많은 시기가 존재했으며, 그중에서도 내가 콜리 더브에서 체험한 깊은 숲, 식물학자 올리버 래컴이 말하는 야생림이 전부였던 때가 있었다. 가장 최근의 숲의 지배는 마지막 빙하기의 최후 몇 세기였으며, 수천 년 동안 땅의 남쪽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덮었던 빙하가 후퇴하기 시작한 때였다.

이 수천 년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상상 속 시간 측정기를 재설정하고 빙하의 시간, 나무의 시간을 생각해야 한다. 수년 동안 기온이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빙하의 회색 등 위로 떨어지는 따뜻한 폭우와 북쪽으로 물러나는

푸른 빙하의 선단을 상상해야 한다. 빙하의 전선 부근에 있었을 세기 동안의 소음은 굉장했을 것이다. 갈라지는 얼음의 비명, 떨어져 나가는 빙하의 굉음들.

빙하는 물러나기 시작했다. 대략 한 세기에 50마일, 즉 연간 반 마일씩 후퇴했다. 빙하는 떠나면서 변형된 지형을 남겼다. 낮아진 언덕과 깊어진 계곡. 그들의 입구에서 펼쳐지는 푸른 빙하의 녹은 강들이 새롭게 드러난 땅을 가로질러 깊은 수로를 파내고 카운티 크기의 호수를 채웠다.

최후의 빙하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빙하는 너무나도 조밀하고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그 무게로 인해 땅을 지구의 맨틀 안으로 눌러 넣었다. 생각해 보라: 이로 인해 한 나라 전체가 지구 안으로 가라앉게 된 것이다. 반대로, 빙하가 녹고 그 무게가 사라지면서 땅은 서서히 올라왔는데, 어떤 곳에서는 수백 피트에 달하는 상승이 일어났다. 지질학자들은 이 현상을 ‘등압 반동’이라고 부른다. 반동은 북부 영국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이는 남해안에서는 반대로 해안선이 침하되는 결과를 낳았다.

빙하가 녹으면서 땅이 기울어졌고, 동시에 바다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빙하는 전 세계의 물 중 상당 부분을 저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반구의 녹아내리는 빙하에서 나오는 물이 바다에 합류하면서 해수면은 최대 400피트까지 상승했고, 세계 지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한 변화 중 하나가 현재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해협을 잘라내고 채우는 과정이었다. 고대에 백악, 잉글랜드 남부의 모래와 점토로 이루어진 육교는 강에 의해 침식되었다. 해수면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물은 강 계곡으로 넘쳐들었고, 언덕을 갉아먹다가 결국에는 육교를 완전히 덮쳐 버렸다. 영국은 섬이 되었고, 군도가 형성되었다.

빙하는 육지에서 후퇴해갔다. 작은 갈래, 손가락 같은 얼음덩이, 넓은 빙하층이 불규칙하게 북쪽으로 후퇴하며 사라졌다. 빙하가 떠난 땅은 처음엔 완전히 불모지였다. 노출된 모래와 자갈의 퇴적물, 뿔아진 바위들, 빙하의 얼음 격자 구조로 여과되고 정리된 금속이 풍부한 자갈, 모래와 점토가 반짝거리는 광활한 영역이었다. 물웅덩이들은 깊은 곳에서 은빛 물로 빛나고 있었다. 물웅덩이에서 이끼 높이 두껍게 자리 잡으며, 그 높이 결국은 척박한 식물로 덮이기 시작했다.

한편, 빙하가 가장 적게 남긴 언덕 위, 새로이 빙하가 부수어낸 비옥한 광물질 토양 위에서는 아직 빗물에 의한 침식이 일어나지 않아, 깊은 숲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왜소한 숲이었고, 버드나무, 자작나무, 소나무 같은 비교적 북극의 나무들이 쉽게 퍼져 빙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움푹한 곳과 틈새에서 자리를 잡았다.

숲은 점점 깊어져 빙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강 계곡을 따라 두터운 알더나무가 자라고, 늪지대에는 버드나무가, 그 사이엔 떡갈나무, 라임나무, 개암나무, 물푸레나무, 참나무들이 자리 잡았다. 숲의 북도에는 잡목이 가득 찼고, 숲의 경계에는 수풀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해서 빙하에서 새롭게 태어난 젊고 유연한 숲이 형성되었다. 푸른 빙하는 초록 숲으로 변해갔다. 숲이 불길에 휩싸여 타오를 때면, 태양의 에너지가 다시 공기 중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아침 일찍, 블랙 우드의 은신처에서 깨어났다. 길고 어수선한 밤을 보낸 뒤, 눈은 이제 멎어 있었고, 사방은 푸짐한 눈더미로 뒤덮여 있었다. 눈이 매우 부드럽고 가벼워서 아무것도 자국을 남기지 않고 지나갈 수 없었다. 눈은 모든 흔적을 남겼다. 심지어 눈 위에 떨어진 낙엽조차 자신이 놓인 곳에서 작은 움푹 패인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서 눈이 납작하게 눌리고 킁킁 소리가 났다. 숲의 소리들은 마치 가장자리가 둥글게 다듬어진 것처럼 둔하게 들렸다. 고드름이 맺힌 개울에서는 작은 눈 언덕들이 돌과 나뭇가지, 그리고 개울 속의 섬 위에 형성되어, 그 주변으로 물이 복잡한 삼각주를 이루며 흘렀다. 여기저기서 마주친 임도는 희고 매끈한 길로 변해 있었다.

쓰러진 소나무의 뿌리 밑에서 반쯤 묻혀 있는 평평한 직사각형 돌을 발견했다. 흰색과 연기색의 층이 교차하는 미세한 줄무늬로 이루어진 돌이었다. 나는 땅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어 얼어붙은 진흙을 털어냈다. 돌은 손바닥에 쏙 들어왔고, 손가락을 닫아 쥐고 걸음을 옮기자 손에 무게감을 더해주는 듯했다. 하늘은 맑고 창백했으며, 빛은 쌓인 눈에서 차가운 밝음을 띠고 있었다. 숲을 지나 남쪽과 위쪽으로, 나무 위로 솟아오른 2,000피트 높이의 절벽을 향해 걸어갔다.

오전 10시경 남서쪽 숲 가장자리에 도달했고, 절벽 정상까지 오르기 시작했다. 눈이 햇풀 줄기에 겹겹이 쌓여 있어서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미끄러웠다. 이탄 진흙 표면에는 삼각형 얼음 패턴이 형성되어 있었고, 큰 웅덩이는 동심원 형태로 얼어 있어 마치 그 깊이를 스스로 보여주는 지도 같았다. 공기는 쌀쌀했고, 내 울 니트가 고마웠다.

정상에 도착해 바위 위에 앉아 하얗게 펼쳐진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숲 아래에서 새들이 울며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눈보라가 언덕 아래와 저 멀리 북쪽과 서쪽으로 불어가고 있었다. 그 사이사이로 해가 비추며 푸른 황금빛 구름 사이로 뜨겁게 빛나고 있었다. 북쪽으로 하얀 봉우리가 줄줄이 이어져 있었다. 남쪽에는 보이지 않지만 Schiehallion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피라미드형 모습 덕에 1774년 천문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인 네빌 마스킬린이 지구의 밀도를 측정하는 실험의 주제로 삼은 봉우리였다.

눈이 덮이지 않은 것은 길게 이어진 호수뿐이었지만, 그마저도 반사된 색깔로 인해 은백색의 빛깔을 띠고 있었다. 호수 위에 둥글게 솟은 언덕 위로 일부 숲이 벌목되어, 마치 수술을 준비하는 듯 면도가 끝난 두개골처럼 보였다.

깊은 숲이 얇아지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4000년경, 농업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였다. 신석기 시대에 인간의 개입이 기후 변화에 이어 숲의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당시 농부들은 도구와 방목 동물, 그리고 가능한 곳에서는 불을 사용해 숲을 밀어내기 시작했고, 경작 가능한 땅을 확보한 후, 개간된 땅을 갈고 손으로 쟁기질하여 목초지를 만들었다. 청동기 시대에는 목재 작업 기술이 더 정교해져, 늪지와 습지를 가로지르는 통로를 만드는 데 목재를 사용하고, 인공 섬이나 크라노그를 만들고, 외피가 있는 오두막을 건설하며, 청동을 제련하거나 종교적 목적을 위해 '우드헨지'라고 불리는 나무 기둥 형상을 세우기도 했다.

깊은 숲은 신석기 시대부터 줄곧 쇠퇴해왔다. 영국은 청동기 시대인 기원전 2천년경 숲 면적이 절반에 이른 지점을 맞이한 것으로 추정된다. 덤스데이 북에는 잉글랜드의 산림 면적이 전체 면적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2세기 반 동안 인구 증가로 인해 숲에 대한 압력이 더 커졌다. 1497년, 존 카봇이 브리스톨

에서 아메리카로 항해했을 때 ‘가득 찬, 깊고 어두운 숲이 해안선을 따라 침묵 속에 끊임 없이 서 있는 것’을 목격했지만, 영국과 아일랜드의 나무 덮개는 대부분 발, 목초지, 초원, 황무지, 늪지로 대체된 상태였다.

나무는 연소와 건축을 위해서도 필요했다. 배와 집을 짓고 철을 제련하기 위해서는 숯을 만드는 데 상당량의 목재가 필요했다.**1592년에 엘리자베스 1세의 사법 담당자로서 뉴 포리스트를 관리했던 존 맨우드는 “이 나라가 세워지기 이전에는 온갖 종류의 야생 동물들로 가득 찬 숲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숲은 점차 파괴되었으며,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숲과 은신처는 매일 파괴되었다”고 관찰했다. 스코틀랜드의 산림 벌채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해져, 17세기에는 스코틀랜드가 목재를 순수입국이 될 정도였다. 아일랜드에서는 다람쥐가 멸종되었고, 거대한 느릅나무와 장대한 물푸레나무, 고상한 소나무들이 사라졌다.

20세기에 이르러 깊은 숲은 본격적으로 종말을 맞이했다. 그동안 서구에서 숲은 전례 없는 속도로 고갈되었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거의 무분별하게 숲이 베어졌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전쟁을 위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50만 에이커의 활엽수 숲이 벌채되었다. 수백 년간 발전해 온 벌목 기술과 숲 관리 기술, 규칙적인 벌목과 새순 자르기 및 전정 작업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 1945년 이후 30년 동안, 이른바 ‘메뚜기 해’ 동안, 남아 있던 고대 반자연림의 절반이 플랜테이션, 개발, 경작지로 바뀌면서 사라졌다.

이제 깊은 숲은 이 섬에서 사라졌고, 사실 대부분은 기록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깊은 숲이라는 개념에 이끌리고 있다. 깊은 숲은 건축, 예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학 속에서 여전히 강렬하게 살아 있다. 무수히 많은 탐험과 항해가 깊은 숲을 배경으로 이루어졌고, 숲속의 작은 숲과 숲의 빈터에서 동화와 꿈속의 이야기가 펼쳐져 왔다. 숲은 언제나 경계를 넘나드는 장소,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또는 한 시기에서 다른 시기로 넘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키플링의 이야기 ‘떡 오브 푸크스 힐’에서 아이들이 영국 역사를 거슬러 여행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오크, 애쉬, 손나무의 권리’를 통해서였다.

숲과 다른 세계를 연관 짓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 아니다. 숲에서 걷다 보면, 그것이 상호 연관된 장소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색, 질감, 형태의 시각적 유사성이 넘쳐난다. 쓰러진 나뭇가지가 자신이 자리잡은

개울바닥의 삼각형 모양을 되비춘다. 노란색 가을 느릅나무 잎은 검은 새의 눈 주변에서 같은 색조를 발견한다. 숲의 다른 모습들이 서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숲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는 서로 다른 시간과 세계가 연결될 수 있다.

숲과 숲속의 자연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섬과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상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숲이 베어지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일 때 사라지는 것은 고유한 종과 서식지뿐만 아니라, 고유한 기억과 사고 방식도 함께 사라진다. 숲은 다른 야생 장소처럼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고 방식이나 존재 방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다르게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블랙 우드에 오기 전 나는 나무에 관한 전설과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읽었다. 나무와 숲에 가해진 손상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무와 숲에 대한 경이로움의 이야기들도 접했다. 예를 들어, 중국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의 벌목공들은 도교 철학에 따라 인간과 다른 종 사이의 자연스러운 연속성을 중시하여 벌목할 때마다 나무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나무가 건축물에 잘 쓰일 것이라는 약속을 하곤 했다.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그는 플라타나스를 매우 사랑하여 그리스와의 전쟁 중 군대를 이끌고 가던 중에 군대의 진군을 멈추고 수천 명의 병사와 함께 한 그루의 아름다운 플라타나스 나무를 감상하며 숭배했다고 한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콩코드 근처에서 숲과 깊은 인연을 느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그곳의 나무들을 찾아오며 기쁘게 8~10마일의 깊은 눈을 헤치고 비치나무나 노란 자작나무, 그리고 자신이 잘 아는 소나무들을 만나기 위해 숲을 걸어다녔다. 네브라스카 평원으로 이주한 윌라 캐더는 자신이 태어난 버지니아의 숲을 그리워하며 독일 이웃에게 가서 카탈파 숲을 감상하거나 땅이 갈라진 곳에서 자라는 큰 느릅나무를 보러 가곤 했다. 나무가 드문 그 나라에서 우리는 나무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 나무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확인하곤 했다. 숲을 찾는 것은 그 자체로 경이로움과 애착의 원천이 되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1933년 프랑스의 비행사이자 작가였던 앙투안 생텍쥐페리가 리비아의 부족 지도자 몇 명을 사막에서 열대 지방인 세네갈로 비행기를 태워 데려갔을 때의 일이다. 그들이 비행기에서 내린 후 활

주로 가장자리에서 멀리 뻗어 있는 정글을 보고는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들은 이전에 한 번도 이런 나무들을 본 적이 없었다.

개별 나무는 그 자체로도 놀랍지만, 나무가 무리를 이룰 때 그 경이로움은 훨씬 더 커진다. 숲을 걷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나무나 드넓은 시골은 나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도시의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한 말을 비판하는 경험이다. 나무들은 시간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켜내고 관리하며, 그 안에 있을 때 시간은 또 다른 방식으로 체험된다. 나무의 신중함과 인내는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미국의 활엽수림이 사람을 기다리며 7천만 년을 보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일지라도, 그 사실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다. 거대한 참나무가 자라는 데 300년, 살아가는 데 300년, 죽어가는 데 300년이 걸린다는 지식을 아는 것은 생각을 보다 깊이 있게 변화시킨다.

사고는 기억처럼 인간의 뇌 속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물에도 깃든다. 생각의 물리적 대응물이 사라지면 그 생각이 나 그 가능성도 사라지게 된다. 숲과 나무가 파괴되면, 무심코든 고의로든, 상상력과 기억도 함께 사라진다. 시인 W. H. 오든은 이를 알고 있었다. 그는 1953년에 "문화는 그 나라의 숲보다 더 나은 수준이 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오든의 경고는 그가 이를 언급한 지 불과 몇 년 뒤에 입증되었다. 1960년대 후반, 치명적인 네덜란드 느릅나무병이 미국에서 수입된 느릅나무 통나무들과 함께 잉글랜드 남해안에 도착했다. 사우샘프턴 근처의 해안에서 병이 퍼지기 시작해 빠르게 내륙으로 확산되었다. 2~3년 만에 남부 지역에서는 살아남은 커다란 느릅나무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10년 안에 약 3천만 그루가 죽었고, 1976년 가뭄의 해는 전염병의 정점을 찍었다. 그 후에도 수백만 그루가 더 죽어갔다. 느릅나무는 완전히 멸종하지는 않았지만, 영국 풍경에서 가장 독특한 존재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느릅나무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 중에는 화가 존 컨스터블이 있었다. 컨스터블은 나무를 사람처럼 사랑했다. 그의 친구이자 전기 작가인 C. R. 레슬리는 종종 컨스터블이 멋진 나무를 보면 아름다운 아이를 품에 안는 듯한 기쁨

으로 이를 감상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모든 나무 중에서 그는 느릅나무를 가장 사랑했다.

에식스와 서퍽의 경계에 있는 데덤 계곡에 컨스터블이 살았는데, 이곳에는 느릅나무가 그 높이의 두 배나 되는 나이를 가졌고, 수백 피트나 자라 있었다. 더 작은 느릅나무들은 울타리를 뚫고 자라며 스테 강변을 따라 데덤 교회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옛 길, 가축 물이 길을 따라 길을 찾도록 표식으로 심어져 있었다. 이는 나무들이 길잡이이자 지도 마커 역할을 한 것이다.

컨스터블은 느릅나무를 집중적으로 스케치하고 연구했다. 그는 나무 아래에 형성된 그늘진 녹색의 둥근 잎사귀들과 가장 큰 느릅나무의 경우 하늘을 덮는 덩굴 모양의 나뭇잎을 기록했다.

1821년, 그는 햄스테드 히스에서 한 느릅나무를 그렸는데, 나무의 잎을 잊은 듯 캔버스는 줄기와 땅과 만나는 지점에 집중되어 있다. 이 나무는 영국 느릅나무임이 분명하다. 줄기의 껍질이 다각형 패턴으로 갈라져 있다. 이는 마치 바크가 거북의 등껍질처럼 갈라지며, 이파리가 다채로운 자연의 모양을 만들어낸다.

나무 껍질은 미묘하고 유연한 물질로, 쉽게 간과되기 쉽다. 나무의 껍질은 사람의 피부와도 같아서 접힘과 팽창의 흔적이 드러난다. 마치 피부가 늘어나면서 조각조각 갈라지거나 판처럼 벗겨지듯이 말이다. 느릅나무 껍질의 1년간 느린 움직임을 촬영한다면, 그것이 움직이고, 일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틈새가 벌어지고 균열이 생기며, 균열이 끊임없이 열리고 닫히는 모습을 말이다. 컨스터블이 알았던 것처럼, 나무의 껍질 속에 전체의 세계가 드러날 수 있다. 껍질에 가까이 다가가면, 그 틈과 가장자리 속으로 들어가 하루 종일 여정을 떠날 수 있는 풍경을 발견할 수 있다.

컨스터블의 햄프스테드 히스의 느릅나무 그림은 영속성과 일시성을 연구한 작품이다. 나무가 땅 속으로 파고들어 몇 십 년 동안 머물러 온 그 땅에서 앞으로 오랫동안 있을 것이라는 영속성이 있다. 뒤의 풀밭 위로 잠시 비치는 빛에는 일시성이 있다. 그리고 이 느릅나무의 운명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지 속에도 일시성이 있다.

네덜란드 느릅나무병이 창궐하는 동안, 콘스터블의 이름 없는 느릅나무는 햄프스테드 히스의 다른 느릅나무들, 스투어 강가를 따라 자란 느릅나무들, 또는 데덤 베일의 지평선을 따라 솟아 있던 느릅나무들과 함께 죽었다. 그의 햄프스테드 느릅나무는 다른 모든 느릅나무처럼 죽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푸른빛이 도는 이파리들이 오글거리며 갈색으로 말라붙고, 그 다음에는 가지들이 시들고 늘어지며, 마침내 껍질이 딱딱해지고 벗겨져 아래의 맨 줄기 나무가 드러났을 것이다. 그 나무는 너무도 매끄럽고 창백하며 빛나는 모습이어서 마치 뼈를 연상케 했다.

네덜란드 느릅나무병은 효율적으로 퍼지는 곰팡이다. 이 병의 포자는 원산 느릅나무 껍질 딱정벌레인 *Scolytus scolytus*에 의해 퍼진다. 딱정벌레는 죽어가는 느릅나무의 껍질에 알을 낳고 유충은 죽은 껍질 아래에 갬러리라고 불리는 터널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곰팡이는 이러한 갬러리 벽에 끈적한 포자를 생성하여 유충이 성충이 되어 나오면 이미 포자로 오염된 상태가 된다. 성충이 되어 건강한 느릅나무로 날아가 살아 있는 껍질을 먹으면, 곰팡이가 빠르게 나무의 뿌리 시스템을 통해 퍼져나가며 나무의 물 전도 시스템을 막고, 목마름으로 죽게 만든다. 그 결과, 딱정벌레는 차례로 나무를 찾아다니며 파괴하고, 왼편의 참나무나 오른편의 물푸레나무는 놔둔 채 느릅나무만을 공격한다.

딱정벌레들이 남긴 흔적은 기묘하게 아름답다. 딱정벌레는 결혼실을 파내어 그곳에서 번식을 하며, 갬러리들이 중심 채널에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며 유충에 의해 파여진다. 이로 인해 어두운 태양에서 방사된 듯한 형태나 날개 또는 측수를 가진 생물의 흔적 같은 형상이 만들어진다. 딱정벌레는 이 독특한 선형 패턴과 묘비의 문구를 새기는 숙련된 석공의 작업 간의 유사성으로 인해 '조각가'라고 불렸다.

느릅나무의 몰락은 예언의 실현처럼 보였다. 느릅나무는 오랫동안 죽음과 연관되어 왔기 때문이다. 시골 전설에서는 악운의 나무로 알려져 있었으며, 나무 아래에 오래 서 있으면 머리 위로 가지가 떨어질 것이라는 속설이 있었다. 강한 옆 가지가 하나씩 뻗어나는 나무의 습성 덕에 느릅나무는 인기 있는 교수대 나무로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오랫동안 관을 만드는 기본 목재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죽음과의 연관성은 역사에 의해 진실로 바뀌었다. 이제 영국에서는 느릅나무가 죽음과 너무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콘스터블의 그림을 보며 느릅나무에 대한 애가로, 미래의 과거를 연구하는 작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느릅나무들은 죽었고,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땅의 표면도 변화했다. 익숙한 지평선이 변모했고,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알아오던 풍경에서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느릅나무는 멸종되지 않았다. 작은 나무들은 여전히 울타리 사이에서 뺏어나가며, 측면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12피트 이상 자란 나무는 대부분 감염되기 쉬운 상태가 되지만, 느릅나무는 죽음과의 연관성만큼이나 생존력도 대단하다.

블랙 우드로 떠나기 직전, 나는 서퍽에 있는 로저를 만나러 가서 숲과 특히 느릅나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1976년 가뭄의 해에 태어난 나는 네덜란드 느릅나무병이 덮쳐 숲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직접 경험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질병이 일어났을 때의 느낌이 궁금했다.

로저는 나무와 산림학에 대한 지식이 방대했다. 그는 단지 독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무를 심고, 접목하고, 가지를 치고, 꺾고, 깎아가며 평생을 보내며 얻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나무에 대한 그의 인식은 공동체적이었다. 로저는 왕처럼 추앙받는 소나무나 참나무와 같은 나무를 숭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나무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고 보았다. 달리 말해, 로저에게 나무는 인간이었고, 인간은 나무와 같았다. 이는 수백 가지의 복잡하고 깊은 유대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로저는 나의 부모님처럼 수집가였다. 그는 지식과 책을 수집했으며, 친구와 물건을 수집했다. 그의 집인 월넛 트리 팜의 모든 선반과 장식장은 로저가 여행 중에 발견했거나 그의 많은 친구들이 가져온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새둥지, 부싯돌 돌멩이, 물수리 깃털, 양털 뭉치, 석회 화살촉, 초기 비행기에서 떼어낸 나무 프로펠러 등이 그 안에 있었다. 나는 몇 년 동안 그에게 여러 돌을 가져다주었고, 그는 나에게 다른 돌을 돌려주었다. 마치 손으로 전해지는 광물 엽서와도 같았다.

그와의 만남은 내가 느릅나무병이 초래한 변화와 그로 인해 느릅나무가 풍경에서 사라진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다.

농장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은 중고품이나 수집품이었다. 구조는 철거된 헛간에서 구해온 참나무 들보로 이루어져 있었고, 바닥은 재활용한 돌판으로 덮여 있었다. 독립형 옷장, 책장, 서랍장 역시 재활용된 물건들이었다. 로저는

타고난 수집가였다. 그는 농장 경매와 헌 물건 가게를 다니고, 쓰레기장이나 강둑, 숲까지 뒤지며 뜻밖에 유용하거나 아름다운 물건들을 찾아내곤 했다. 그의 발견물은 집과 초원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집 뒤에는 그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커다란 주철 욕조가 있었는데, 여름철이 되면 벽돌 테라스에 호스를 펼쳐 놓아 햇볕에 데워진 물을 채워 이 욕조에서 목욕을 즐겼다.

그날 로저를 만나러 갔을 때, 우리는 그의 주방에서 점심을 먹으며 사과 주스를 마셨다. 로저는 느릅나무의 사라짐과 자신이 알던 나무들이 죽어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중에는 1976년에 그가 6학년 학생들에게 *하워즈 엔드*를 가르쳤던 노퍽의 루커리 농장의 거대한 느릅나무도 있었다. 이듬해 그 나무는 병에 감염되어 시들기 시작했고, 두 해 뒤에는 잎이 다 떨어지고 회색으로 변해 베어졌다.

식사를 마친 후, 로저는 새롭게 찾아낸 보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다며 나를 그의 헛간으로 데리고 갔다. 어두운 빛 속에서 나는 서로 다른 길이의 굵은 금속 관이 작업대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로저는 기대에 찬 얼굴로 설명했다. 그것들은 로컬 서퍽 교회의 오르간 파이프였는데, 원래는 고철로 처분될 뻔했으나 로저가 그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그것들을 사왔다고 했다. 그는 중간 C 파이프의 좁아진 아랫부분에 증기 호스를 연결하고 윗부분을 덮어, 가구 제작에 사용할 나무를 부드럽게 휘어지게 하는 증기 실로 활용하는 법을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다른 작업대에 놓인 느릅나무 그릇을 집어 들고 1987년 10월 폭풍에 쓰러진 느릅나무 줄기에서 깎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저는 느릅나무가 가구용으로 훌륭한 목재라며, 탁자나 바닥으로 변신한 후에도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느릅나무의 생명력이 특별하다며 언젠가는 영국 땅에서 다시 자라날 것이라고 했다. 인간이 사라지거나 물러난 후 언젠가는 느릅나무가 다시 솟아날 것이라는 확신을 전했다.

블랙 우드의 절벽 위에서 나는 아래 숲을 내려다보며 나무들이 바람 속에서 각기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큰 참나무들은 원형의 형태를 유지한 채 가지들이 중심을 둘러싸고 원을 그리며 회전하고, 잎들이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다. 반면에 더 얇고 어린 소나무들은 떨어져 활처럼 휘어졌다. 나는 코시모처럼 지상에 발을 대지 않고 나무 꼭대기들만 밟고 블랙 우드를 가로지를 수 있을지 상상해 보았다.

서쪽으로는 라녹 무어의 초입이 은빛으로 반짝이며 시야를 넘어 넓어지고 있었다. 북쪽, 호수 반대편 도로 너머에는 침엽수림이 뺏뺏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규칙적이고 직선적인 모양새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인공적이었다. 뽕뽕 얼어붙은 눈이 덮인 개간지의 망가진 땅과 나무 그루터기, 기계의 흔적들은 전쟁터처럼 보였다. 나는 서서 눈을 털어내고 산비탈을 내려와 바람에 흔들리는 숲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시인 겸 음악가 아이버 거니는 19세기 말 농촌 글로스터셔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의 가족에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랬듯이, 긴 시골 산책은 일상의 즐거움이었다. 거니는 그가 존경했던 시인 에드워드 토마스처럼 글로스터셔의 강둑, 숲, 울타리를 탐험하며 자연사에 익숙해졌다.

거니의 글로스터셔 풍경에 대한 깊은 사랑은 그의 시와 편지, 그리고 젊은 시절 그가 남긴 일기에 녹아 있다. 그는 비가 온 뒤 맑게 빛나는 들판을 관찰했고, 광활한 세번 강이 바다로 돌아가는 모습을 묘사했다. 시골 풍경 중에서도 특히 숲을 사랑했으며, 그곳을 ‘초록과 금빛이 어우러진 길’로 묘사했다. 시인이자 작곡가였던 거니에게 나무와 음색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가 음악으로 만든 시들 중에는 자신의 *여름 숲의 노래*와 A. E. 하우스먼의 *가장 아름다운 나무*도 포함되어 있었다.

1915년, 거니는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다. 처음으로 배치된 곳은 이프르 전선의 사라스였다. 거니가 이프르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전투지로서 이미 2년을 지나 있었고, 그가 발견한 풍경은 그가 떠나온 시골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암울한 모습이었다.

거니가 이프르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2년 동안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그가 발견한 풍경은 그가 떠나온 글로스터셔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전쟁 전 사라스는 강과 과수원, 숲과 초원이 어우러진, 거니의 글로스터셔를 닮은 곳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2년간의 전투는 그 지역을 완전히 변모시켰다. 진흙은 고체와 액체의 중간 상태로, 사람을 익사시키거나 동시에 묻어버릴 듯한 위협을 느끼게 했다. 거니가 사용한 군사 지도의 몇몇 곳에는 이전 풍경의 이름들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죽음이나 피할 수 없는 위협을 상징하는 이름들로 가득했다. 샤프넬 코너, 크럼프 농장, 헬파이어 코너, 하프웨이 하우스, 데드 도그 농장, 배틀 우드, 생추어리 우드. 하지

만 실제로 그곳에 숲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이름들은 단지 유령처럼 남아 있을 뿐이었다. 나무들은 참호를 보강하기 위해 베어졌거나 포탄에 의해 뽑혀나갔고, 그 흔적으로 남은 것은 단지 나뭇가지와 잎과 껍질이 없는 앙상한 나무 줄기들이었다. 땅에는 마치 뿌리처럼 인간의 뼈가 튀어나와 있었고, 피는 흙을 붉게 물들였다.

고향으로 보낸 편지에서 거니는 그곳이 그가 떠나온 시골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무언가가 반대로 뒤집힌 풍경처럼 보인다고 표현했다. 그는 “전장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수많은 시체들, 체계적인 참호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서로 연결된 포탄 구멍들... 그리고 그 어디에도 랜드마크가 보이지 않는다”고 썼다. 이프르 전선의 풍경은 거니가 사랑했던 나무들이 가진 그 영속성, 그들의 뿌리 깊이 자리 잡은 고요함과 안정감과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다.

참호 속에서 그는 자신의 글로스터셔 풍경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는 “코츠월드, 그곳의 작은 숲들”을 향한 ‘절실한 그리움’에 마음이 찢기고 가슴이 아팠다. “이곳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나 자신에게는 때로 죽음이 이러한 삶보다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썼다.

그러나 거니는 전쟁을 생존했다. 그는 가슴에 총상을 입고 독가스를 마셔 부상당한 후 후송되었으며, 종전 후 광란의 창작 시기를 맞이했다. 1919년부터 1922년까지 그는 약 900편의 시와 250곡의 노래를 썼다. 걷기와 영감은 거니에게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시골을 밤낮으로 걸었으며, 때로는 몇 시간씩 걸었다. 그가 이 시기에 보낸 편지에는 특히 밤에 걷기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다. 밤에 그는 대부분이 찾지 않는 ‘희고 고요한 길’을 걸으며, 그것을 ‘발견’의 한 형태로 묘사했다. 그는 “별뿔별들이 갑자기 노래의 영감처럼 하늘을 가로질러 내리는 밤”에 대해 썼으며, 너무 조용하여 소나무와 너도밤나무가 한숨을 쉬지 못했던 그 깊이 있는 공기의 감동에 대해 기록했다.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아름다운 가시나무 덩굴”과 달빛을 배경으로 한 너도밤나무의 “검푸른 녹음”, 골짜기 높은 곳에서 고요하게 하늘에 떠 있는 “부드러운 하늘 가장자리”, 그리고 “차가운 새벽에 붉은 빛이 도는 구름 띠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땅, 공기, 그리고 물”이 “노래와 말의 진정한 원천”이라고 말했다.

1922년이 되자 거니의 정신 상태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그는 폭식과 단식을 반복하며 빠르게 체중을 감량했고, 행동도 점점 예측 불가능하게 변했다. 가족들은 결국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 처음에는 글로스터의 한 시설에, 이후에는 켄트의 다퍼드 병원으로 옮겨졌다. 두 병원 모두에서 그는 병원 부지의 경계를 넘어 걷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에드워드 토마스의 미망인 헬렌 토마스는, 1차 세계대전 중 아라스 전투에서 사망한 남편을 추억하며 1920년대 후반에 다퍼드 정신병원을 여러 차례 찾아가 거니를 만났다.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 그의 광기가 너무 극심해, 간단한 대화만 나눌 수 있었고 자신이나 에드워드와의 관계에도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다음 방문 때 헬렌은 남편이 가지고 다니던 글로스터셔의 풍경이 담긴 지도 한 장을 가지고 갔다. 헬렌은 거니가 그 지도를 보자마자 그녀에게서 받아 침대 위에 펼쳤다고 기억했다. 그의 더운 작은 타일 바닥의 하얀 병실에 햇살이 바닥에 무늬를 만들어내며 비치고 있었다. 둘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과거에 에드워드와 함께 걸었던 길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꿈 속을 걷듯' 과거를 따라 걸어 나갔다.

그들의 이 상상 속 산책은 한 시간 이상 이어졌고, 거니는 지도를 통해 단순한 그림이 아닌 실제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 헬렌은 “그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사랑하는 고향을 되찾아보고 있었어요... 산길, 언덕, 작은 숲을 찾아내며 그의 마음의 눈 속에서 그 모든 풍경을 또렷하고 현실감 넘치게 볼 수 있었죠.”라고 기억했다. 그녀는 “우리처럼 제정신으로는 결코 따라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가 사랑하던 오솔길과 들판을 걸었고, 지도 위의 길을 따라 짚어가며 길을 찾아갔습니다... 이 기이한 산책에서 그는 에드워드와 동행했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이나마 그에게 에드워드를 다시 살려주는 매개체가 되었고, 그들이 함께 방랑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되찾아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헬렌은 거니를 여러 번 더 찾아갔고, 매번 그녀는 남편의 손으로 부드럽게 구겨지고 사용된 지도를 가지고 가서 거니와 함께 침대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상상의 나라를 함께 걸어 다녔다.

그 겨울날 오후 늦게 블랙 우드를 떠나 숲의 북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나무에서 나와 걷는 순간, 자갈이 나무 테이블 위에 뿌려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여섯 마리의 까마귀, 그 중 두 마리는 새끼였다, 낮은 소나무 가지에서 뛰어올라 눈 위로 내려앉고는 다시 날아올라 서로 소란스럽게 가족끼리의 수다를 나누고 있었다. 땅 위에서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넓게 벌린 발로 균형을 잡듯이 걸었고, 머리를 기울여 나를 지켜보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눈 위의 빛은 그들의 깃털에 희미한 남색 빛을 더해주었고, 눈처럼 하얀 광택이 그들의 눈에 맺혀 있었다.

까마귀와 모든 까마귀과 새들 - 큰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까치들 - 은 비교적 최근에 영국에 자리 잡은 종들이다. 신석기 시대 인간의 손에 의해 깊은 숲이 개척되기 시작했을 때 이곳에 자리 잡은 것으로 여겨진다. 인간과 야생이 고대부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이다. 조밀한 숲은 까마귀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들은 혼합된 덮개와 개방된 공간을 선호하는 생명체들이다.

그곳에 서 있는 동안, 두 어린 까마귀가 신선한 눈 위로 걸어 나와 장난스럽게 서로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마치 자석의 반대극처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두 왕처럼 말이다.

6. River-Mouth

엔리, 코루이스크, 라녹, 그리고 블랙 우드. 섬, 계곡, 황무지, 그리고 숲. 각각의 풍경은 나를 놀라게 했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거나 때로는 바라지 않았던 방식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나는 또한 각 장소로부터 무언가를 배웠고, 예기치 않은 발음과 형상으로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연결성과 패턴 또한 땅 자체에 의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정한 풍경이 특정한 생각을 품고 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마치 특정한 돌이나 식물을 품고 있듯이 말이다.

그럼에도 나는 더 북쪽으로 가고 싶었고, 처음의 자석 같은 방향성을 따라 계속 나아가려 했다. 오래전부터 나를 강하게 움직이게 했던 황량하고 벗겨진 영토들로 들어가고 싶었다. 그래서 블랙 우드에서 돌아온 지 몇 주 후, 나

는 다시 캠브리지에서 북쪽을 향해 기차를 타고 올라갔다. 가는 길에 오든의 시를 읽으며: 북쪽의 밤 향해, 눈보라의 행진, 바람이 부는 머리봉 아래의 거처에 관한 시였다.

내 계획은 스코틀랜드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겨울 여행을 하는 것이었다. 그곳은 펜틀랜드 피르스 쪽으로 북쪽을 향하고 있다. 그 위도에서는 잉글랜드 남쪽 해안보다 북극권에 더 가깝게 될 것이다. 나는 바닷물에 침식되지 않도록 이 폭풍이 치는 해안을 지키고 있는 모인 편암, 캄브리아 석영암, 루이스 편마암의 견고한 가장자리 바위를 따라가고 싶었다. 그렇게 하여 본토에서 가장 야생적이라고 알려진 몇몇 장소들을 연결하고 싶었다. 스코틀랜드의 북서쪽 끝인 케이프 레스, 모든 산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벤 호프,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강 계곡 중 가장 아름답고 애처로운 스트라스나베르 등이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 남쪽으로 돌아올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스트라스나베르에서 여행을 시작했다. 길이 27마일에 이르는 스트라스나베르는 나베르 강이 벤 클리브렉의 그림자 아래에서 시작해 펜틀랜드 피르스로 흘러가는 굽이진 경로를 따라 흐른다. 스트라스나베르는 평평하고 비옥한 초원이 있는 넓고 평탄한 계곡으로, 동서로 뻗은 언덕이 보호막처럼 둘러싸고 있다.

스트라스나베르에 도착하기 전날 밤, 나는 알트나하라 근처 외진 도로에 있는 한 호텔에 묵었다.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음료를 주문하면서 카모플라주 바지를 입고 군용 그린색 스웨터를 두툼하게 입은 큰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앵거스였고, 그는 삼림 관리인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의 일은 수더랜드와 케이스니스의 이탄지에 무분별하게 심어진 침엽수를 베어내는 것이었다. 1980년대 보수당 정부가 제공한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빠르게 이익을 얻으려는 지주들에 의해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플로스라고 불리는 이탄지는 스코틀랜드 북부에 수백 평방 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다. 다른 이탄지처럼 이곳은 경이로운 풍경을 자랑하며, 현재는 세렝게티에 준하는 보호 지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모든 이탄지처럼 취약하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많은 이탄지가 사라졌다.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광대한 앨런 늪은 20년 만에 거의 모두 발전소로 전환되어 타버렸다. 랭커셔의 이탄지는 말라버리고 농지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플로스는 수분을 많이 빨아

들이고 빨리 자라는 침엽수로 덮여 이탄지를 숨막히게 하고 말려버렸으며, 그곳에 번성했던 이끼와 희귀한 새, 식물, 곤충들을 죽여버렸다.

플로스는 겨우 멸종을 면했다. 땅은 비싼 가격으로 되찾았고, 이제 다시 식재 전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첫 단계는 침엽수를 베어내는 것이었다. 앵거스는 그것들을 "싯카 쓰레기"라고 불렀다. 그는 나무 한 그루당 25펜스를 받으며, 여름철에 수십억 마리나 나오는 벌레들, 그리고 이제는 라임병을 옮기는 사슴 진드기가 있어도 이 일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더랜드에서 태어났지만 프랑스 여성과 결혼해 오베르뉴에서 10년간 살다가 결국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왔다. 고향 풍경이 너무 그리워서 떠날 수 없었다고 했다. 때로는 겨울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피난처를 마련하고 사슴을 사냥해 며칠 또는 일주일간 머물기도 한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 왕복 도보가 필요 없어 편하다고 했다.

그날 저녁, 한 시간쯤 이야기를 나눈 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떠나기로 했다. 호텔에 오기 전에 밤을 보낼 장소를 정해 두었는데, 도로가의 싯카 숲으로, 뽕뽕하게 엮인 바늘 모양의 나무가 가벼운 비를 막아줄 것 같았다. 앵거스에게 내가 플랜테이션에서 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가 이를 못마땅해할 것 같기도 했고, 조금 부끄럽기도 했다.

떠날 준비를 하자, 앵거스는 다음 날 네이벌 강 어귀에서 함께 바다 송어를 잡으러 가고 싶으냐고 물었다. 나는 매우 그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자기가 직접 지은 집을 찾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는데, 록 네이벌의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긴 도로의 물 쪽에 있는 유일한 집이기 때문에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강어귀 근처에 있는 언덕 위에는 묘지가 있다고 했다. 1902년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어린아이 엘사 당크워츠가 묻혀 있는 곳으로, 네덜란드 이민자였던 그녀의 부모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이곳에 그녀를 묻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 묘비 자체만으로도 볼 만한 가치가 있으며, 그곳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말할 것도 없이 아름답다. 또한,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이 계곡에서 벌어진 ‘클리어런스’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다. 이 계곡은 스코틀랜드 역사상 가장 어두운 사건 중 하나가 벌어진 현장이었기 때문이다.

1819년 5월의 따뜻한 일요일 아침, 도널드 세이지 목사는 스트라스나버에 있는 랭데일 작은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다. 그날은 아름다운 날이었고, 나중에 그가 기억하기로는, 그곳의 나무들과 산들, 강은 “고향과 조국이라는 우리 모든 추억과 애착을 끌어모아”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한다.

세이지는 북쪽 펜틀랜드 퍼스에서 남서쪽 케이시니스와 북해 해안까지 이어지는 긴 강 계곡들에 자리한 작은 교구들, 아크네스와 킬도난, 사이어 교구를 담당했다. 그는 이번 일요일이 랭데일 교회에서의 마지막 예배가 될 것을 알았다. 그와 그의 신도들은 곧 클리어런스로 인해 스트라스나버의 여러 마을이 다시 비워질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계곡의 주인인 서덜랜드 백작부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몰려와 주민들을 집에서 내쫓고, 그 땅을 양을 키워 수익을 올리기 더 좋은 곳으로 바꿀 계획이었다.

그 후 몇 주와 몇 달 동안 스트라스나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서로 엇갈리고 논란이 많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해에 거의 모든 마을 주민, 총 1,200명이 위협과 허위 약속을 통해 강제로 퇴거당했다고 한다. 클리어런스가 진행된 이유는 땅주인들의 이익을 위한 탐욕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1820년 5월경, 버려진 랭데일 교회 안에 까마귀가 둥지를 틀었다는 기록도 있다.

사용된 폭력의 정도는 불분명하다. 스트라스나버의 로절 마을 주민이었던 도널드 맥클라우드는 클리어런스가 있었던 어느 날 밤 11시에 계곡 위의 언덕으로 걸어가 뒤돌아보았다고 기록했다.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여성들과 아이들의 울음소리, 개들의 짖는 소리, 소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했다. 또한, 그 지역의 건물들, 200채가 넘는 집들이 전소되었거나 붉게 타오르는 나무 잔해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고 했다. 백작부인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또는 걸어서 도착했으며, 불을 피울 나무 조각들, 팽이와 큰 망치들을 들고 와서 학교 건물, 옥수수 창고, 곡물 분쇄기, 헛간과 축사 등 수십 채의 집들을 부수고 불태웠다고 전해진다.

스트라스나버는 1814년과 1819년에 걸쳐 두 차례에 걸쳐 정리되었다. 내쫓긴 주민들은 대부분 북쪽 해안으로 몰려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얇고 모래투성이며 소금기 가득한 흙으로 덮인 펜틀랜드 퍼스 해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이 척박한 해안으로의 이동 자체도 힘겨운 여정이었고, 피로와 노출로 인해 도중에 목숨

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다. 질병과 영양실조로 약해진 두 딸을 둔 도널드 맥케이는 케이시니스로 가는 작은 범선에 두 딸을 태우고자 안간힘을 썼다. 그는 딸들을 한 번에 한 명씩 업고 해안으로 향했으며, 먼저 첫째를 해변의 야외에 눕힌 후 돌아가서 둘째를 데려오는 방식으로 25마일을 걸어갔다.

해안으로 이주한 이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바다에서 살아가는 기술을 익히지 못한 이들은 거의 굶주림에 가까운 생활을 하였으며, 해변에서 조개를 주워 먹거나 오토밀로 걸쭉하게 한 썰기풀 수프를 먹어야 했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이주민들에게 아픔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계곡 중 하나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주, 징집, 죽음, 그리고 이주 과정에서의 고난을 겪으면서, 5년 동안 스트라스나버는 스코틀랜드의 다른 많은 계곡들처럼 거의 사람들로부터 비워졌다. 1881년 알렉산더 매켄지는 "북부 계곡의 가족들이 완전히 뿌리 뽑히고 불타버렸다"고 기록했으며, 교구마다 "홀로 남겨진 황야로 변해버렸다"고 썼다.

도로에서 본 앵거스의 집은 작고 낮은 모습이었다. 회색 자갈로 마감된 단층 건물은 땅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 위치는 매우 훌륭했다. 바로 뒤로는 맑은 새벽빛을 받아 반짝이는 호수가 펼쳐져 있었고, 은빛 자작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줄기들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남쪽으로는 여전히 뒷배경에 비친 긴 곡선의 실루엣을 가진 벤 클리브렉 산이 우뚝 솟아 있었다.

앵거스의 차로 스트라스나버 도로를 따라 올라가며, 검은 낙숫대들이 뒷창문 밖으로 안테나처럼 나와 있었다. 그는 차를 몰며 우리에게 다양한 랜드마크들을 가리켜 보였다. 클리어런스 동안 버려진 후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집들, 게으른 밭, 오래된 물고기 연못, 청동기 시대의 오두막 터들이 있었다. 약 40분 정도 후에 우리는 강 어귀에 도착했고, 반짝이는 검은색으로 새로 칠해진 강철 교각 근처에 주차했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공기는 차가웠고, 호수 근처 공기와는 달리 더 날카롭고 짭짤한 냄새가 났다.

가파르고 바위가 많은 지형을 따라 서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 강둑의 넓은 황금색 모래밭으로 내려섰다. 모래는 부드러웠고, 발목까지 빠져들어 갔다.

건조한 공기와 강한 바람이 빚어낸 아름다운 시각적 효과가 있었다. 수십억 개의 느슨한 모래 입자들이 바람에 휘날려 공기를 타고 움직였고, 마치 물결치는 두 번째 피부처럼 실크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보였다. 그 모래는 고정된 모래 위를 빠르게 이동하며, 동일한 물질이지만 움직임만 다를 뿐인 두 물질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체감을 주었다.

우리는 이동하는 모래 위를 강을 오른쪽에 두고 바다 쪽으로 걸어 내려갔다. 어느 순간 수달 한 마리를 놀라게 했고, 수달은 바위 위를 재빨리 달려가 갈색 물로 뛰어들어 곧바로 모습을 감췄다. 겨울 햇살은 너무 밝아서 강바닥에 금괴처럼 누워 있었다.

앵거스는 강어귀로 들어가는 동쪽 끝의 헤드랜드를 가리켰다. 저 위에는 19세기 감시초소의 폐허가 있다고 했다. 산란철이 되면 사람들이 거기서 앉아 들어오는 연어 떼를 지켜보곤 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연어 떼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몰려들면 물속에서 어두운 덩어리를 이뤄 감시초소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컸다고 한다. 감시자들이 외치면 배들이 나가 강어귀에 그물을 던졌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절은 다 가고 강에는 연어가 거의 없다고 했다.

앵거스는 스트라스나버에 처음 사람들이 정착한 것은 6천 년 이상 전의 일이며, 그 이후로 줄곧 어떤 형태로든 인간의 흔적이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연속적인 거주 흔적들은 계곡 곳곳에 남아 있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중요한 죽은 자들을 챔버드 케언에 묻었고, 그 유적은 아직도 남아 있다. 청동기 시대에는 고인돌과 돌 열이 세워졌다. 만(灣)을 돌아 북서쪽을 가리키며 기독교 정착지인 엘리언 네이브 섬이 그곳에 있다고 했다. 성 콜룸바와 함께 일했던 코마릭이 세운 이 정착지는 "성인의 섬"이라고 불린다.

그는 이어 강을 따라 나 있는 사암과 바위의 돌출된 능선을 가리켰다. 그 위에는 철기 시대의 브로흐 유적이 있다고 했다. 그 벽은 15피트 두께였다고 한다! 당시 사람들은 바람을 차단하는 방법을 잘 알았다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화창한 아침 동안 우리는 강의 서쪽 둑에서 낚시를 하며 몇 시간을 조용히 보냈다. 낚싯대는 물을 향해 낮고 비스듬히 내려져 있었고, 우리 위로는 두 마리의 솔개가 조밀하게 나선형을 그리며 돌고 있었다.

두 세기 전, 스트라스나버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이 강둑을 따라 걸었을 것이다. 지친 채 두려움에 휩싸인 채로 이 강어귀에 도착했을 것이다. 강어귀를 양옆으로 멋지게 지키고 있는 모래언덕들은 그들에게는 새로운 고난이 기다리는 해안으로의 입구였을 것이다.

지금도 스코틀랜드의 클리어런스가 있던 계곡을 지나다 보면 그 옛 재난의 흔적을 놓치기 어렵다. 그 흔적에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게 되면서 땅과의 관계가 바뀌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런 장소들의 과거는 그 현재의 야생성을 복잡하게 하고, 낭만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경계하게 한다. 이러한 풍경 속에 있는 것은 이중의 딜레마에 갇히는 일이다. 현재 이곳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그 혼란스러운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20세기 게일어 시 부흥을 이끌었던 시인 소리 매클레인은 이 딜레마를 잘 알고 있었다. 매클레인은 1911년 스코틀랜드 서해안의 라아세이 섬에서 태어났다. 클리어런스 기간 동안 라아세이의 인구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 수많은 가족들이 이민을 떠났고, 또 수많은 이들이 강제로 추방당했다. 남아 있던 이들은 비옥한 남쪽을 치비엣 양을 위해 비우고, 섬의 험준한 북쪽 끝으로 밀려났다. 매클레인의 조부모 네 분 모두가 농장에서 쫓겨났다. 버려진 집과 농장은 판자로 덮이거나 그대로 방치되어 이끼와 덩굴에 덮여 다시 땅으로 돌아갔다.

매클레인의 가장 뛰어난 시 중 몇 편은 라아세이를 배경으로 하며, 이 섬의 야생성은 매클레인에게 있어 부분적으로 상실의 결과였다. 그 넓은 공간은 결핍을 드러냈고, 그 고독함은 재난을 나타냈다. 이러한 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작품은 바로 그의 꿈 같은 시, '할레이그'인데, 이 시는 클리어런스로 황폐화된 같은 이름의 라아세이 마을과 그를 둘러싼 숲에서 영감을 얻었다.

목재는 클리어런스 이전 라아세이 문화의 중심이었다. 예상외로 광대한 섬의 숲은 주민들에 의해 활용되었다. 배는 참나무와 소나무로 만들었고, 노와 키는 물푸레나무로 제작했다. 산사나무와 호랑가시나무는 울타리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집은 참나무 기둥과 개암나무로 엮은 지붕받침으로 지어졌다. 버드나무로 바구니를 엮었고, 접시는 접시나무로 만들고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나무의 나이트 무늬가 드러나게 했다. 주민들의 삶에는 나무의 무

한한 번영이 요구되었기에 숲은 가꾸어지고 보존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쫓겨난 후, 그 자리를 차지한 양들의 방목으로 인해 숲의 재생이 억제되었다. 숲은 사람들이 떠나간 것처럼 사라져갔다.

맥클레인에게 섬에 남아 있는 숲은 귀중하고 아름다웠다. 그는 ‘녹색의 부드러운 바다’ 가까이에서 소나무 숲 속 폭풍을 맞으며 나무들이 바람에 따라 흔들리며 “바람이 불어오는 머리”로, “아찔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느꼈다고 썼다. “움직이는 거대한 숲, 신선한 그 영혼 속에.” 그러나 그에게 숲은 섬의 비극을 표현하는 곳이기도 했다. 이곳은 시간의 흐름이 오락가락하며 과거와 현재가 혼란스럽게 뒤섞이는 기묘한 공간이었다. 라아세이 숲에서 그는 “죽은 자들이 살아 있는 모습으로 보였고,” 사라진 이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고 썼다. 그래서 ‘할레이그’ 시에서 클리어런스로 사라진 세대들은 나무 형상의 유령으로 돌아온다. 이 시는 황혼에 설정되어 있으며, 맥클레인은 라아세이 언덕의 숲에서 나온 어린 소녀들이 “가볍고도 상처받지 않은 채” 걸어오는 모습을 상상한다. “깜박이는 자작나무, 개암나무, 마가목”의 모습으로 말이다.

우리는 송어를 낚았다. 앵거스는 네 마리를, 나는 한 마리를 잡았다. 작은 은빛 물고기들이며, 각각 겨우 1파운드 정도로, 빛을 받아 반짝였다. 앵거스는 오후 일찍 가족에게 잡은 물고기를 가져다주기 위해 떠났다. 나는 그의 친절에 감사하며, 그가 부드러운 모래를 걸어 다리 쪽으로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돌아서서 앵거스가 이전에 가리킨 능선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꼭대기에는 브로흐가 있었다. 나는 가파른 비탈을 올라가면서 모래가 조금씩 발밑에서 흩어지는 것을 느꼈고, 날카로운 풀을 움켜잡아 균형을 잡으며 바위를 향해 올랐다.

능선의 끝 근처에 다다라 브로흐에 도착했다. 두꺼운 벽은 잘 보존되어 있었거나 재건된 듯 보였다. 돌로 된 둥근 고리가 약 30피트의 내부 지름을 이루고 있었고, 북서쪽으로 열린 입구가 있었다. 브로흐 주변 땅은 여전히 도랑과 방벽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고, 서쪽 아래 낮은 지대에는 오두막 원형 흔적처럼 보이는 자국이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갑작스러운 고요함이 나를 놀라게 했다. 검은 돌이 사선으로 석영 줄무늬가 있는 채로 이끼 낀 바닥 여기저기에 대포알처럼 널려 있었다. 오래된 불의 흔적인 어두운 숯의 자국이 있었다. 나는 한 벽 옆에 무릎

을 꿰고 그 바닥의 이끼와 모래를 조금 걷어냈다. 돌은 내가 파내릴 수 있는 깊이까지 계속 내려갔다. 내가 서 있는 바닥은 수세기에 걸친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였다. 사하라 사막의 어떤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모래를 집에서 내쫓지 않고 오히려 초대해 들인다고 들었다. 그들은 바닥에 모래를 두껍게 깔고, 손으로 짠 양탄자를 그 위에 깔아 수면을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날 오후 늦게, 나는 브로흐를 떠나 걸으며 땅과 물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탐색했다. 강 가장자리에서 물로 내려가는 독에는 파도가 모래를 층층이 깎아내어 계단식 테라스를 만들었다.

해안가에 내려가니 옅은 색의 마른 표류목이 하나 보였는데, 바다가 그것을 나뭇결이 드러날 정도로 닳도록 문질러 놓은 상태였다. 우리는 아마 전에 봤던 것과 같은 수달의 발자국을 발견했는데, 젖은 모래에 선명하게 찍힌 자국은 마치 과자로 찍어낸 것 같았다. 각 발톱 끝에서 앞으로 던져진 모래의 흔적으로 보아 빠른 속도로 움직였음을 알 수 있었다. 동물 뼈들도 발견했는데, 알 수 없는 문자를 그린 듯 흩어져 있었다. 나는 다른 물건들도 주워 브로흐로 가져와 바닥에 놓았다. 검은 돌 하나, 길이 약 2인치로 물개와 비슷한 모양이었다. 현무암일 것 같았다. 작은 마름모꼴의 돌 하나는 그 회색과 흰색 줄무늬가 표류목과 모래 계단을 연상케 했다. 말린 해초 한 다발. 황갈색과 크림색이 섞인 솔개 깃털 하나, 다섯 개의 짙은 대각선 줄무늬가 있었다. 두 개의 깃을 떼어내자 부드러운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분리되었다. 나는 이 물건들을 선과 무늬로 배열해 보았고, 순서를 바꾸어 보았다. 물개 돌은 친구 리오에게 주기로 하고, 해초는 로저에게 줄 생각이었다. 나머지 물건들은 나의 폭풍 해변 컬렉션에 남겨두기로 했다.

날이 저물어가며 나는 강의 입구로 걸어 내려갔다. 염수와 담수가 서로 엉켜들고 강이 넓어진 바다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강어귀의 얇은 물 속에서 나는 잠시 수영을 했다. 두 물이 어떻게 섞이는지는 볼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미세하게 밀고 당기는 흐름의 손길과 무수히 작은 파도와 물결의 충돌이 나를 감쌌다.

그날 저녁, 차가운 물에서 수영한 뒤 아직 피부가 얼얼한 상태로 나는 브로흐 근처에 돌들을 모아 고리를 만들고 그 안에 표류목으로 불을 지펴 바다송어를 잿불 위에 구워 먹었다. 송어가 익어가며 껍질이 오그라들고 어두워지며 울퉁불퉁해졌다. 빗방울이 잠시 내리며 불 위에서 지글거리더니 작은 돌들 위에 무늬를 남겨 마치 저어새 알과도 같았다. 나중에는 작은 새 떼가 화살비처럼 머리 위로 지나갔다. 멀리 북쪽의 해협에서는 배의 불빛인 흰색-빨강-흰색으로 된 별자리 같은 불빛이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식사를 마치고 브로흐로 돌아와 부드러운 모래 위에 잠자리를 깔고 누워, 브로흐의 벽이 감싸준 별들의 원형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별들은 날카롭고 선명했다.

그 흰 별들 아래 표류한 모래 위에 누워, 나는 여행을 시작할 때 가졌던 야생에 대한 순수한 북쪽의 인간과 멀리 떨어진 풍경이 점점 실제 땅과의 접촉에서 부서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국이나 아일랜드에는 그런 순수한 땅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순수성의 신화도 지속될 수 없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인간의 삶과 죽음은 더 이상 깨끗한 야생의 가능성을 없애버렸다. 모든 섬과 산 정상, 모든 은밀한 계곡이나 숲은 지난 오천 년 동안 어떤 식으로든 방문되었거나 거주지로 사용되었거나 흔적을 남겼다. 인간과 야생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였다.

켈트 기독교인들 이후, 문화는 야생의 공간에서 지속되었고 야생은 문화 속에서 지속되었다. 야생의 공간에는 쉼터 바위, 암각화, 케언, 돌담, 오두막, 농장, 마을, 마을의 흔적과 같은 지표와 거주지들이 자리해왔다. 그리고 사람들은 야생으로, 혹은 야생을 가로지르며 여행을 해왔다. 그것은 이야기와 노래, 전설과 시의 주제가 되어왔으며, 여기에는 맥클레인이 사람과 나무 사이의 관계를 상호 되새김질하는 시선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점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스트래스네이버였다. 이 협곡의 여러 인간의 과거는 그곳의 야생성과 깊게 얽혀 있었다. 수달의 발자국, 바다에서 강으로 들어오는 오래된 연어 떼, 바위 위 얼음의 상처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흔적도 이 야생 속에 남아 있었다. 나는 왠지 이 강과 땅이 분명하게 구분짓는 사고와 분할을 경계하라는 듯이 보였다고 생각했다. 그날 나는 여기저기서 섞임과 혼합을 접했다. 바람에 날리는 모래가 고정된 모래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 해수가 담수와 알 수 없게 섞이는 모습 말이다. 나는 작가 프레이저 해리슨의 말을 떠올렸다. “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풍경에 대한 인식만큼이나 안정적이지 않다. 처음에는 땅이 풍경의 신기루가 펼쳐

지는 단단한 모래처럼 보이지만, 결국 땅 역시 그 나름의 덧없음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장소’란 쉽 없이 변화하는 현상이다.”

스트래스네이버에는 바로 이런 역동적인 역사의 흔적과 현재가 얹혀 있었다. 강과 그 주변 야생의 경계들은 벌목을 하는 삼림 관리자, 험난한 해협에서 어업을 하는 어선의 선장, 철기 시대의 정착민, 기독교 수도사, 딸을 잃은 부모, 혹은 새로운 땅으로 북쪽을 향해 걸어난 이주민에게 각각 매우 다르게 다가왔을 것이다. 물론 며칠 동안 지나가는 여행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풍경 속 비인간 거주자들, 물고기와 새와 동물들의 이해할 수 없는 우선순위도 존재했다. 그들은 역사보다 오래된 패턴 속에서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들에게 땅은 어떻게 보였을까?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길을 찾았을까? 돌 위를 오르락내리락하며 물과 공기와 흙의 세 요소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수달, 강 어귀를 향해 냄새로 길을 따라가고, 화학적 기억과 별에 의해 다시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연어들. 아니면 그 긴 하루 동안 맴돌며 느긋한 나선형으로 지형을 바라보며 형상들 속에서 움직임을 주시했던 솔개들.

그날 밤, 목이 말라 깨어나 긴 모금으로 물을 마셨다. 밤 공기가 물을 차갑게 식혔다. 새벽 1시가 넘는 시각이었다. 나는 일어나 브로흐의 벽 너머를 바라보았다. 초소를 지나 텅 빈 북쪽 해협과 바다로 흘러드는 강이 보였다. 높은 달빛이 강어귀 위에 하얀 띠와 곡선을 드리우며 물결쳤고, 어두운 달그림자가 단단하게 바위와 돌 아래에 드리워졌다. 바람은 여전히 강했고, 달빛이 평원을 비추는 곳에서는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의 움직임을 희미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